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2. 12. 6.(화) 14: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동진, 김문수, 김이순,
나창순, 김종헌, 목수현, 신안준, 이광표,
이연경, 이혜은(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2차)	(공 개)
2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현상변경(2차)	(공 개)
3	사적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2차)	(공 개)
4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5	「1960년대 신생활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6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7	「목포 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8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0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1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민영환 예복 일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보고	(공 개)
----	---------------------------	-------

1.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2차)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기존 건물의 옥상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0.25.) : **조건부가결**
- 신청내용 : 종 교체, 음악종 구조물 설치
- 사유 : 음악종 구조물은 규모, 형태 등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81.9.25. 지정)
 -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10 (계산동2가 71-1외4필지)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대구 중구 서성로 10(계산동2가 71) 역사관 옥상 위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1.5m이격
 - 세부내용 : 음악종 구조물 설치
 - 형태 : 옛 사제관 형상화
 - 규모 : 5.7m × 5.7m × H 4.5m
 - 기존 건물 최고 높이 8.34m → 옥상 위 설치 후 최고높이 11.64m
 - 구조 : □형강 철골조(200x200x4.5T)

[1차 신청 세부내용]

- 위치 : 현재 파고라 철거 후 설치
- 형태 : 옛 사제관 형상화
- 규모 : 7.2m × 7.2m × H 7.9m
- 구조 : □형강 철골조(200x200x4.5T)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지난 1차 신청 당시와 구조물의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 위치를 건물 옥상위로 옮기면서 규모가 줄고 주변 건물에 가려져 구조물이 직접 조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22.10.2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좌·우 종탑 상부에 설치된 종은 각각 1908년(좌측종탑)과 1900년(우측종탑)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식, 표면 박리와 함께 일부 종에서는 파손이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교체 시 종소리가 현재와 이질적이지 않도록 크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교체 과정에서 종을 해체하고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하겠음.
- 음악종은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당 전례와 행사에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근대문화유산(근대 골목 등)을 찾는 관람객에게 성당의 역사적 의미 부여와 함께 도심 속 쉼터 및 친교 장소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과거 멸실된 사제관을 형상화 한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며, 규모(체적)도 작지 않아 성당 주변의 경관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색깔 등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추진
- 출석 11명 / 조건부 가결 10명, 기권 1명

2.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현상변경(2차)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0.25.) : **부결**
- 사유 : 건물높이 등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18.8.6. 지정)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4-7 (장미동 49-38)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군산시 장미동 1-15번지 외 13필지
 - ※ 허용기준 : 3구역(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건축물 최고높이 20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전북 문화재보호조례 :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영향 검토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20.81 m이격
 - 세부내용 : 숙박시설 신축
 - 용도 : 제1,2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호텔)
 - 대지면적 : 3,029.20㎡
 - 건축면적/연면적 : 1,970.77㎡/30,451.48㎡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하5층, 지상16층/최고높이 63m

[1차 신청 세부내용]

- 용도 : 제1,2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 대지면적 : 3,029.20㎡
- 건축면적/연면적 : 1,970.77㎡/31,707.15㎡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하5층, 지상17층/최고높이 66.15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지난 1차 신청과 비교하여 용도가 호텔로 바뀌고 최고 높이가 17층에서 16층으로 1층(3.15m) 낮아졌으나 여전히 영향 검토 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게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22.10.7.) : 문화재전문위원 ○○○, ○○○>

-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지상17층(최고높이 66.15m), 지하5층 규모의 상업시설(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축예정 부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이며 문화재지정구역 끝으로부터 약 320m 이격되어 있고 또한 해당문화재 정면에 '군산근대역사 박물관(최고높이 19.3m)'이 근접해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 최고높이가 공통 사항 허용기준에 비해 비교적 높게 계획되어 있음.
- 신축예정 부지 주변으로 '구 군산세관 본관'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구역과 국가등록문화재를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현존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규모의 적절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건물 높이 등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출석 11명 / 부결 11명

3. 사적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2차)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구 서울역사」 주변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보행로 조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서울역사」 주변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보행로 조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9.27.) : **부결**
 - 사유 : 육교의 설치 위치 및 방향 등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대표이사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서울역사」('81.9.25. 지정)
 - 소재지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28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17번지 외 3필지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2구역(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약 39.27m이격
 - 신청내용 : 서울역 북부역세권 보행로 조성

1차 심의('22.9.27.)	금회 신청
- 진입부(계단+에스컬레이터)폭= 6.8m, B= 7.5m, L= 109.92m, H= 13m(EL.+41.0m, 트러스 최상단) ※ 교량형식(상로 트러스 구조)	- 진입부(계단+에스컬레이터)폭= 5.1m, B= 5m, L= 109.92m, H= 13m(EL.+41.0m, 트러스 최상단) ※ 교량형식(상로 트러스 구조)
- 계단 진입부 데크 : 233㎡	- 계단 진입부 데크 : 565㎡
- 트러스 최상단 위 난간휨스 설치(h=3.0m) - 엘리베이터 설치 : 13인승(2.15×1.73m), H= 17.5m(EL.+45.5m)	좌동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적 「구 서울역사」 주변에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로 및 계단의 폭을 축소하여 보완 제출한 사항임
- 설치위치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

<현지조사 의견('22.9.1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신청계획 육교가 설치될 곳은 서울역 북부의 염천교 쪽으로 향하는 철로 들과 철제 전선, 철제전주 등이 복잡하게 난립되어 있는 곳임
- 근대사적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 기준에 의하면 신설 육교의 동쪽 계단과 상판의 일부는 제1구역(개별심의)에, 서쪽 구간의 대부분은 제2구역(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에 속함
- 본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서울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의 문제
 - 위에서 언급한대로 철로와 관련 설치물들로 복잡하며 무질서하기까지 한, 서울역 주변의 경관을 정화시키기 보다는 더욱 난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육교의 설치위치와 방향, 폭 등)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지역의 접근동선 해결책으로서 효율성
 - 서울역 동쪽 통일로의 육교 출발점은 역전우체국과 지하도 출입구의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서울역과 광장, 주변부의 왕래객을 효율적으로 개발지역으로 연결하지 못하며 '서울로 7017'의 교각들과 상판으로 인해 어수선한 서울역 주변의 공간을 정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지역으로 보행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통일로 동쪽 블록에서 접근하는 동선까지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육교의 설치 위치 및 방향 등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출석 11명 / 부결 11명

4.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개인 소장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9.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1점	○길이 58 ○가슴둘레 88 ○어깨너비 40 ○소매길이 64	1954년 (추정)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27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7.18.)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0.4.21.) :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보류’
(디자이너 최경자 디자인 및 제작 의복의 전수조사 후 재검토)
* 조사보고서는 <붙임2> 참조
 - (’22.6.9.) : 문화재 등록 검토 재조사 실시
 - (’22.8.31.) : 문화재 등록 검토회의
 - (’22.9.27.) :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로 추진
- (5) 등록예고 : ’22.10.17.~11.16.(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최경자 디자이너가 6·25전쟁 직후 폐낙하산을 재활용해서 제작하다가 나일론 원사를 편물로 제작하여 만든 나일론 블라우스임. 나일론이 국내에 도입되고, 유행하게 된 당시 시대상황과 편물 기술, 봉제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22.6.9.)

- '낙하산 블라우스'는 한국 패션디자인의 1세대 대표적인 디자이너 최경자의 작품이며, 6·25전쟁 시기에 대구 피난지에서 전쟁의 산물인 가볍고 질긴 낙하산 천을 재활용하여 블라우스를 만들면서 명칭이 파생된 것으로 시대성을 지님.
- 검토대상 유물은 실제 낙하산지가 아닌 의류용 나일론으로 제작되었고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양장점을 이용하기 시작하던 1950년대 전반기의 패션 양상, 섬유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및 경제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2.6.9.)

- 낙하산지를 활용하여 만든 블라우스라는 의미로 '낙하산 블라우스'라고 불리는 유물임. 실제로는 의류용 나일론으로 제작.
- 본 유물은 1950년대 전후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유행 스타일과 당시의 섬유 재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사회적·복식사적 의미가 있는 유물로 등록가치가 있음.

○ ○○○○○ ○○ ○○○('22.6.9.)

- 본 유물은 폐낙하산지와 같은 나일론으로 만든 블라우스로 1950년대 나일론의 대유행을 증명하는 유물로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어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낙하산 블라우스
2. 소 유 자 : ○○○
3.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27
4. 제작년대 : 1950년대
5. 재 질 : 나일론
6. 수 량 : 1점
7. 규격(cm) : 길이 58, 가슴둘레 88, 어깨너비 40, 소매길이 64
8. 조사자 의견('22.6.9.)

<문화재위원 ○○○>

1) 개요

- '낙하산 블라우스'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흰색 블라우스로, 1950년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6·25전쟁 당시에 가볍고 투명한 낙하산 천을 재활용하여 블라우스를 만들면서 '낙하산(지) 블라우스'로 불리게 되었는데, 검토대상 유물은 의복용 나일론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 제작자 최경자(1911-2010, 현 소장자 ○○○의 모친)는 한국의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이고 6·25전쟁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국제양장사'라는 맞춤 양장점을 운영하였음. 이 당시에 낙하산 천을 재활용한 '낙하산 블라우스'를 제작하였는데, 차츰 인기가 있자 의류용 나일론 섬유로 제작하였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낙하산 블라우스'는 흰색 나일론사로 투명하게 직조한 천을 겹감과 안감 삼아 제작되어 있으며, 옷깃과 소매 부분에 러플 장식을 달아서 우아함이 강조되어 있음. 최경자의 회고에 따르면(최경자, 「제74화 한·미 외교요람기(3) : 피난 시절」, 『중앙일보』 1981년 9월 26일 자 기사), 전쟁기에 반투명의 나일론으로 된 낙하산지가 젊은 여성들의 블라우스 감으로 충애를 받았고, 속옷과 살빛이 훤히 비취 보이는 새 유행이 히프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스커트와 함께 당시로서는 대단한 노출 모드여서 봉건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기도 했음.
- '낙하산 블라우스'로 불리지만 등록 검토대상 블라우스는 실제 낙하산 천을 재활용한 것이 아니고 유사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1950년대에 나일론은 가볍고 질기므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아직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고 수입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일본산 나일론이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왔음. 정식 수입은 현재의 코오롱 창립자 이원만(李遠萬, 1904~1994)이 1953년부터 일본으로부터 나일론 원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1959년 1월부터 생산하였음. 당시에는 수입된 나일론 원료를 기계에 넣어 스트레치 가공된 실을 만드는 수준이었음.
- 1963년부터 나일론 원사로부터 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여 나일론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후 나일론은 매우 중요한 옷감으로 활용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얇은 흰색 나일론으로 제작되어 원단의 변색이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구멍 난 부분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앞면	소매	손상부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장자 자택에서 보관중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본 유물은 실제 낙하산 천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산물인 낙하산 천을 재활용하여 의복을 만들기도 하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당시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의류사와 문화사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의복의 원단에 가치를 두고 등록된 유물로는 경기여고경운박물관 소장 <저항라적삼>이 있음. 유물의 보존 상태는 ‘낙하산 블라우스’가 다소 떨어지지만, ‘낙하산 블라우스’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으며, 나일론이라는 원단의 소재적 측면이나 디

자인상으로 한국 복식사에서 패션 흐름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최경자가 디자인한 의복으로 <군용 담요 코트>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미군의 구호물자를 활용해서 제작한 의복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블라우스’는 <군용 담요 코트>와 비등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됨.
- 현재 검토대상과 유사한 블라우스가 대구섬유박물관에 1점 소장되어 있으나 실제 착용한 적이 없는 견본으로 본 신청 유물보다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됨

7) 등록가치의견

- ‘낙하산 블라우스’는 한국의 패션디자인의 1세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최경자의 작품이며 특히 6·25전쟁 시기에 대구 피난지에서 전쟁의 산물인 가볍고 질긴 낙하산 천을 재활용하여 블라우스를 만들면서 명칭이 파생된 것으로 시대성을 지님. 검토대상 유물은 의류용 나일론으로 제작되었고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양장점을 이용하기 시작하던 1950년대 전반기의 패션 양상, 섬유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및 경제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검토대상 유물이 실제 낙하산 천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원이 낙하산 천을 재활용한 것이며 최경자 디자이너 자신이 ‘낙하산(지) 블라우스’로 불렀기 때문에 ‘낙하산 블라우스’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9) 참고문헌

- 박신미,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최경자 고찰: 매체분석을 통해 밝혀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복식』 69(2019.4), pp. 119-140.
- 신혜순, 『삶과 패션 1세기 · 패션의 선구자: 故 최경자 패션 회고집』, 한국현대의상박물관, 2011.
- 최경자, 『최경자와 함께 한 패션 70년』 재단법인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1999.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581233#home>
- 조선일보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37>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블라우스의 소재는 투명한 흰색 나일론임.
- 제작자는 우리나라 1세대 패션디자이너인 최경자로, 현 소장자 ○○○의 어머니임.
- 최경자 디자이너가 6.25 전쟁 이후 대구에서 나일론으로 블라우스를 다량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그중 한 벌이 다시 제작자에게 기증되었다고 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디자이너 최경자(1911~2010) 연표

연도	주요 활동	연도	주요 활동
1936	동경 오차노미즈 양장 전문학교 졸업	1964	차밍스쿨 설립, 패션모델 양성
1937	함흥 <은좌옥>양장점 운영		최초의 스타일화 전시회 개최
1938	함흥양재전문학원(국제패션디자인학원 전신) 원장	1968	최초의 패션 전문 종합지 <의상> 창간
1952	대구에 국제양장사 개업	1973	미국 순회 패션쇼 개최
1954	명동에 국제양장사 개업	19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취임
1955	대한복식연우회 창립, 초대 회장	1978	하와이이민 75주년 기념 실크패션쇼 개최
	최초의 매거진모드 <여원> 시도	1980	(재)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설립, 이사장 취임
1957	반도호텔에서 제1회 개인의상 발표회 개최	1982	<한국패션50년사> 발간
1963	최초의 국제적 <한일 친선교류 패션쇼>	1993	국제적인 패션전문지 <WWD> 한국어판 발행
	(사)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창설, 회장 취임		

- 최경자는 우리나라 양장 1세대 중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일생동안 새로운 스타일의 발표와 디자이너 양성 교육에 기여하였음.
- 우리나라 양장사에서 협회 창설, 양장 교육기관 설립, 국제 패션쇼 개최, 잡지 창간 등의 타이틀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업적이 많고, 양장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볼 수 있음. 본 유물에 대한 평가는 배경 시대의 이해, 유물 자체의 가치와 함께 최경자 디자이너의 생애까지 함께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나일론 역사와 우리나라 나일론의 도입

- 1935년 미국 뒤퐁(Du Pont)사에서 폴리아미드계 섬유인 나일론(Nylon)의 발명을 공표하였고, 1938년 나일론 스타킹이 첫선을 보임.
- 국내에 나일론 제품이 처음 들어온 것은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해외에서 각국의 원조 물자가 유입되면서부터임.
- 정식으로 수입된 것은 현재의 코오롱 창립자 이원만(李遠萬, 1904~1994)이 1951년에 설립한 삼경물산에서 1953년부터 일본으로부터 나일론 원사를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국내로 들어옴. 1957년 4월에 이원만은 정식으로 (주)한국나일론을 발족시키면서 대구에 스트레치 나일론絲 공장을 세웠고, 1959년 1월부터 생산에 나섬. 당시에는 수입된 나일론 원료를 기계에 넣어 스트레치 가공된 실을 만드는 것부터 국내에서 진행한 것임.
- 1963년부터는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나일론 원사로부터 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때부터 나일론의 국내 생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

○ 1950년대의 낙하산 블라우스와 나일론 블라우스 유행

- 일제 강점기 후기 섬유공업 등 복식문화의 자체 기반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맞이한 8.15 광복기에 의료(衣料)로 사용된 것은 미군으로부터 유입된 서지(serge)와 낙하산감이었음. 특히, 낙하산감은 군수물자였는데 의류로도 쓸 수 있는 나일론이었음.

- 1950년대 초반 나일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데 비해 국내 생산이나 수입은 자유롭지 못하였음. 그 이유는 이 시기는 외국의 구호품을 받아 의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피폐한 시기이었으므로 정부에서 '전시생활개선법'(1951년 11월 18일 공포)을 통해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복장의 착용과 외국산 사치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임.
- 1950년대에는 나일론이 여름용 여성복 옷감으로 장기간 유행하였음. 소설가 박완서의 다음 글을 통해 나일론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오십년대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화학섬유의 등장 또한 빠뜨릴 수가 없다. 제일 처음 등장한 나일론 섬유의 인기는 가히 선풍적이었다.(중략) 울이 거미줄처럼 가볍고 철사처럼 질길 뿐아니라, 다양하고 화사하고 세련된 색상은 여지껏의 어떤 섬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매혹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빨면 쉬 마르고 다림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가히 의생활의 혁명이었다. 초기에 들어온 나일론 섬유가 거의 살이 비치는 얇은 거여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고, 통풍성이 형편없는 더웁고 끈끈한 옷인 줄 헤아릴 새도 없이, 여름 옷감이라 속단하고 말았다. 너도 나도 까다로운 모시옷은 뚝 잘라 행주나 만들고, 꽃구름 같은 나일론으로 치마저고리를 지어서 뽀내고 입고 다녔다. (박완서, 「1950년대-‘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 민중생활 100년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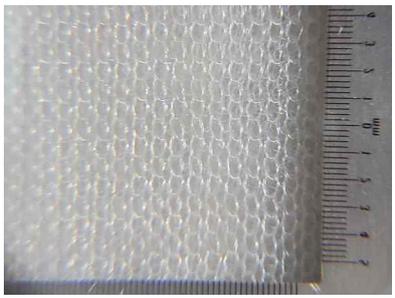
- 위의 글에서는 대부분 치마저고리를 나일론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글의 앞에 일반 여염집 여성들은 한복을 입었고, 양공주라 불리는 특수한 직업여성들이 양장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옴.
- 최경자 디자이너의 회고에서도 낙하산지로 만든 블라우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하는 직업여성들이 주로 착용하였다고 함.

○ 유물의 내용 및 특징

- 오른쪽 사진은 최경자 디자이너의 패션쇼에서 모델이 착용한 것으로 촬영일자는 확인할 수 없음. (1950년대 제작 당시의 사진은 아님.)
- 본 유물은 얇고 투명한 나일론으로 제작된 블라우스로, 낙하산감을 재활용하여 만들었다고 해서 ‘낙하산 블라우스’로 불렸음.
- 그러나 실제로 본 유물은 낙하산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블라우스를 제작할 수 있는 나일론 직물을 따로 짜서 제작한 것이라고 함. 현 소장자에 의하면 어머니인 최경자 디자이너가 한국전쟁 시기에 대구로 피난을 가서 대구에서 양장점을 운영할 때 디자인하여 제작한 것으로, 주된 고객은 미군을 주요 고객으로 하였던 여성들이었고, 그들 중의 누군가에게 이 유물을 기증받았다고 함.



낙하산 블라우스

앞면	뒷면	칼라
		
소매	커프스	직물 확대 사진
		

- V 네크라인의 주변과 손목둘레 주변에 5.5cm길이로 같은 옷감 2겹을 이용하여 프릴장식을 달았음.
- 양쪽 가슴에서 옆선쪽으로 다트를 잡았고, 앞중심선에 단추 4개를 달아 왼쪽으로 여밈.
- 조직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 단면을 원형으로 제사한 나일론을 편직으로 짤. 단면이 원형 혹은 원형에 가까우면 촉감이 부드럽고, 투명하며, 반짝이는 광택이 남. 초기의 합성섬유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고, 점차 천연섬유인 견섬유와 유사한 광택을 내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 나일론은 부드럽고 질기며 광택이 좋은 반면에 흡습성이 낮은 단점이 있음. 니트로 짠 조직은 신축성이 있으므로 본 유물은 착용시 피트성과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아래의 대구섬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블라우스는 (대구섬유박물관 소장본) 검토대상 유물을 본떠 제작한 것이라고 함.



낙하산 블라우스 (대구섬유박물관 소장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매우 얇은 나일론으로 제작되어 현재 삭아서 찢어지는 부분이 있음.
- 형태가 변형되지는 않았지만 노후화는 많이 진행되었으므로 최대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보존처리가 시급함.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신소재로서 나일론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물임.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낙하산지로 만들어진 의류나,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블라우스가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없음.
- 특수한 소재라는 의미로 등록된 유물로는 2014년에 등록된 경운박물관 소장의 '저항라 적삼'이 있음.
- 1950년대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의생활 유물로, 최경자가 미군의 구호물자로 제작한 '군용 담요 코트가' 있음. .

6)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의류용 나일론으로 제작한 블라우스로, 1950년대 미군을 상대한 직업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음. 현재 보고된 유물 2점 중 대구섬유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본 유물을 본떠 제작된 것이므로 본 유물의 희소가치가 더 큼.
- 1950년대 전후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유행 스타일과 당시의 섬유 재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복식사적 의미가 있는 유물로 판단되어 등록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낙하산 블라우스'로 제안함.

8)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대구섬유박물관, 『대구 섬유, 우리 삶을 바꾸다』, 2021.
- 김성련, 『피복재료학(제3개정증보판)』, 교문사, 2009.
- 박완서, 「1950년대 '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 역사비평 1991년 여름호(통권 1호), 1991.
- 신혜순, 『삶과 패션 1세기·패션의 선구자 故 최경자 패션 회고집』, 한국현대의상박물관, 2011.
-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0.
- 이상례, 「최경자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원만, 『나의 政經五十年』, (주)코오롱, 1977.
- 이정은, 「1950년대 나일론 유행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자본의 대응」, 역사와담론 제100집, 2021.
- 최경자, 『최경자와 함께한 패션 70년』, (재)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1999.
- 한국섬유신문 2006년 '아름다운 사람들...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최경자 여사>'시리즈.
- 중앙일보 1981년 9월 6일자 기사, '제74화 한·미 외교 요람기(3) 피난 시절. 양장점 단골은 미군 위안부들, 흰회 비치는 감으로 타이트 스커트와 함께 유행, 낙하산지 블라우스'
-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26>
- <https://www.joongang.co.kr/article/1581233#home>

1) 개요

- 본 유물은 1950-60년대를 풍미했던 디자이너 최경자가 6.25 전쟁기 대구에 피난 내려가 머물렀을 때, 시장에 쌓여있던 전쟁의 산물인 낙하산지와 동일한 나일론으로 여성 블라우스를 만들어 판매함. 당시 낙하산 블라우스를 산 고객 중 한 명이 자신이 입었던 블라우스를 보관해 오다가 최경자에게 기증함. 현재 최경자의 딸 ○○○이 소장하고 있음.
- 염색되지 않은 나일론 편물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앞에서 단추로 여며지는 프릴 블라우스임. 프릴은 목둘레와 소매에 부착됨. 소매는 통이 넓은 비숍 슬리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나일론은 1935년 미국 듀폰(DuPont)사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재료(섬유)임.
- 한국 사회에 나일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45년 9월 미국이 진주하면서 부터이며, 전쟁 3년간 나일론은 미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됨. 의생활이 궁핍 하던 중 미 군수물자가 대량 범람하였고 그중에 의류로 쓸 수 있는 나일론 낙하산지도 섞여 있었음. 당시 젊은이들은 이것으로 머플러를 만들어 목에 감고 다녔으며, 나일론 여자 스타킹도 암시장에서 시판되고 있었음.
- 1950년대 초반 전쟁 시기 나일론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되었음. 1952년 사치금지 품목 중 의복지는 다음과 같음.
 - 의복지(衣服地) 의류품(衣類品)=외국산 즉, 양단 벨벳 하부다이 오빠루 레-스 조셋도 나일론제품 모피(毛皮)목도리
- 휴전이 성립되고 국내 산업이 재건되기 시작하면서 양말을 비롯한 내의 등 2차 가공제품 공장이 건설되어 갔음. 나일론 원사를 만드는 것은 1950년대에는 불가능하였고, 수입한 원사로 직물과 양말을 제작하기 시작함. 메리야스 업계는 1951년부터 나일론 양말의 생산을 시도하였는데, 1954년에 성공을 거두어 외제에 손색없는 나일론 양말을 생산함. 나일론 직물은 1954년까지 외래품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1955년 외국으로부터 원사와 직조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도 세련된 옷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함. 나일론 직물은 태창직물에서 1954년 10월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국 직물업계의 합성시대를 개막하였음.
- 전쟁 후 사치품으로 수입 제한되었던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1954년 상공부는 나일론 직물을 비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정식으로 수입을 허가함. 당시 상

공부에서 허가한 것은 단일색 부분의 사치성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기로 함. 국내에 소개된 나일론은 질기고 손이 덜간다는 장점으로 양말, 셔츠, 블라우스, 한복감 등 순식간에 보급되어 혁명적이라 할 만한 대 유행으로 복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 아래의 기사를 통해 1954년 여름, 국내에서 나일론의 선풍을 확인할 수 있음. 삽화 속 여자는 속옷이 흰히 비치는 나일론 반팔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있음

	<p>“치마 적삼은 물론 양말에 장갑에 「와이샤츠」 「런닝샤츠」—심지어는 「슈미즈」에 「팬츠」 「즈로오쓰」까지 「나이롱」이 아니면 못살겠다는것이 소위 『자칭문화인』들의 자랑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롱」오이에 「나이롱」냉차에 「나이롱」두부까지 나왔다고 장사치가 외우고 다닐만큼 「나이롱」은 천하의 독불장군이 되고 말았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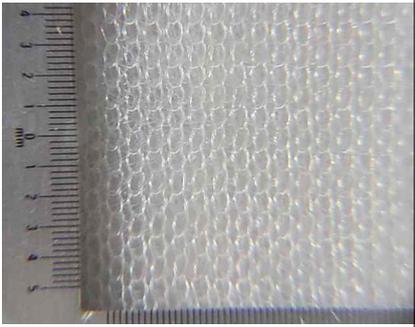
〈그림 3〉 “갑오선풍 나이롱”, 1954년 12월 23일, 조선일보

<p>〈그림 4〉나이롱 슈미즈 (1950년대)</p>	<p>〈그림 5〉 나이롱 드로어즈 (1950년대)</p>	<p>〈그림 6〉 케어 태그 (나이롱 트리콧)</p>

-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여성의 스타킹을 재활용하여 낙하산을 만들자는 운동도 펼쳐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킹 원단인 트리콧 편물과 낙하산지가 동일하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음. 모두 나일론 66이란 합성물 원료를 사용함.
- 1940년대 유럽에서는 낙하산지로 제작된 웨딩드레스가 있었음. 태평양전쟁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낙하산지는 일본에서 수출된 실크 낙하산지가 대부분이었음. 태평양전쟁 이후 낙하산지는 전량 나일론 서지로 바뀜.
- 본 유물 ‘낙하산 블라우스’의 소재는 평직 또는 능직의 나일론 서지로 실제 낙하

산지는 아님. 당시 낙하산은 미 군수물자로 국내에 들어오거나 구제품으로 들어와서 유출되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최경자는 1954년 대구 피난시절 당시 대구 시장에 높이 쌓여있는 낙하산을 재활용해서 낙하산 블라우스를 제작했다고 함. 당시 낙하산지는 보통 rib-stop이라고 하여 평직으로 짜고, 규칙적으로 강화실을 넣어 강도를 높인 실용적인 원단을 사용함. 이후 블라우스가 잘 팔리자 실제 낙하산지가 아니라 국내에서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었던 나일론 편물을 주문하여 블라우스를 제작함.

- 수입된 나일론 원사로 대구에 소재한 국내 메리야스/트리코트 공장에서 생산한 나일론 편물로 제작된 블라우스일 가능성이 높음. 염색되지 않은 소색(素色)이며, 편물로 제작된 점은 이 블라우스 소재가 대구의 작은 공장에서 메리야스-니트 편물기로 짠 가능성을 시사함.
- 당시 봉제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약간 조악한 재봉법인 것을 보면, 1954년 국내에서 제작되고 판매되었던 나일론 블라우스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음.
- 당시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나일론 블라우스는 직물로 제작된 것과 편물로 제작된 것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직물 블라우스와 달리 편물 블라우스는 드레이프성(부드러움)과 투명함(시스루)의 특성을 지님. 나일론 편물은 나이트가운 등 속옷류에 주로 사용한 원단임. <그림 7>
- V 넥라인에 프릴이 겹으로 달리고, 비숍 긴 소매 끝에도 프릴이 달린 앞에서 단추 4개로 여며지는 나일론 편물 겹 블라우스임. 앞판 양쪽 가슴에 다트를 잡음.<그림 8>~<그림 12>

		
<그림 7> 나일론 조직 확대	<그림 8> 카라 프릴 장식	<그림 9> 소매 프릴
		
<그림 10> 소매 프릴 장식 재봉 (원단으로 감싸서 재봉)	<그림 11> 앞중심 단추와 단추구멍	<그림 12> 다트 잡은 모습

- 유물의 제작 경위
 - 소장자 ○○○의 모친인 한국 1세대 디자이너였던 최경자(1911~2010)씨가 1953년 대구에 피난 갔을 때,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국제양장사’라는 양장점을 운영함. 1954년 원단장사에게 직물을 주문하면 2주경 후에 원단을 배달해줌. 원단은 낙하산에 사용되는 직물을 모방하여 제작하여 ‘낙하산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림. 이 직물로 만든 블라우스가 ‘낙하산 블라우스’임.

- 최경자가 디자인하고 양장점에서 몇 사람이 밤새 만들어 보따리 장사에 의해 유통되었다고 함. 주 고객인 대학생은 유행을 앞서가는 패션리더로서 착용하였고, 양색시들은 대학생의 유행을 모방하며, 반투명한 재질의 특성 때문에 입었다고 함. 반투명한 옷감이기 때문에, 속에는 남자용 런닝셔츠를 받쳐 입기도 했다고 함.
- 「의상 100년 한국인의 패션」 DVD(KBS제작, 1999)에서 최경자의 나일론 블라우스 관련 구술 기록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음.

	<p>“낙하산지를 많이 쌓아 놓고 팔아요. 그걸 하나 사다가 뜯어서 빨아서, 블라우스를 만들었어요. 거기 입으면 흰히 비쳐요. 너무 야하죠. 그때는 양부인들이 많을 때. 야하니깐 그들이 와서 사가는데 불티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낙하산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했어요 (웃음)...”</p>
<p><그림 13> 최경자 인터뷰 장면</p>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재봉된 실이 삭아서 재봉이 떨어진 부분이 있음.
- 시간이 흘러 나일론 특유의 변색이 나타남. 일광에 의해 약간 누렇게 변함. 필링이 있음.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1950년대 국내 나일론 산업과 의류 제조 환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물임.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폐허와 굶주림 속에서도 패션을 추구했음을 알려주는 상징물로서 문화재로 등록된 ‘군용 담요 코트’가 있음. 전쟁 후 물자가 귀해 군수용품이 일반인에게 사용되었던 실례를 보여줌.
- 검토대상 유물 이후에 제작된 낙하산 블라우스가 대구섬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박물관 개관 시에 ○○○씨에게 매입하였다고 함.

6) 등록가치의견

- 낙하산 블라우스는 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하던 양색시들의 가슴 아픈 삶을 드러내는 전쟁의 산물이며, 초창기 한국 패션과 나일론의 대유행을 증명하는 유물로써 시대사적인 가치가 있음.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전쟁 시기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던 듀폰(Dupont)사가 여성들의 스타킹 생산을 멈추고, 나일론 낙하산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여성들도 낡은 나일론 스타킹을 재활용통에 모아서 낙하산을 제작하는 데 일조함. 나일론 스타킹 원단은 낙하산지

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되었으므로 이 시기 나일론 스타킹 원단에 ‘낙하산지’라는 명칭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낙하산 블라우스’ 또는 ‘낙하산지 블라우스’라는 명칭을 제안함.

8) 참고문헌

- “갑오선풍 나이롱”, <조선일보>, 1954년 12월 23일자
- “공포(公布)될 생활개선법시행령(生活改善法施行令) 사치행위(奢侈行爲)는 의법처단(依法處斷)”, <조선일보>
- 낙하산 블라우스 및 신생활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의견서(안건번호 근대 2020-03-20)
- 홍병숙, 정미경,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산업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45년부터 1970년을 중심으로, 복식 28호, 1996.
- Beckerman, Jim. *Game Changers: Nylon, the fiber that changed America*
- MMI Textiles (2021). “RIPSTOP: A REALLY VERSATILE FABRIC”
- Dickson, Sam. 2016. *WWII parachutes made of nylon stockings pushed more women in the West to shave their legs*, the Vintage News, August, 23.
- <의상 100년 한국인의 패션> DVD(KBS, 1999년)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칭 : 낙하산블라우스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

3. 소유자 : ○○○

4. 조사자 의견('19.9.20.)

<문화재위원 ○○○>

1) 현상

- 낙하산 블라우스 : 섬유가 다소 삭아 갈변되었으며 구멍이 있어 보존 처리가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거의 투명한 나일론으로 제작된 여성용 블라우스임. 아직 한국에서 나일론을 생산하기 이전에, 낙하산에 사용되었던 나일론 천(나일론은 1935년에 세계최초로 생산되었고 제2차대전 때부터 나일론이 낙하산에 사용됨)을 재활용하여 제작했다고 하여 일명 ‘낙하산 블라우스’로 불림. ‘낙하산 블라우스’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칼라와 소매 부분에 러플 장식이 있으며(도판 2) 속살이 비치는 나일론 블라우스는 당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고 함. 본 유물은 낙하산의 나일론 천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낙하산 나일론과 같은 직물의 원단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낙하산 블라우스’의 제작자는 한국 패션계의 1세대인 최경자(유물소장자의 모친)인데, 그가 한국전쟁 동안에 대구로 피난을 가서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국제양장사”라는 맞춤양장점을 운영할 당시에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함.
- 당시에 같은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적잖이 제작했으나 현존하는 수량이 희소한 것(2점 정도)으로 추정됨. 제작자 최경자는 한국패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이 블라우스는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성을 지녔기 때문에 패션의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판단됨. 단, 디자이너 최경자가 패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의복을 전수조사하여 가치 판단을 비교 검토한 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제안함.



- 참고로, 최경자(1911-2010)는 1936년에 동경 오차노미즈 양장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함흥에 한국 최초의 여성 양장점인 “銀座屋”을 운영하였으며 1938년 함흥양재전문학원 운영함. 그 후 월남하여 명동에 국제양장사를 운영하였으며 1957년에 반도호텔에서 제1회 개인 의상 발표회를 개최함. 한국전쟁 직후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에 구제품과 군용담요 등을 이용한 의상을 디자인하였고 이후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의복을 디자인 하는 등, 패션계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었음. 1950년대부터 한국 패션계를 이끌었던 노명자(노라노)와 쌍벽을 이루는 제1세대 디자이너로 평가를 받고 있음.

3) 문헌자료

- 신혜순, 『故 최경자 패션 회고집: 삶과 패션 1세기 · 패션의 선구자』, 한국현대 의상박물관, 2011.
- 이상례, 「최경자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최경자, 『최경자와 함께한 패션 70년』,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2008.

4) 기 타

- 의복 분야의 기 등록문화재는 대체로 착용자 중심이었는데, 이 블라우스는 착용자는 알 수 없지만, 디자이너와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낙하산 블라우스’는 한국전쟁 직후에 일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한 의상으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점이나 디자인에서 시대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소장자(○○○)의 모친인 최경자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을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으며 다소 훼손되었으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최경자는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1세대 중에서 대표자로, 한국 패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소장자는 현재 최경자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의복을 여러 점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품을 전수 조사 후에 선별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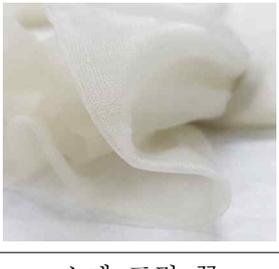
1) 현상

- 2점 모두 상태는 양호하며 낙하산블라우스는 약간의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나 소재 자체는 낙하산지가 아님

2) 내용 및 특징

- 낙하산 블라우스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했던 시기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겨진 낙하산 천을 이용하여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실지 당시의 낙하산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시엔 실지 낙하산으로 만든 블라우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등록 신청한 본 건은 낙하산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는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낙하산 블라우스라고 통칭되어 왔던 이유는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나일론을 수입하고 점차 국내에서도 나일론 생산이 가능해지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일명 낙하산을 만들었던 천은 아니지만 당시 이와 같은 블라우스는 나일론으로 만들었다하여 낙하산 블라우스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당시 의복 소재로 주로 사용했던 면제품에 비해 나일론은 가볍고 얇고 비치며 신축성이 있어 일부 직업군이나 계층에서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형태적 특징
 - 겹, 안감 열은 유백색(아이보리색) 나일론 2겹으로 만든 54cm길이의 블라우스임
 - V넥 형태(깊이 18cm)의 목둘레 및 소매 끝에 각각 2겹으로 된 5.5cm 프릴 달림
 - 앞 중심에 4개의 단추로 여미고 단추 구멍은 버튼홀스티치로 처리함
 - 바스트 다트(다트길이 13cm)처리를 하여 피트성이 있음

			
앞면	앞목선 프릴장식	소매 끝 프릴장식	앞 중심 단추
			
뒷면	목부분 프릴장식	소매 프릴 끝	단추 구멍
			
밑단부분	뒷목부분 프릴장식	소매프릴 안쪽	단추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50-60년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양장 1세대 디자이너의 작품임이 확실하고 근대 생활사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음.
- 다만 <낙하산블라우스>의 경우 <나일론 블라우스>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 등록문화재의 등록현황을 참고할 때 개별 품목에 대한 지정보다는 우리나라 1세대 양장 디자이너 최경자라는 인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녀가 제작한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경자의 000외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화재전문위원 ○○○>

1) 현상

- 낙하산 블라우스 : 블라우스는 소색(素色)의 나일론 2겹으로 만들었음. 나일론 자체가 매우 가볍고 투명하여 2겹으로 해도 반투명함. 칼라(collar)와 소매 끝에는 러플(ruffle)이 달려있음. 앞에서 열리며 단추 4개로 여미는 형태임. 옷감 자체가 얇아 비치는 형태로 착용 시에는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할 것임. 현재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얇고 투명한 나일론 2겹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반투명한 옷임. 칼라와 소매 끝에 러플이 달려있음. 단추 4개로 앞에서 여밈.



<낙하산지 블라우스 도식화 앞>



<낙하산지 블라우스 도식화 뒤>



<낙하산지 블라우스 전면>



<낙하산지 블라우스 깃 러플>



<낙하산지 블라우스 소매 러플 안>



<낙하산지 블라우스 소매 러플 겉>



<낙하산지 블라우스 앞 여밈 도련>



<낙하산지 블라우스 러플과 단추 세부>

3) 문헌자료

- 『FASHION 현대패션 110년(1900~2010)』, 교문사, 2012년, p.236.
- “ ‘곱창’칼라와 낙하산지 블라우스

1950년 전쟁의 부산물인 낙하산은 물자가 귀했던 우리에게 옷감으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나일론과 합성섬유가 등장하면서 반투명한 나일론으로 된 낙하산 원단을 본떠 만든 얇은 소재로 된 여성들의 블라우스가 인기를 독차지했는데, 비치는 옷감의 특성 때문에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래 오빠나 아버지가 입는 백색 면 내의를 속에 받쳐 입기도 했다. 반투명으로 속살이 비치고, 땀이 나거나 비를 맞으면 살갓에 들러붙는 등 단점이 있었지만, 1950년대의 멋쟁이들이 블라우스로 즐겨 입었다. 당시 양장점에서는 낙하산과 같은 소재로 블라우스를 만드는 재봉틀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고 할 정도로 대유행 패션이었다. 몸에 꼭 맞는 타이트스커트에 낙하산지 블라우스, 그리고 낙하산지 블라우스의 디자인 포인트인 주름을 넉넉히 잡아넣은 러플 칼라가 유행이었다.”

4) 기 타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낙하산을 재활용하여, 얇은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에 ‘낙하산 블라우스’의 명칭이 부여되었음. 얇게 비치는 반투명한 옷감의 특이함 때문에 특수계층에 인기가 많았다고 함. 현재 소장자인 한국현대의상 박물관 관장 ○○○의 모친인 한국 1세대 디자이너였던 최경자(1911~2010)씨가 1953년 대구에 피난갔을 때,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국제양장사’라는 양장점을 운영하였다고 함. 1954년 원단장사에게 직물을 주문하면 2주경 후에 원단을 배달하였다고 함. 당시 원단은 낙하산에 사용되는 직물을 모방하여 대구에서 제직하여 ‘낙하산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함. 이 직물로 만든 블라우스가 ‘낙하산 블라우스’임. ○○○관장의 증언에 의하면, “최경자씨가 디자인하였고 양장점에서 몇 사람이 밤새워 만들어, 보따리 장사에 의해 유통되었다고 함. 이 블라우스의 주 고객은 대학생과 양색시들이었다고 함. 대학생은 유행을 앞서가는 패션리더로서 착용하였다고 하면, 양색시들은 대학생의 유행을 모방하며, 한편으로는 ‘낙하산블라우스’의 반투명한 재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반투명한 옷감이기 때문에, 속에는 남자용 런닝 셔츠를 받쳐 입기도 했다”고 함. 여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입혀졌는가? 에 대한 문제는 몇 사람에게 문의했지만, 기억이 없다고 함.
- 명칭에 관한 문제: ‘낙하산 블라우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낙하산지 옷감으로 만든 블라우스’ 또는 ‘낙하산지 모방 블라우스’가 적합할 것이나, 현재 복식사분야에서는 ‘낙하산 블라우스’라 알려져 있음. 명칭은 ‘낙하산지 블라우스’로 변경할 것을 권함.
- 현재 이 블라우스는 2점이 남아있음. 1점은 지금 문화재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현대의상박물관 소장이며, 1점은 대구 DTC 섬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원래는 2점 모두 현대의상박물관 소장품이었음.
- 이 ‘낙하산지 블라우스’의 가치는, 일부 특수 계층이었지만 1950년대 당시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과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자 당시의 신소재이었던 낙하산 직물과 유사한 직물을 생산하여 디자인을 하여 블라우스로 유통하였다는 것에 있음. 이 블라우스 1점에서 우리는 시대상과 복식 착용자의 계층 및 복식사회심리를 엿볼 수 있음. 이 블라우스가 대중적이지는 않음은 확실하나, 특수한 상황에서 195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라 생각함.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문화와 생활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블라우스라고 생각함.
- 1950년대 당시 제사(製絲)·제직(製織) 기술을 보여줌.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반영하는 유물임.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보존정비 : 현재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단, 보존처리는 옷감을 제작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할 것임.
- 활용 : 1950년대 전쟁이후, 넉넉하지 않은 물자사정에서 낙하산직물을 재활용했다는 점과 낙하산 직물과 유사한 신소재직물을 한국기술로 생산하였다는 것이 흥미로움. 패션은 사회현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척도임. 1950년대의 시대상과 직물생산과 패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활용가능함.유입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통일로 동쪽 블록에서 접근하는 동선까지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1960년대 신생활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개인 소장 「1960년대 신생활복」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9.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1960년대 신생활복」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1960년대 신생활복	1건 2점	○ 길이 100 ○ 가슴둘레 86 ○ 어깨너비 44 ○ 허리둘레 72 ○ 고름길이 88	1960년대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27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7.18.)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0.3.20.) :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보류
(디자이너 최경자 디자인 및 제작 의복의 전수조사 후 재검토)
* 조사보고서는 <붙임2> 참조
- ('22.6.9.) : 문화재 등록 검토 재조사 실시
- ('22.8.31.) : 문화재 등록 검토회의
- ('22.9.27.) :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1960년대 신생활복」으로 추진

(5) 등록예고 : '22.10.17.~11.16.(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1961년 국민의 의복생활 개선, 재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생활복장’을 제정, 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전개한 국민재건운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유물임. 정부가 제시한 디자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경자 디자이너가 재해석해서 디자인한 신생활복으로서 당시 생활복식사 및 한복의 현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물로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22.6.9.)

- 신생활복은 정부가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여 권장하던 복장임. 다만, 등록 신청된 유물은 최경자가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변형하여 보다 간편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1960년대 초반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2.6.9.)

- 본 유물은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1961년 10월부터 전국의 공무원과 정부직할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착용하도록 한 신생활복의 형태를 차용하여 1963년에 최경자 디자이너가 제작 발표한 신생활복 혹은 간소복 작품임,
- 재건국민운동의 신생활복 디자인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생활 한복을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였음. 본 유물은 디자이너 최경자의 작품이 확실하다는 점, 1960년대 의생활의 간소화를 강조하는 상황이 반영된 점, 문건에서 제안한 치마 저고리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시한 점 등을 통해 한복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시도로서의 의미도 지님.
-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된 모직인 골덴텍스의 초기 조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22.6.9.)

- 국내에서 생산된 순모 양복지를 사용해 신생활복으로 제작된 한복 스타일 원피스로, 1963년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서울지부 위원이었던 최경자 여사가 조선일보 후원으로 진행한 복장발표회에서 미스코리아 서범주가 착용하여 출품한 작품임. 5·16 군사정변 직후 국민의 재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 당시의 시대상 반영함에 따라 문화재로 등록을 제안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신생활복
2. 소 유 자 : ○○○
3.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27
4. 제작년대 : 1960년대
5. 재 질 : 순모
6. 수 량 : 1점
7. 규격(cm) : 길이 100, 가슴둘레 86, 어깨너비 44, 허리둘레 72, 고름길이 88
8. 조사자 의견('22.6.9.)

<문화재위원 ○○○>

1) 개요

- '신생활복'은 1960년대 초에 정부에서 제시한 개량 한복의 일종임. 최경자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다소 변경하여 착용하기 편리하고 우아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발전시켰음.
- 치마와 저고리를 같은 청색 울(wool) 원단(식서 부분에 ALL WOOL "GOLDENTEX" 라는 글자가 있음)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저고리 부분에만 공단 안감을 두었고 치마 부분에는 안감을 두지 않았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정부가 5·16 이후 국민 재건의식을 고취하고 사치스러운 옷차림을 없애기 위해 간소복을 권장하던 시기에, 여성 공무원용으로 디자인한 한복 신생활복임. 전통 한복을 간편하게 디자인하여 일상복으로 변형시킨 것인데, 최경자의 독자적인 창작성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 안에 최경자가 보다 간편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저고리와 치마를 분리하지 않고 원피스로 만들고 앞섶 여밈을 3개의 싸개단추로 처리하였으며 옷고름을 달면서 쉽게 탈부착하도록 후크단추를 단 것은 최경자의 아이디어로 판단됨. 다만, 정부에서는 순모직을 쓰지 말고 모직 70%에 면직 30% 이하의 혼방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본 신생활복은 100% 순모로 제작되어 있음.
- 신생활복은 국민의 사치한 생활을 차단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안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의복으로, 당시의 정치 사회적 시대상을 읽을 수 있음. 100% 모직을 원단으로 사용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 어긋나지만, 당시 한국의 원단 생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임. 참고로, (주)제일모직은 1954년 9월 15일에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로 창립하였고 1955년 소모방공장을 준공 후 1956년 국산 양복지 '골덴텍스'를 생산했고, 이후 방적/직포/방모공장 등을 잇따라 세워 기틀을 다진 뒤, 1961년 창사 최초로 복지를 수출한 후 1968년 경북 경산 공장을 세움.(네이버 지식백과)

<p>앞면</p>	<p>앞면(옷고름 제외)</p>
	
<p>뒷면</p>	<p>원단 원료 및 상표</p>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장자 자택에서 보관중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1960년대 초에 정부에서 신생활복을 공무원들이 착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전 국민에 확산시키고자 했던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원단 제조기술의 발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다수의 의복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 국가등록문화재와 달리 실제 착용자와는 무관하게 국가 정책을 직접 반영하고 있고, 의복 원단은 당대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7) 등록 가치 의견

- 1960년대 초반에 정부가 국가재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생활 복장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보급하고자 했는데, 공무원의 출신수범의 차원에서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을 제안했음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음. 본 검토대상 신생활복은 국가기록원의 문건(‘공무원 신생활복 착용’) 디자인과 대체로 일치하며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유물로,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최경자 개인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1960년대 공무원 신생활복’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9)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 문건(제출자: 내각사무처장, 1961년 9월)
- 신혜순, 『삶과 패션 1세기·패션의 선구자: 故 최경자 패션 회고집』, 한국현대의 박물관, 2011.
- 최경자, 『최경자와 함께 한 패션 70년』 재단법인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1999.

<문화재전문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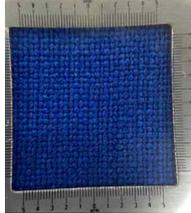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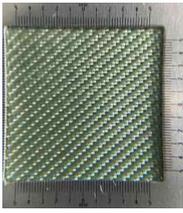
1) 개요

- 본 유물은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1961년 10월부터 전국의 전체공무원과 정부직할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착용하도록 한 신생활복의 형태를 차용하여 최경자 디자이너가 1963년에 제작 발표한 작품임.
- 제작자는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인 최경자(1911~2010)이고, 현재 ○○○이 소장하고 있음.
- 전통 한복의 치마와 저고리를 결합하여 원피스 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1960년대 한복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량하여 착용하고자 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음.
- 사용한 재료는 골덴텍스로, 제일모직이 1956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국산 모직임.

- 역사적, 사회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한복을 활용한 디자인의 변화 파악, 1960년대를 전후한 신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물로 볼 수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의 어깨경사를 넣고, 진동을 뒀으며, 앞길에 다트를 넣은 서양 바디스 (Bodice) 패턴으로 만든 저고리에 앞중심에 트임을 넣어 통치마로 만든 치마를 이어 원피스로 제작함. 전반적인 형태는 서양복 패턴을 적용하였으나 전체 디자인은 동그레깃과 동정, 봉어배래를 닮은 소매, 미리 제작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 고름 등의 요소로 인해 한복처럼 보이게 하였음.
- 저고리는 전통 한복의 여밈과 같이 우임(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를 덮어서 오른쪽으로 여며지는 방식)으로 여미게 구성되었고, 오른쪽 길에 같은 옷감으로 만든 싸개단추 3개를 달고 왼쪽 길의 앞 중심선에 같은 옷감으로 만든 고리 3개를 부착하여 여미도록 함.
- 치마주름은 한복 치마의 경우는 겹자락에서 안자락 방향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본 유물은 앞중심선, 뒷중심선을 기준으로 맞추름으로 잡았고 앞중심에 트임을 넣어 스냅 단추를 활용하여 여미도록 함.
- 저고리에만 연한 색의 안감이 들어가 있고, 치마에는 안감이 없음. 저고리 안쪽에는 안감과 같은 옷감으로 만든 속고름 한 쌍이 달려 있음.
- 겹감은 진한 푸른색의 모직으로, 직물을 확대해보면 평직으로 직조된 순모이고 안감은 능직으로 짠 레이온으로 보임.

		
앞면	앞면 오른쪽 길	앞면 오른쪽길, 단추와 고리 모양
		
앞길 안단 연결 부분	치마 앞 여밈 스냅 단추	탈부착식 고름과 뒷면 후크, 몸판의 실고리 모양
		
치마 앞 중심선 시접의 ALL WOOL "GOLDENTEX"	겹감 직물 확대	안감 직물 확대

- 직물을 잘 때 양쪽 가장자리의 식서 부분을 셀비지(selvage)라고 하는데 본 유물의 셀비지 부분은 통으로 제작된 치마감의 앞 중심선 안쪽 가름술에 남아 있음. 셀비지에 적힌 글자는 “ALL WOOL GOLDENTEX”로, 제일모직이 국내 최초로 생산한 국산 양복 지임.
- 제일모직은 1954년 대구에 설립한 공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1956년에 본격적인 모사(毛絲) 생산에 돌입하여 골덴텍스를 출하함으로써 당시 밀수품으로 크게 유행하던 비싼 마카오 양복지가 아닌 국산 양복지 시대를 열었음.
- 모직의 양복지로 제작된 두루마기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유물은 한복에 적용되지 않았던 모직 양복지로 제작된 여자의 한복형 원피스라는 점 또한 의미가 있음.
- 본 유물의 셀비지 부분은 1958년 골덴텍스 양복지 광고에도 보이는 형태임
-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는 공무원 신생활복 관련 문건(이하 문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음



장미표 모사, 골덴텍스 양복지 광고 (조선일보 1958. 11. 15)

		<p>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모든 직원은 별의 요청에 의해서 신생활복을 착용한다. 단, 특장복을 착용하고 있는 공무원 및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p> <p>2. 제안이유 5.1.6 군사행렬시후 국민의 신생활 복제를 확립하고 개인위생을 고취하고자 사치한 개량복을 금지하는 동시에 신생활복을 착용할 때의 국민에게 보람을 시키려는 제헌국헌준용본부의 권장에 응하여야 함.</p> <p>3. 참고 01) 제헌국헌준용본부부회 94.9.15 인과 9.19 결재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효 있음 02) 국가재건최고회의제2회도 이의 결정일자 있음</p>	<p>신생활복 착용 요령</p> <p>1. 제성의 취지와 착용방법의 목적 5.1.6로 시행일 이후 국민의 신생활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무 생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국민에게 개인위생을 고취하고 사치한 개량복을 금지하고 국민에게 신생활복을 착용할 때의 국민에게 보람을 시키려는 제헌국헌준용본부의 권장에 응하여야 함.</p> <p>2. 착용 시점 매년 10월 1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9.9연도의 뒤하여 준비기간(준용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하고, 10월 5일부터 당해 착용도록 같다.</p>
<p>전체 공문의 표지</p>	<p>별지의 표지</p>	<p>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p>	<p>신생활복 착용 요령</p>
<p>3. 복지와 식 신생활복은 신생활 경주 순모직 재질을 쓰지않도록 함. 하도 보의 70%에 면의 30%이하의 복지를 선택할것이며 색깔은 자꾸로 한다.</p> <p>4. 양 띠 01) 평평한 별의 시선 및 재단 도표와 같다.</p> <p>5. 의례시를 제외한 근무시안내에 태극이 착용 및 화려한 복식의 착용을 금지한다.</p>	<p>신생활 한복 (전면)</p>	<p>개량한복</p>	<p>부록10</p>
<p>신생활복 착용 요령</p>	<p>신생활 한복(전면)</p>	<p>개량한복</p>	<p>부록10</p>

○ 문건의 내용

- 내각사무처 내각사무처장이 단기 4294년(1961) 9월 22일 제20764호로 각회의장에게 공무원과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의 신생활복 착용을 심의하여 가능하면 조치해달라는 공문임.

- 신생활복의 착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정무관리 기업체의 모든 직원이고, 다만 특정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공무원 및 노무직 종사자는 예외로 하였음.
- 제안이유는 5.16 군사혁명 이후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 하자는 뜻에서 신생활복장을 제정하여 널리 국민에게 보급시키려는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권장에 호응하는 것임.
- 참고를 보면 본 공문은 9월 15일과 9월 19일에 발송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도 이미 의결되었음.

○ 신생활복 착용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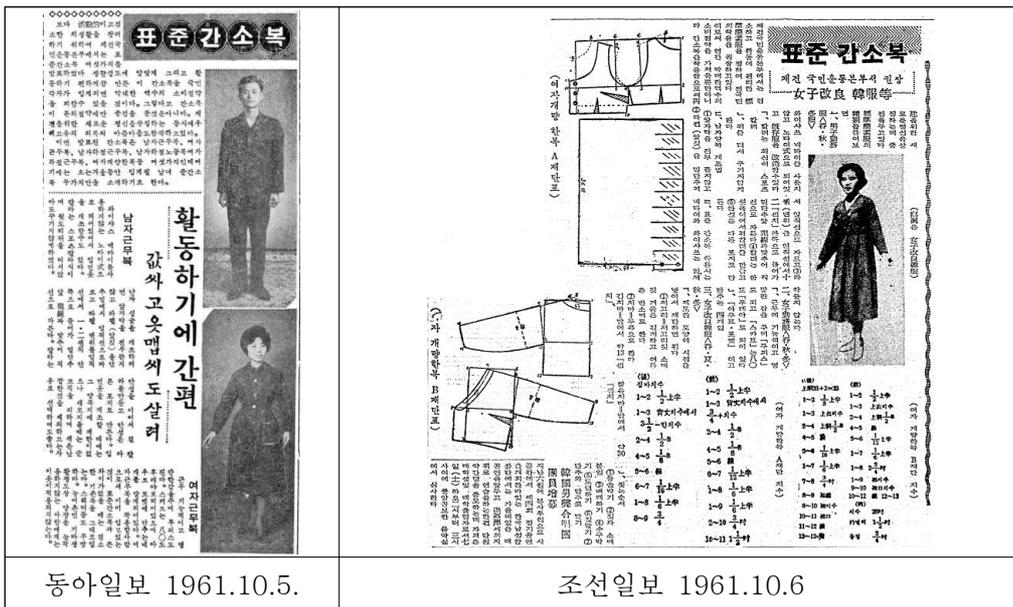
- 제정의 취지와 착용 운동의 목적 : 5.16 군사혁명 이후 국민에게 재건의식을 고취하고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 하는 뜻에서 신생활복을 제정한 것으로 국민에게 이를 널리 보급시킴.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전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국가 관리 기업체 종사원에게 착용하도록 함.
- 착용 시일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로 함. 1961년도에 한하여 준비 기간(훈용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하고 10월 15일부터 일체 착용함.
- 복지와 색 : 새로 제작할 경우 순모직 제품을 쓰지 않고 모직 70%, 면직 30% 이하의 복지를 선택하고, 색깔은 자유롭게 함.
- 형태 : 형태는 별지 사진 및 재당 도표와 같음.
- 의례를 제외한 근무시간내 넥타이 착용 및 화려한 복장의 착용을 금함.

○ 개량 한복형과 유사함. 문건에 제시된 명칭도 앞에는 신생활 한복, 뒤에는 개량 한복으로 적혀 있음.

○ 문건의 가장 마지막 장인 부록 10의 패턴을 볼 때 조끼허리가 달린 통치마 위에 저고리를 착용하는 스타일로 파악됨. 즉 정부가 발표한 신생활복은 투피스인테 본 유물은 저고리에 치마가 달린 원피스형이기 때문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 문건의 신생활 한복의 저고리는 단추로만 여미고 고름은 없음.

○ 신생활복이 시행된 시기의 기사는 아래와 같음.



○ 조선일보 1961년 10월 6일자 '표준 간소복' 기사에서는 특별히 여자의 개량한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 이 중 세 번째 여자 개량한복<春·夏·秋·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제도한 모양에 시접을 넣어서 재단하면 됨
 - ① 저고리: 저고리깃 소매 - 겨울은 길게 하고 여름은 반소매로 함
 - ② 치마: 두 쪽으로 한다 - 긴치마 발에서 약 13센치, 짧은 치마 발에서 약 30센치
 - b. 짓는 순서
 - ① 등솔박기 ② 깃과 소매 붙임 ③ 배래하기 ④ 수구박기 ⑤ 도련하기 ⑥ 깃달기 ⑦ 단추와 단추코 만들기
- 저고리인 B 패턴에서 소매부분의 점선을 따라 잘라 여름에는 소매를 짧게 만들고, 이겨울에는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자 개량 한복은 A와 B를 함께 착용하여 한 벌 되는 형식임.
- 근대 이후 공무원의 복장을 검소하게 하여 의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시행된 ‘국민복령’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신생활운동의 의복 간소화 정책에도 위와 같이 나타났음.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종업원들이 착용할 표준간소복이 공포되었는데 당시 이러한 복장에 대한 명칭이 위의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생활복, 국민복, 표준간소복, 간소복 등으로 혼용되고 있었음.
- 남자의 경우는 양복 형태의 근무복만 제시한 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양장 형태의 근무복과 함께 신생활한복(혹은 개량한복)이 제시되어 있었고 본 유물은 이 시기의 신생활한복과 유사함.
- 본 유물을 제작한 최경자 디자이너는 우리나라 디자이너 1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1961년에는 신생활 재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량 한복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이상례, 2015, p. 13).
- 본 유물은 1963년 최경자 디자이너가 제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모델 서범주가 착용한 사진이 남아 있음(최경자, 제75화 패션 50년(25), 중앙일보 1981년 10월 22일자 11면). 이 구술에 의하면 ‘여성들의 복장은 각자 개성이나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한가지로 통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 남성복의 경우처럼 단일 디자인이나 색깔이 강요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함. 따라서 여성들의 신생활복으로는 문건 이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이 제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최경자 디자이너가 1963년에 디자인한 유사한 한복형 원피스>

최경자 디자이너 한복형 원피스 작품	멋있고, 값싼 간소복(1963년) 영상 캡처
	

- 위 사진은 최경자 디자이너가 1981년에 출간한 『自傳年鑑 패션 50년』의 1960년대 작품들과 함께 들어 있는 사진으로,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옷감을 사용하여 본 유물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 것임. 최경자 디자이너의 설명에 의하면 ‘치마저고리를 이어 원피스로 시도한 작품’이라고 하므로 본 유물과 비슷한 원피스 형태의 작품을 여러 점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본 유물과 다른 점으로는 옷감 이외에도 소매 중심부분에 긴 트임을 주어 팔의 노출이 있음.
- 한복형 원피스는 ‘치마 한감으로 만들 수 있는 치마저고리가 붙은 원피스,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들어있는 1963년에 제작된 KTV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음. 한복형 원피스를 착용한 모델은 같은 인물임. 즉 1963년에 최경자 디자이너는 적어도 두 점 이상의 한복형 원피스 디자인을 발표하여 신문과 공영방송을 통해 홍보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보면,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신생활운동을 전개하는 국내의 분위기에서 당대에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였던 최경자 역시 신생활복(혹은 간소복)을 제안하기 위해 본 유물과 그와 유사한 디자인 등을 1963년에 제작 발표하였음.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1961년에 제시한 신생활복은 먼저 공무원등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1963년 최경자의 작품은 ‘공무원 신생활복’의 범위를 넘어 일반인을 위한 신생활복 혹은 간소복이었다고 생각됨. 최경자 디자이너는 문건에 있는 신생활한복을 창의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원피스 형태로 제작하였음.
- 본 유물은 최경자의 작품이 확실하다는 점, 1960년대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신생활복’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치마 저고리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한복의 현대화 과정이라는 의의도 지님. 최경자는 ‘한복형 원피스’로 명명하였지만 신한복과 같이 한복의 범위가 확대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원피스형 한복’이라고 해도 무방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유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안감 쪽 겨드랑이 부분에 착용 흔적이 있어 노후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존처리가 필요함.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신생활복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1960년대 개량 한복의 형태와 당시의 직물을 이해 하는데 활용 가능함.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유명한 1세대 디자이너 노라노의 작품인 아리랑 드레스가 있음. 미스코리아 오현주가 1959년 제8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할 때 착용한 드레스임. 한복의 치마저고리 유형을 서양복 드레스화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형태의 한복 디자인에 영감을 주어왔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음.

6)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1961년 10월부터 전국의 전체 공무원과 정부 직할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착용하도록 한 신생활복의 형태를 차용하여 1963년에 최경자 디자이너가 제작발표한 신생활복 혹은 간소복 작품임.
- 1961년 공무원 신생활복 관련 문건과 비교하면 첫째, 투피스 형태의 신생활 한복 규정과는 달리 원피스로 제작된 점, 둘째, 울 7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는 달리

을 100%로 제작된 점, 셋째, 두 폭으로 제작하라고 한 치마폭 규정과는 달리 골덴텍스 광폭을 사용하여 제작된 점, 탈부착식 고름을 단 점 등이 특징적임.

-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신생활복 디자인은 아니지만 문건의 신생활복(혹은 개량한복)을 디자이너의 창의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였음. 본 유물은 디자이너 최경자의 작품이 확실하다는 점, 1960년대 의생활의 간소화를 강조하는 상황이 반영된 점, 문건에서 제안한 치마 저고리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시한 점 등을 통해 한복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님.
-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된 모직인 골덴텍스의 초기 조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향후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공무원 신생활복 유물이나 다른 디자이너의 신생활복 유물이 보고될 경우를 대비하여 ‘디자이너 최경자의 신생활복’ 혹은 ‘최경자 디자이너의 신생활복’으로 제안함.

8)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소장 공무원 신생활복 문건(관리번호 BA0085224)(<http://theme.archives.go.kr>)
- 국립민속박물관·대구섬유박물관 편, 『대구섬유, 우리 삶을 바꾸다』, 2021.
- 신혜순, 『故 최경자 패션 회고집』, 한국현대의상박물관, 2011.
- 이민정, 복식과 이데올로기-일제강점기와 박정희정권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상례, 최경자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최경자, 崔敬子 『自傳年鑑 패션 50년』, 고려서적주식회사, 1981
- 동아일보 1961년 9월 16일 기사, 1961년 10월 5일 기사.
- 조선일보 1961년 9월 16일 기사, 1961년 10월 6일 기사.
- 마산일보 1961년 10월 1일 기사, 1961년 10월 6일 기사.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치한 옷차림에 집안살림 무너진다>, ‘멋있고 값싼 간소복(1963)’ 영상(<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simpleClothes.do>)

<○○○○○ ○○ ○○○>

1) 개요

- 국내에서 생산된 순모 양복지(ALL WOOL “GOLDENTEX”, 체일모직)를 사용해 신생활복으로 제작된 한복 스타일 원피스



신생활복

장식 고름
(좌: 고름, 우: 뒷면 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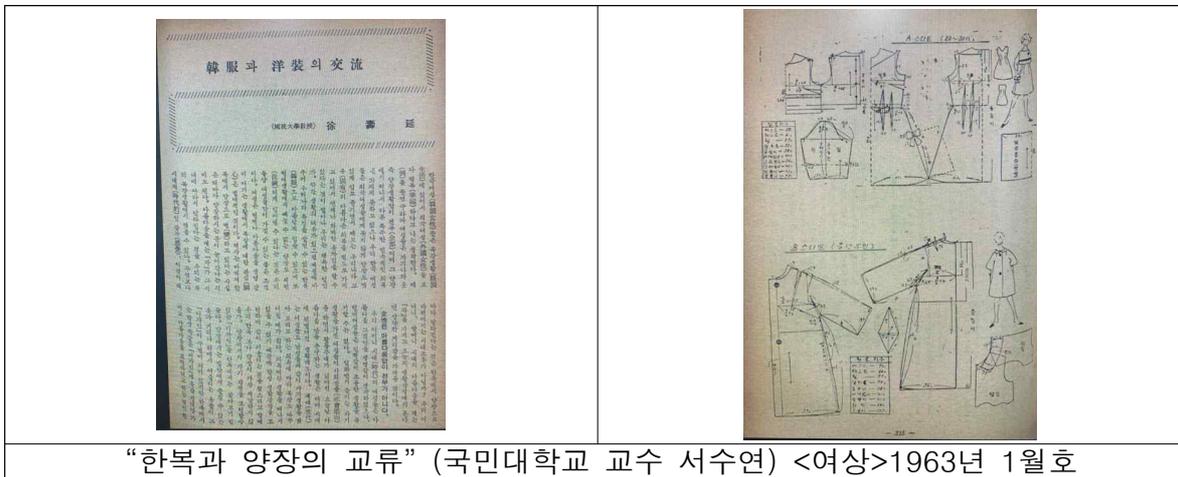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한복형 깃이 달리고, 고름을 리본같이 표현하여 탈착 가능하게 만든 상의와 박스 플리츠로 맞추름 형태로 플리츠를 잡은 무릎 길이의 하의 치마가 허리에서 붙은 형태의 원피스로, 세련된 당시의 한복형 원피스 디자인을 보여줌.



신생활복 도식화

- 1963년 당시 국제복장학원 원장이며, 대한복식디자이너 협회 회장인 최경자 여사가 조선일보 후원으로 진행한 복장발표회에 출품한 작품.
- 복장발표회는 1963년 3월 30일 오후 1시 반, 반도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열림. 이 날 최경자 여사의 발표회의 주제는 “옷을 멋지게 입는 비결”과 “긴 한복 치마의 개량”이었음.(동아일보 1963년 3월 26일자 7면, “발표회”)
- 총 36점의 의상이 발표되었고, 1963년 미스코리아 ‘진’ 서범주, ‘미’ 정태자, 1958년 준미스코리아 김미자와 배우 김의향을 비롯한 8명의 모델에게 입혀짐. 이 중에서도 관객석의 갈채를 모은 ‘모드’는 개량 한복류였음. 한복의 우아한 선의 흐름을 강조한 이들 이브닝드레스 외에 수츠, 원피스, 투피스 등의 각종 모드가 발표됨. 이 쇼가 끝나자 국제복장학원과 자매결연을 한 미국 뉴욕의 시립복장학원 FIT을 소개하는 기록영화의 상영도 이루어짐(“개량한복류에 갈채”, 경향신문 1963년 4월 1일자, 5면).
- 한복을 양장과 어떻게 절충해서 개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여원>, <여상> 등 잡지에서도 계속해서 기사로 실림.



“한복과 양장의 교류” (국민대학교 교수 서수연) <여상>1963년 1월호

- 모델 서범주는 미스코리아 ‘진’으로 1962년 6월 22일에 당선됨. 당시 서범주는 서울대 불문과 59학번으로 ‘서범주’라는 이름은 만인에게 알려져 있었음. (<경향신문> 1962년 12월 12일자, “서울대학생 공통의 애인”; <경향신문> 1985년 10월 18일자, “명동시대의 서막”(임태순 송옥양장점 수석디자이너의 회고))
- 아래는 서범주가 본 유물을 착용한 사진으로 장식 고름은 땀 상태임.



신생활복 원피스를 착용한 모델 서범주
최경자, 제75화 패션 50년 (25), 중앙일보 1981.10.22. 11면.

-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간소화된 옷, 신생활복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견인은 1962년, 1963년 제작된 <대한 뉴스> 제310호, 제405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디자이너들도 호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생활복을 디자인함. 당시 대한복식디자이너 협회 회장이자 ‘재건국민운동본부 서울지부 위원’ 인 최경자도 신생활복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보임.



정부의 신생활복을 권장 캠페인
(조선일보 1961. 6. 25.)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
(1961. 9. 30.)

- 소재 골덴텍스는 국산 양복지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꿈과 열의로 1956년 탄생함. 1950년대 '비싸도 외제가 좋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시절, 오직 품질만으로 우리 땅에서 외제 양복지를 몰아내고 국민 의복생활에 새바람을 불어 넣음. 국산 골덴텍스는 고급 옷감의 기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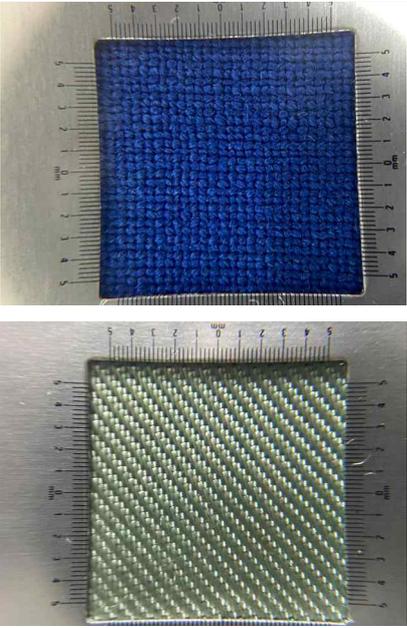
삼성물산 패션부문 직물사업 연혁	
1954년 9월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 설립
1955년 12월	국내 첫 모직공장(대구) 설립
1956년 6월	양복지 '골덴텍스' 개발
1960년 3월	첫 옷감 수출(싱가포르)
1975년 5월	제일모직 상장
1983년 8월	남성복 갤럭시 첫 제품 출하
1989년 2월	빈폴 출시
1996년	경북 구미로 공장 통합 이전
2013년 9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삼성에버랜드에 양도
2014년 7월	삼성SDI, 제일모직 흡수합병 삼성에버랜드, 사명 제일모직으로 변경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 출범 제일모직 사명 61년 만에 역사속으로
2022년 11월	경북 구미사업장 철수

그래픽 박애수기자 hspark@newsway.co.kr

제일모직 연혁



골덴텍스 광고
(동아일보 1963.3.13. 5면)

	
<p>골덴텍스 식서 그대로 사용한 모습</p>	<p>겉감과 안감 원단 조직 확대</p>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유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겨드랑이 부분에 땀과 관련하여 착용 흔적이 있음. 보존처리 필요함.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1960년대 초반 신생활복 간소화 운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당대 디자이너들이 호응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신생활복을 개발하고 제안했다는 데에 대한 실질적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함.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모직물 양복의 문화재 등록 사례로 ‘독립운동가 유림의 양복’이 있음. 1950년 부산에서 설립된 동양실업(현 태광산업)이 1958년에 만든 첫 자체 양복지 브랜드로 제작된 양복임.
- 신청된 본 유물도 양복지 골덴텍스로 제작된 신생활복 원피스임.

6) 등록가치의견

- 신생활복은 1960년대 정부가 주도한 신생활복 간소화 운동의 일환으로, 당대 최고 디자이너인 최경자가 제작하고 1963년 미스코리아 서범주가 착용하여 발표한 의복임. 5·16 군사정변 직후 국민의 재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유물로써 당시의 시대상 반영함에 따라 문화재로 등록을 제안함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신생활복’이 적합함. 다만, 정부 주도의 간소복이 아니라 1963년 최경자가 디자인 하여 발표한 점을 부각 시켜 ‘최경자의 신생활복’으로 제안함.

8) 참고문헌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_사치한 옷차림에 집안 살림 무너진다: 간소복, 국가기록원

- 미스코리아 60년 역사 한눈에 본다, 2016.7.7. 한국일보
- 김수진, 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전통과 근대의 젠더정치 - 해방 이후~1960년대 초반으로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7(2), 2007.
- 박지연, 한국 패션모델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상례, 최경자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5.
- 이민정,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기의 이데올로기와 복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5), 2014.
- 박신미,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최경자와 노라노 비교 고찰 -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디자인 특성 및 행보를 중심으로, 복식 70(1), 80-103.
- 박신미,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고찰 - 1950년대에 활동한 명동양장점 디자이너들의 행보와 작품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 70(2), 73-97.
- 박신미,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최경자 고찰 - 매체분석을 통해 밝혀진 1970년대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복식 69(3), 119-140.
- 천진영, 이병철의 골덴텍스 역사 속으로 ... 삼성, 영욕의 직물사업 '눈물' 철수, <뉴스웨이> 2022년 3월 13일자.
- 최경자, 『최경자 자전연감 패션 50년』, 의상사, 1981.
- 대한뉴스 제 310호_여성들의 복장 개량 <https://youtu.be/1Fufqfg3ES4>
- 대한뉴스 제 405호_멋있고 값싼 간소복 <https://youtu.be/OfdAg9bNOY4>
- 신생활복전시 <http://theme.archives.go.kr>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신생활복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

3. 소 유 자 : ○○○

4. 조사자 의견('19.9.20.)

<문화재위원 ○○○>

1) 현상 :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전통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를 결합하여 원피스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음. 일종의 ‘개량 한복’을 더 간편하게 원피스 형식으로 디자인한 신생활복임. 상부는 전통 한복 저고리처럼 동정 달린 깃과 둥근 배래형 소매로 되어 있으며 옷고름은 혹크를 달아서 탈부착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치마는 무릎 부분까지 내려온 통치마 형식임. 앞 중심 쪽으로 좌우에 주름을 넣었고 앞 중심에는 스냅을 달았음.(도판 3) 치마와 저고리를 같은 청색 울(wool) 원단(식서 부분에 “GOLDENTEX ALL WOOL”이라는 글자가 있음)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상단(저고리) 부분에만 공단 안감이 처리되어 있고 하단(치마) 부분은 안감이 없음.
- 본 원피스는 1960년대 초에 정부에서 국민 간소복을 입도록 권장하던 시기에 최경자가 디자인하여 제작하였음. 간소한 의생활을 추구하던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지만, 이 원피스는 원단이 울 100%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중적으로 파급된 생활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원피스의 원단인 GOLDENTEX는 제일모직이 1956년에 최초로 생산한 직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당시 섬유산업 발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최경자(1911-2010)는 1936년에 동경 오차노미즈 양장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함흥에 한국 최초의 여성 양장점인 “銀座屋”을 운영하였으며 1938년 함흥양재전문학원 운영함. 그 후 월남하여 명동에 국제양장사를 운영 하였으며 1957년에 반도호텔에서 제1회 개인 의상 발표회를 개최함. 한국전쟁 직후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에 구제품과 군용담요 등을 이용한 의상을 디자인하였고 이후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의복을 디자인 하는 등, 패션계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었음. 1950년대부터 한국 패션계를 이끌었던 노명자(노라노)와 쌍벽을 이루는 제1세대 디자이너로 평가를 받고 있음.



3) 문헌자료

- 최경자, 『최경자와 함께한 패션 70년』,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2008.

4) 기 타

- 소장자(○○○)가 모친인 최경자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을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함. 현재 복식 관련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주로 착용자 중심이었으나 디자이너가 확실한 경우에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조사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제안함.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1960년대 초반 국가적으로 신생활복 권장 시기에 한복을 간소화해서 디자인한 것으로 시대성이 있음. 최경자는 한국 패션디자인의 1세대 중에서 대표자로 한국패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현재 소장자는 이 원피스 외에도 최경자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의복을 다수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 후에 선별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함.

<○○○○○ ○○ ○○○>

1) 현상

-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섬유 원료 및 상품명 ‘GOLDENTEX’ 표기가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본 조사대상 신생활복은 1960년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에 관한 의결문서 (단기 4294년 9월)중에 제시한 신생활 한복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권장목적
 - 당시 신생활복 에 대한 의결을 올린 목적은 5.16 이후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 또한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하는 뜻에서 신생활복장을 제정하여 널리 국민에게 보급시키려는 재건국민운동 본부의 권장에 호응하는 것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의결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도 이미 의결된 것이었다.
 - 당시 문건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 할 것과 국영기업체 및 국가 관리기업체 종사원에게 신생활복을 착용하게 하였고 착용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고 정해진 바 있다.
- 복지와 색
 - 당시 문건에는 복지와 색 즉 옷감과 색에 대한 명시도 기록되어 있는 바 순모직 제품은 쓰지 않도록 하고 모직 70%에 면직이 30%이하의 복지를 선택할 것이며 색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였음
 - 형태는 도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여성신생활단추가 달린 여자용 원피스와 신생활한복임
- 신청 대상과의 차이점
 - 문건에 제시된 신생활 한복 : 개량한복 형태 (저고리+어깨 치마)
 - 등록 신청 물건은 저고리와 치마가 허리에서 연결된 원피스 형태이며 100%순모 기타 부분은 문건의 형태와 매우 흡사함

- 개량한복을 신생활복과 같이 원피스 형태로 한 점과 옷감을 100% 순모로 순점 등으로 보아 당시 최경자 디자이너에게 맞춤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임



○ 신청건의 형태적 특징

- 원피스
- 상의는 저고리, 하의는 통치마 형태를 허리에서 연결한 원피스
- 상의 길이 41cm, 하의길이는 62cm로 상의와 하의의 비율은 1: 1.5 정도임
- 상의에는 가슴과 허리에 다트를 주어 상체에 맞게 구성하였음
- 상의는 허리선까지 트임을 주어 입고 벗기가 용이하도록 처리함. 치마둘레는 154cm로 좌우의 섬유가장자리(2cm)를 시접으로 삼아 앞 중심에서 봉제하여 당시 이 옷감의 폭은 154cm임을 알 수 있음
- 깃넓이는 5.5cm이고 그 위로 1.8cm 폭의 동정이 달려있음
- 화장은 47cm이며 6.5cm 어깨처짐을 주어 형태는 한복과 서양복이 접목되어 있으나 봉제는 서양식 봉제법을 씀
- 허리선에 앞뒤에 3.5cm 주름을 잡음
- 고름은 밑넓이 8.5cm, 고름 낸 중심부분이 6cm인 고름을 만들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함
- 치마단 너비는 총 7cm이며 5cm 위로 2cm 크기의 바이어스를 돌려 공그르기 함



앞면	앞목선 부분	앞면 허리주름	탈부착 고름
			
뒷면	앞여밈	뒷면 허리 주름	섬유원료 및 상품명
			
착장모습	안고름	소매모양	밑단처리

3) 문헌자료

-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문건번호 단기 4294년 9월
문건제목 :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
제 출 자 : 내각사무처장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55년 전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생활의 간편한 옷차림을 장려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양장 1세대 디자이너 최경자의 작품이며 유품으로 최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한국현대의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근대 생활사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적 근거가 명확하고 형태도 양호하여 근대 등록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음.
- 다만 신청 건을 개별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한국의 1세대 양장 디자이너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최경자>의 000외 0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정 보류로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함

<문화재전문위원 ○○○>

1) 현상 : 상태 양호

2) 내용 및 특징

- 푸른색(청색) 제일모직 ‘ALL WOOL GOLDENTEX’라는 라벨이 있는 옷감으로 만들어진 신생활한복임. 1961년 5.16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신생활복으로 만들어졌음. 서류에는 모직 70%와 면직 30% 혼용직물을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이 옷은 순모100%임. 여자용으로 치마와 저고리가 붙은 원피스형임. 1961년 당시의 신생활복 가운데 신생활한복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복식임.
- 특히 1960년대에도 한복을 변형하였지만, 겉으로는 변형이 되지 않는 옷이어서 60년이 지난 오늘날에 ‘한복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옷이라 생각함.
- 신생활 한복의 형태는 상의는 저고리의 모양으로, 동정이 달린 것과 봉어배래와 같은 소매가 있음. 앞 중심에는 싸개단추를 달아 여몄음. 마치 한복 옷고름처럼 보이는데 긴 리본처럼 고정하여 후크로 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었음. 소매와 몸판은 서양복식으로 재단하여 만들었음. 속고름을 넣어 한복 저고리 형태와 구성에 충실하게 따랐음. 치마의 주름은 앞중심에서 좌우 4개씩 넓은 주름을 Box Pleats 형식으로 잡았음. 치마의 앞중심에는 트임을 있어 착용하기에 편리함. 치마의 안감은 없으며, 상의는 공단으로 안감을 두었음.



<현대의상박물관소장 신생활한복 전면 도식화 >

<현대의상박물관소장 신생활한복 후면 도식화>



신생활 한복 전면



신생활 한복 고름(리본) 부착



신생활 한복 고름(겉)



신생활 한복 고름(안 후크)



신생활 한복 옷감 라벨



신생활 한복 원피스 치마부분 여밈

3) 문헌자료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Up.do?select_search_box=1&upside_query=%EC%8B%A0%EC%83%9D%ED%99%9C%EB%B3%B5 국가기록원/신생활복 첨부문서 참조

4) 기 타

- 국가기록원 단기4294년 9월 제출자: 내각사무처장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문건에 의하면, 이 신생활복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만들어졌음.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이 모든 직원은 별지 요령에 의하여 신생활복을 착용한다. 단 특정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공무원 및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제안이유

5.16 이후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하는 뜻에서 신생활복장을 제정하여 널리 국민에게 보급시키려는 재건국민운동 본부의 권장에 호응하는 것임.

3. 참고

- (1) 재건국민운동본부로부터 94.9.15일과 9.19일에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받고 있음.
- (2)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도 이미 의결된 바 있음.

- 신생활복착용요령

1. 제정의 취지와 착용운동의 목적

5.16 이후 국민의 신생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복 생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바 국민에게 재건의식을 고취하고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 하는 뜻에서 신생활복장을 제정 국민에게 이를 널리 보급시킨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표인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견지에서 제1차적으로 전 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 포함)과 국영기업체 및 국가 관리기업체 종사원에게 신생활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2. 착용 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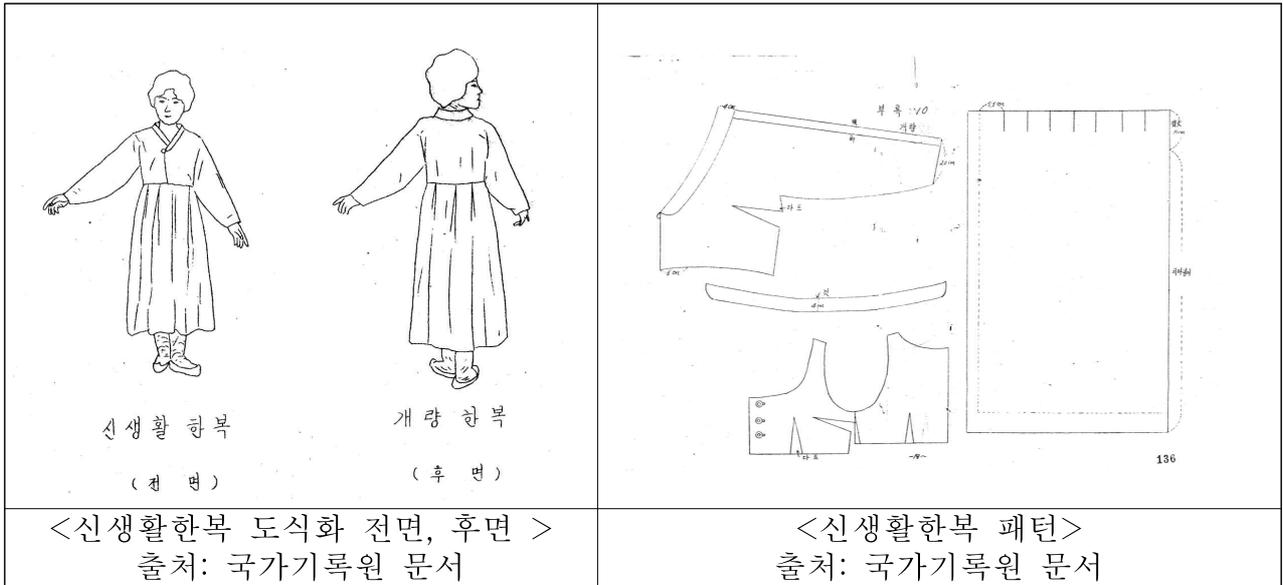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5월30일까지로 한다. 단, 94년도에 한하여 준비기간(혼용기간)을 10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로 하고 10월15일부터 일제히 착용토록 한다.

3. 복지와 색

신생활복을 신조할 경우 순모직을 쓰지 않도록 하고 모직 70%에 면직 30%이하의 복지를 선택할 것이며 색깔은 자유로 한다. 단 개조 시에는 예외로 한다.

4. 형태 : 형태는 별지 사진 및 재당 도표와 같다.

5. 의례시를 제외한 근무 시간 내에 넥타이 착용 및 화려한 복장의 착용을 금한다.



- 이와 함께 앞뒤면 도식화와 함께 패턴이 첨부되어 있음. 현대의상박물관의 푸른색 원피스는 ‘신생활 한복’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복 형태의 저고리와 치마의 모습이나, 복식의 구성은 양장의 패턴과 바느질 방법을 이용한 서양복 원피스형태임. 상의의 패턴을 살펴보면, 겨드랑이 아래에서 가슴을 향하여 다트를 넣고 앞길과 소매는 하나로 연결하였음. 패턴의 도식화에는 점퍼스커트 형태의 치마로 묘사해 놓았으나, 실제 현대의상박물관 소장 신생활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가 붙은 원피스형임. 저고리에 해당하는 상의가 흥미롭다. 저고리의 깃모양과 착탈식 옷고름을 부착하여, 한복의 요소는 빠짐없이 모두 갖추고 있음.
- 소장경위: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신생활복(양장, 한복)은 국민의 신생활 체제 확립과 재건의식 고취하고자 사치한 옷차림을 없애려고 국민에게 보급하면서, 공무원에게 먼저 입게 하였음. 옷감은 순모직을 사용하지 않게 하였고, 모직 70%에 면직 30% 혼용 옷감을 선택하게 하고 색깔은 자유롭게 했음.
- 신생활복에 관한 국가기록원 1961년 서류에 의하면 “3. 복지와 색
 - 신생활복을 신조할 경우 순모직을 쓰지 않도록 하고 모직 70%에 면직 30%이하의 복지를 선택할 것이며 색깔은 자유로 한다. 단 개조 시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현대의상박물관 소장 신생활한복은 울100%임. 이 신생활한복에 대하여
 - ① 소장자인 ○○○은 이 “신생활한복이 1961년 혁명위원회가 주최한 신생활복 콘테스트에서 최경자 디자이너가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찾지 못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콘테스트가 아니라 혁명위원회에서 최경자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봄. ② 현재 소장품 신생활한복은 당시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제출했던 1961년도 작품이 아니라,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감에 ALL WOOL GOLDENTEX가 새겨져 있으므로 1960년대 이후의 직물생산과 신생활한복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등록문화재의 명칭: 현재는 ‘신생활복’이라고 등록신청되어 있지만, ‘신생활 한복’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국가기록원 1961년 서류에는 ‘신생활복’은 양복과 양장을 일컫고, 이 옷은 ‘신생활한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등록가치 및 기준: 등록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봄.
 - 1) 역사와 생활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음.
 - : 1961년 5.16에 의해 국민의 정신과 문화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 신생활복의 제안 이유는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 하는 뜻이라고 했음. 이 옷이 실제로 입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을 중심으로 신생활 한복까지 디자인 된 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
 - 2) 기술 발전으로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음.
 - : 복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용된 옷감이 제일모직 순모100%로 만들었다는 점도 가치가 있음. 제일모직은 “1954년 9월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로 창립되었음. 1955년 12월 소모방공장을 준공하였고, 1956년 1월 방적·직포·방모공장을 준공하였으며, 3월 염색가공공장을 준공하였다. 1960년 1월 즐모공장(櫛毛工場)을 신축하고 소모공장을 증축하였으며, 1961년 2월 복지를 수출하였고, 7월 소모사를 수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일모직주 [Cheil Industries Inc., 第一毛織(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와 같은 기록을 참조할 때 1960년 이후 제일모직에서 만들어진 옷감일 것을 추측할 수 있음.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 1항과 2항에 의하여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3) 하지만, 이 ‘신생활 한복’과 별건 신청인 ‘낙하산 블라우스’는 개별 등록문화재가 아닌, 최경자 디자이너 작품 가운데 ‘청자’를 포함하여 일괄 등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최경자 디자이너는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고려청자 실루엣의 이브닝드레스를 비롯하여 한국적인 미와 서양복을 접목하여 한국미를 세계에 널리 알렸음. 현재 1950년대 서양복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개인 디자이너의 작품이 보관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패션이 시대상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최경자 선생 작품 가운데 의미가 있는 작품인 ‘청자’와 함께 일괄 등록하는 것을 권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보존정비 : 현재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단, 보존처리는 옷감을 제직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할 것임.
- 활용 : 1950년대 전쟁이후, 넉넉하지 않은 물자사정에서 낙하산직물을 재활용했다는 점과 낙하산 직물과 유사한 신소재직물을 한국기술로 생산하였다는 것이 흥미로움. 패션은 사회현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척도임. 1950년대의 시대상과 직물생산과 패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활용가능함.

6.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 등록

가. 제안사항

개인 소장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9.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	1건 2점	○조끼 길이 61, 가슴둘레 98 ○적색띠 너비 7.7, 길이 158.8	1940년대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27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9.10.)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2.6.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2.8.31.) : 문화재 등록 검토회의
 - ('22.9.27.) :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로 추진
 - ('22.10.17.~11.16.) : 등록예고
 - (조선일보 기자수첩, 10.19) “일본군 무운장구 조끼가 문화재라고?”(참고1)
 - (○○○ ○○○○ 유선전화, 10.20) “문화재 등록 반대”(참고2)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건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집(1944~1945.8.25.)된 조선 청년이 착용한 천인침 조끼와 어깨띠임. 조끼와 적색띠는 일제강점기 말 강제 징집되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어머니가 직접 제작하였으며, 일본의 천인침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나 강제 징집되는 일면을 보여주는 유물임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2.6.9.)

-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는 태평양전쟁 당시에 김은영(金垠滢, 1923-1999)이라는 젊은이가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강제 징집되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 출전할 때 천인침을 몸에 지니고 적색띠를 두르는 풍습은 일본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작자와 착용자가 모두 조선인이며, 문헌과 구전으로 알려진 일제 침략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임.

○ 문화재전문위원 ○○○('22.6.9.)

- 신청 유물은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과 그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기원했던 조선인의 입장을 실물로 보여줌.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제작자와 착용자가 명확함. 또한 그 형식면에서도 희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네거티브 유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두운 아픔의 역사 또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이기에 등록할 가치가 있음.
- 적색띠도 제작자와 착용자가 분명하며, 제작 방식이 대량생산이 아니라 가족이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제작한 것임. 아울러 앞의 두 유물이 등록된다면 함께 관리될 가능성이 충분함

○ 문화재전문위원 ○○○('22.6.9.)

- 본 유물은 국내에 보고된 관련 유물 중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적색띠가 모두 남아 있다는 점과 착용자와 제작자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음. 암울했던 시대 배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자료로써,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집되어 전장으로 나가는 젊은이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유물의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 ○○ ○○○('22.6.9.)

- 본 유물은 일제강점기 조선 젊은이들의 징병 사실을 증명하며 그 가족들과 동료들이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유물이며, 그 당시 복식문화를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 가치 있음. 강제 징집된 조선 병사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 희소한 유물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민들의 당시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출석 11명 / 부결 11명

朝鮮日報
기사수첩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A18면 문화

일본군 ‘武運長久’ 조끼가 문화재라고?

“이 땅의 백성도 황국의 충성스런 인민으로서 그의 지킬 본분을 지켜온다 하였지마는 오늘처럼 뜨거운 가슴을 정성드린 ‘센넨바리’를 누비어 본 적이 없으리라.”(매일신보 1944년 1월 20일자에 실린 친일 기고문)

‘센넨바리(천인침·千人針)’란 러일전쟁 이후 20세기 전반 일본에서 유행한 풍습이다. 한 조각의 천에 1000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출정 군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걸 지니면 탄환에 맞지 않는다’는 부적 역할을 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 때 ‘후방’이었던 조선에서도 관변단체와 여학생을 동원해 센넨바리를 만들어 전방 군인들에게 보내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이 ‘센넨바리’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물이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1960년대 신생활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사진)와 어깨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일제 말 징집된 아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가 만든 것으로, 조끼 뒷면에는 ‘무운장구(武運長久)’라는 글자를 크게 박아 넣었다. 글자 그대로 1000명이 한 땀씩 만든 것은 아니지만 ‘센넨바리’의 형식과 정신을 따랐다는 것이 문화재청 설명이다.

애끓는 모정(母情)을 짐작 못 할 바아니지만, 이 유물을 굳이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문화재청은 유물의 가치에 대해 “국권 침탈이 우리



문화재청

문화의 깊숙한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한국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라는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는 ‘국권 침탈이 우리에게 깊이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친일 인사 관련 자료나 일본군의 군사 시설 등도 문화재로 등록·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 과거에 존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조선총독부·경성부청 건물은 광복 이후 오랜 기간 대한민국 중앙청과 서울시청으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경우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임을 생각해볼 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개운치 않은 등록 예고 결정을 내린 셈이다. 유석재 기자

참고2

이의신청 내용

□ 문화재 등록 반대(○○○ ○○○○○ / 2022.10.20. 17:00 유선)

- 센닌바리는 일본 일제강점기말 조선 청년 징병 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의 신도의 방법으로 소위 한국의 애국반 부인들을 기만하여 동원해서 자행한 관습이므로 대한민국의 문화재로 지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 세계적으로 독일의 히틀러 나치, 이태리의 무쏘리니 파시스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유물과 관행은 독일은 법률로, 이태리와 일본은 관행으로 문화유품으로 중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센닌바리는 문화재법이 규정한 문화재 항목에 들 수 없는 위반된 품목이라고 판정됩니다.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및 적색띠
- 2. 소 유 자 : ○○○
- 3.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로 장문로 27
- 4. 제작년대 : 1940년대
- 5. 수 량 : 1건 2점
- 6. 이미지/재질/규격(cm)

구분	천인침 조끼	적색띠
이미지		
재질	광목, 실크실	명주
규격	길이 61, 가슴둘레 98	너비 7.7, 총길이 158.8

7. 조사자 의견('22.6.9.)

<문화재위원 ○○○>

1) 개요

- 대상 유물은 태평양전쟁 당시에 일본제국에 의해 태평양전쟁 동안에 강제 징집되었던 김은영(金垠潑, 1923-1999)이 착용했던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임. 김은영의 강제징병 사실은 국가기록원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 기록에 따르면, 1944년에 징집되어 1945년 6월 1일에 조선남선 제17방면 직할부대에 배치되었고 1945년 8월 25일에 제대했음.
- 천인침 조끼는 김은영의 모친 배을록이 강제 징집된 아들이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손수 제작한 것으로, 김은영이 착용 후에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김은영의 딸 고 김임주가 ○○○에 기증하였음. 착용자 김은영은 일제강점기에 금성은영(金城垠潑)으로 창씨개명했었고 경성전기학교를 졸업하였음. 1944년 그의 나이 21세에 결혼한 상태에서 강제 징집되었으며, 해방 이후 서울 민사법원에 근무하였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①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 ‘천인침(千人針, せんになはり)’은 러일전쟁 때 일본에서 출정군인의 어머니 또는 여자 가족이 병사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뜻에서 바늘땀을 떠서 배에 두르는 복대(腹帶)를 만들어주던 것에서 유래했음.
 - 1미터 정도의 백색 천에 천 명의 여성들이 붉은색 실로 한 땀씩 땀을 떠서 천 개의 매듭을 지어서 만든 천인침을 몸에 지니면 총탄을 막아낼 수 있다는

민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장에서 병사들은 천인침을 부적처럼 몸에 지녔다고 함.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 때까지 크게 유행했는데, 전장에서는 세탁하기가 어려워 불결해서 대부분 없애버렸지만, 일본에는 적잖이 현존하고 있음. 국내에는 대여섯 군데 박물관과 역사관에서 복대 형식의 천인침을 소장하고 있으나 조끼 전체에 걸쳐 바늘땀이 떠져 있는 사례는 알려진 바 없음.

- 광목 조끼이며, 표면에 붉은색 씨앗수가 한 땀 한 땀씩 총 974개 놓여 있음. 천인침의 각 바늘땀은 외각 지름 9mm, 내부 지름 6mm 정도 크기의 원형 안에 붉은색의 실로 씨앗수가 놓여 있음. 붓 뚜껑 같은 도구로 도장 찍듯이 찍어서 패턴을 만들고, 그 안에 붉은 색실로 씨앗수를 한 땀씩 놓았음.



② 적색띠

- 일본에서 ‘적거(赤襷, あかたすき)’라고 불리는 적색띠는 일제강점기에 소집 영장을 받아 입대하는 병사가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두르는 용도였음. 때로는 일장기를 접어서 서로 교차하도록 매기도 했음을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긴 직사각형 띠 모양이고 양끝 부분이 삼각접음으로 처리되어 있음. 표면에는 “金城垠滌君,” “祈武運長久”라는 목서가 있음.
- 특이 사항은 목서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 반전되어 있음. 어깨띠 착용 사례를 조사했으나 글자를 반전시켜서 착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검토대상의 어깨띠가 글자를 좌우 반전되게 제작된 이유를 현재 확인할 수 없음. 다만, 붉은 천에 먹으로 글씨를 쓸 때는 바르게 썼으나 천을 띠로 만드는 과정에서 속과 겉이 뒤집히면서 발생한 결과로 추정됨.



회화		사진
		
<p>김기창,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매일신보』, 1943.8.7.</p>	<p>야마다 신이치, <조선학도병>, 1939, 결전미술전 출품작</p>	<p><입영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젊은이> https://www.jjang0u.com/board/view/military/13089485</p>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소장자가 자택에서 보관중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태평양전쟁 시기에 한국인 강제징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 문헌이나 사진 및 회화의 이미지로 알려진 천인침, 적색띠를 일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비록 ‘네가티브 유산’이지만, 제작자와 착용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일체의 만행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임. 특히 천인침 조끼는 매우 공들여 제작되었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이와 유사한 현존 유물은 찾기 어려움.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네가티브 유산’의 사례로는 ‘색복 장려 깃발’이 있음. 천인침과 적색띠는 제작자와 착용자가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제국의 한국인 강제징병의 구체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색복 장려 깃발’ 이상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착용자와 제작자가 확실하며, 일제강점기에 한국 젊은이가 겪었던 참담한 시대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유물임. 또한 국내에는 천인침 조끼, 적색띠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어 희소성이 있음. 타 소장본과 비교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좋고 완성도가 높아 대표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착용자와 제작자가 조선인으로 분명하게 알려져 있음. 전장에서 총탄을 피하고자 천인침을 제작하고 착용하는 행위 자체는 일본 풍습이지만, 강제 징병 당한 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모친이 공들여 천인침을 제작했다는 사실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참혹한 시국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무운장구’ 글자를 수 놓은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 혹은 착용자의 이름을 밝혀 ‘김은영의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로 제안함.

9) 참고문헌

- 이정윤, 「일제말기 ‘시국미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부평역사박물관(<http://wongaksa.or.kr>)
- 원각사 성보박물관(<https://www.jjang0u.com>)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는 브이네크 형태의 조끼로서 앞면에 있는 3개의 여밈끈을 이용해 입고 벗을 수 있는 구조임. 앞뒷면에 974개의 바느질 매듭이 한 땀 한 땀씩 손바느질 되어있음
- 적색띠는 붉은색 명주 소재인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띠 위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글귀와 착용자의 이름이 먹물로 적혀있고, 양쪽 끝면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①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적색띠’는 일제강점기의 막바지에 만들어진 물품으로,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일본이 수세에 몰리자 조선인들까지 전선에 내몰며 그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임.
- 천인침의 기원은 일본에서 출발한 것으로, 정확한 기원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러일전쟁(1904)이 벌어지면서 전쟁에 투입된 일본군이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소지하며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보임.
- 천인침(千人針; 쉰넌바리)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여성으로 상정되는 천명의 사람들이 복대 형식의 천이나 조끼 등에 한 땀씩 손바느질을 하고, 그것을 입고 전장에 나가면 총알도 피해가 결국 무사귀환하게 된다는 기원이 반영된 물품임.
- 전적으로 일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을 감행한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인(대부분이 여성, 여학생)까지 참전 중인 일본을 위해 천인침 봉사를 했다는 미담 형식의 당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음(《매일신보》, 《부산일보》, 《경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 1944년부터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된 조선인들을 위해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천인침 등의 물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종 기사나 사진 자료로 남아 있음. 물론 일제는 이를 전쟁 동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음.
- 천인침이라는 실물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소재로 하는 군가, 영화, 문학작품도 상당수 존재함. 대표적인 것이 1944년 이광수가 발표했던 ‘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밖에 주요한 등 많은 문인들이 천인침을 전쟁 동원의 메타포로 활용하였음.

- 해당 유물은 이런 맥락에서 제작된 천인침 조끼로, 제작시기 및 착용자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유물임. 천인침이 아주 희귀한 유물은 아니지만, 조끼의 형식으로 제작된 것은 흔하지 않음.
- 바느질의 마무리가 꼼꼼하고, 보존도 잘 되어있음. 일제강점기 말기 민간의 복식사 연구에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봄.
- 특히 이런 유물은 제작자, 착용자가 중요함. 일본에서 대량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임. 하지만 이 유물은 착용자의 이름과 입수 경위가 명확하고, 실제 유수명부 등에서 성명과 입대 시기, 부인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제의 강제동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물일뿐만 아니라, 총동원 시기에 자녀를 전선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피식민지인 부모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유물이기에 가치가 충분함.

② 적색띠

- 본 적색띠는 기존에 발견되는 것들과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음. 제작 방식이 조선의 방식을 따르고 있고, 앞뒤가 뒤바뀐 점을 보아 대량 생산이 아닌 착용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만든 것으로 보이며, 기원하는 문구를 써놓았고 상태는 양호한 편.
- 특히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의 착용자 성명이 기재되어, 사용자 및 제작자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유물로 큰 가치가 있음.
-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과 함께 세트로 관리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보전이 매우 잘 되어 있으며, 연대를 고려할 때 노후화 상태도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개인이 기증받아 관리 하고 있어 보존처리 등 전문적인 보존관리 환경은 전문기관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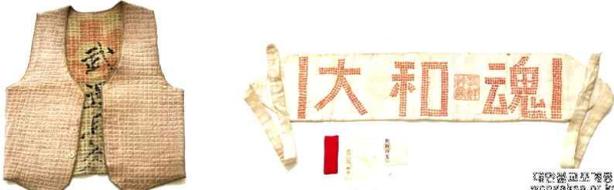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네가티브 유물’, 혹은 ‘네가티브 문화재’도 정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봄.
- 특히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이나 착취, 억압과 관련된 유물은 오히려 그 시대의 어두운 기억을 보존하고 한국은 물론 보편적인 가치를 상기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아래의 민간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천인침, 일장기 등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
- 하지만 조끼 형식의 유물은 드물고, 특히 조끼 자체에 천인침을 놓은 것은 더욱 찾기가 힘든 상태임.
- 마찬가지로 적색띠 또한 이러한 형식의 제작 방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선인이 제작자이자 사용자라는 부분이 명확함.
- 사용자와 제작자가 알려진 천인침 복대, 일장기, 깃발 유물 일습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 일습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수집된 바 없는 유물임.

< 타기관 소장 유물현황 >

<p>부평역사박물관</p> 	<p>국립강제동원역사관</p> 	
<p>원각사 성보박물관</p> 	<p>근대부산역사관</p> 	
<p>식민지역사박물관</p> 	<p>독립기념관</p> 	

7)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들은 일본식 문화가 한반도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결과물로, 당연히 일본 색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유물임. 더군다나 전쟁을 미화하고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활용된 일종의 ‘네가티브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이 부분은 해당 유물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일제 식민통치의 폐해와 피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유물이며, 어두운 역사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유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함. 유물의 입수 시기, 제작자 및 착용자의 정확한 신상 정보도 확인되었음.
- 특히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의 제작자와 착용자가 명확한 편이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해당 형식의 유물이 드물다는 점도 등록 가치를 높이는 요인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

9) 참고문헌

- 강덕상, 정다운, 『일제 강점기 말 조선 학도병의 자화상』, 선인, 2016.
- 김보현, 「일제강점기 전시하 한반도 단카 장르의 변형과 재조일본인의 전쟁단카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2014.
- 김성순, 「제국주의 전쟁과 우물가의 여인들」, 『일본불교문화연구』 13, 2015.
- 박진숙, 「박태원의 통속소설과 시대의 ‘명랑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
- 유철,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교화를 위한 ‘신체’론」,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야마무로 신이치, 『러일전쟁의 세기』, 정재정 옮김, 소화, 2010.
- 《매일신보》, 《부산일보》, 《경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 《월산조선실업구락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본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훈장의 대수처럼 두르도록 제작된 적색띠임
- 본 유물은 고 김은영(1923~1999)의 모친 고 배을룩씨가 아들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소장자와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고 김은영의 딸 고 김임주로부터 기증받음. 기증 경위서를 통해 제작자, 착용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
- 고 김은영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전기학교를 졸업하였고, 21세였던 1943년에 태평양 전쟁(대동아전쟁)에 징집되어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1945년 8월 해방 후 귀국하여 서울 민사법원에서 근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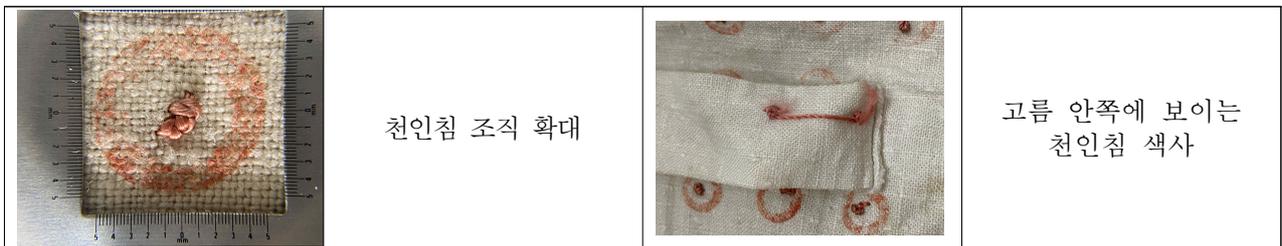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①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 천인침 조끼에는 천인침 매듭이 앞길 왼쪽 237개(고름 자수 6개 포함), 오른쪽 249개, 뒷길 무운장구 글자 위에 240개, 글자 외의 부분에 248개로 총 974개가 수놓임
- 조끼 뒷면 중심에는 무운장구(武運長久) 문구가 천인침으로 수 놓였음

앞면	뒷면	조끼 안감 사진
		
천인침 수 고름에 6개 오른쪽 길에 249개 왼쪽 길에 231개	천인침 수 무운장구 글자에 240개 글자를 제외한 뒤쪽 길에 248개	안감에는 천인침이 없음

- 조끼는 먼저 재단된 겉감에 천인침을 수놓고 완성한 후 안감을 덧대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전통 복식에서 조끼는 없었던 아이템이었지만 개항 이후 양복 조끼의 모양을 본떠 한복감으로 만들어 남자 저고리 위에 착용하게 되면서 한복 조끼로 정착하여 남자 한복의 아이템으로 정착하였음. 일반적인 한복 조끼는 앞 중심에서 2~2.5cm 겹침분이 있고 5쌍의 단추와 단춧구멍으로 여미는 형태이지만 본 유물은 앞중심에서 겹침분 없이 만나고 3쌍의 고름으로 여미도록 제작되었음. 착용 후 앞길 오른쪽 길에 짧은 고름, 왼쪽 길에 긴 고름을 단 것은 전통 저고리 고름과 같은 방식임. 따라서 본 유물은 양복 조끼의 형태에 전통 고름을 다는 식으로 혼합된 양식을 보임. 전체 바느질은 재봉틀로 하였음
- 천인침 방식으로 수를 놓았음. 뒷길에는 무운장구 글자를 천인침으로 수놓았는데 무운장구 문구가 적힌 조끼 유물은 보고된 바 있으나 천인침으로 제작한 유물은 국내에서는 처음 보고됨
- 조끼의 소재는 사방 1cm안에 씨실 22올, 날실 22올로 짠 광목임.
- 겉감에 한땀 한땀 천인침이 씨앗수로 수놓아져 있고 한 땀에 하나씩 붉은색 원으로 도장 찍듯이 경계를 만들었음. 천인침을 수놓은 색사는 붉은색의 레이온 또는 견사로 보임. 몸판의 천인침은 수를 먼저 놓고 안감을 붙여 수놓은 뒷면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고름은 완성 후에 수를 놓아 자수 뒷면을 확인할 수 있음.



- 무운장구가 적힌 조끼는 주로 천인침이 수놓아진 복대와 함께 소장되는 경우가 있음. 국내에는 원각사 성보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에 조끼와 복대가 함께 소장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을 위해 제작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 타기관 소장의 무운장구가 새겨진 조끼의 경우 세 점 모두 조선신궁 인장이 찍혀 있고, 미나미지로(南次郎) 총독의 서명과 함께 적힌 무운장구 글자 아래로 증정 단체인 조선군사후원연맹, 경성군사후원연맹과 제작자명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경성정자옥납(京城丁子屋納)’을 통해 조지야(丁子屋)백화점에서 인쇄된 천을 대량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조끼의 제작은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조선군사후원연맹은 1937년에 설립되어 1941년 7월 31일에 해체된 친일 단체로, 출전하는 군인에 대한 환송 등을 한 단체라고 함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타기관 소장의 조끼들은 모두 겉감이 아닌 안감 쪽에 무운장구 글자를 쓰거나 미나미 총독이 쓴 글자가 적힌 천을 덧붙였음.
- 본 유물은 무운장구 글자를 뒷길 바깥쪽에 천인침으로 제작한 점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글자를 따로 배부받지 않고 조선인 스스로가 무운장구 조끼를 만드는 문화와 천인침에 담긴 염원 등을 체화하여 출전하는 가족의 무운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일본에서는 천인침이 수놓아진 조끼도 다수 검색되고 있음

② 적색띠

- 일본에서는 이러한 띠를 赤襷(아카다쓰키(あかたすき) : 붉은색 어깨띠)라고 함
- 일제강점기에 입대하는 장병이 한쪽 어깨에는 붉은색 어깨띠를 두르고, 다른 쪽 어깨에는 일장기를 접어서 둘러 서로 X자로 교차하여 착용하는 풍습이 있고 조선에서도 이러한 풍습을 도입하여 제작한 것임.



입영을 앞두고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젊은이, 피해자 정철규 기증 (국립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일제강점기 징병가는 가족을 배웅하는 조선인들을 그린 엽서 (水野直樹의 3인, 『圖錄 植民地朝鮮に生きる』, 岩波書店, 2012, p. 125)

- 긴 직사각형 띠 위에 먹으로 금성은영(金城垠滢)군(君)과 기무운장구(祈武運長久)의 문구를 간격을 두고 적었음. 본 유물의 원 소유자가 고 김은영이라고 하므로 창씨개명으로 인해 성이 두 자가 되었음.
- 글자가 좌우 반전된 상태로 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글자를 먼저 쓰고 띠를 만드는 과정에서 뒤집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적색띠의 양쪽 끝은 모서리를 접어 넣어 제비부리뎡기와 같은 형태로 삼각접음 하였음, 소재는 명주(견) 혹은 레이온으로 보임

앞면	뒷면	양쪽 끝의 삼각접음	직물 확대 사진

- 이 시기 징병자들의 입영 환송 혹은 기념사진들에서는 적색띠와 일장기를 X자형으로 교차하여 두르거나, 일장기만 두르거나, 적색띠는 두르고 일장기는 깃발로 들고 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착용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대체로 적색띠에는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몸에 들렀고, 적색띠가 준비되지 못한 경우는 일장기만 두르고 촬영한 것으로 생각됨. 입영 기념사진 중에는 흰색 천이나 종이에 이름을 적어서 두르고 촬영한 경우도 있음

적색띠와 일장기 착용 방식(국립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적색띠와 일장기를 X자형으로 두름	일장기만 두름	적색띠를 두르고 일장기를 깃발로 두름	육군병지원자훈련소생도 띠를 두르고 일장기를 깃발로 두름
			
피해자 안승훈 기증	피해자 김영수 기증	피해자 이상우 기증	피해자 노덕래 기증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유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변형이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장자가 자택에서 보관중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일제강점기 후반에 태평양전쟁에 징병되었던 조선 청년들과 가족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유물로, 네거티브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역사에 교훈이 될 수 있는 유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인침, 붉은색 어깨띠 유물이 등록된 사례는 없음
- 이와 유사하게 연상되는 유물로 2014년 10월 29일에 등록된 ‘색복 장려 깃발’이 있음.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문화 및 풍속 말살 정책의 하나로 백의 폐지를 위해 실시한 색복 장려 정책에 사용된 것으로 색복장려운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물 자료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깃발로, 우리의 암울한 시기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되었음

7)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국내에 보고된 관련 유물 중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 적색띠가 모두 남아 있다는 점과 착용자와 제작자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회소가치가 있음
- 암울했던 시대 배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자료로 볼 수 있음.
-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집으로 전장으로 나가는 젊은이가 어떤 준비와 각오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로 제안함

9) 참고문헌

-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조선군사후원연맹>
-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삼화인쇄주식회사, 2010.
- e뮤지엄, <천인침> 부평역사박물관 소장품
- 서울역사박물관, 『남산의 힘』, (주)AGI society, 2015.
- 水野直樹외 3인, 『圖錄 植民地朝鮮に生きる』, 岩波書店, 2012.
- 식민지역사박물관 가이드북(일본어판)
- 국립강제동원역사관(<https://www.fomo.or.kr/museum/kor/Main.do>)
- 식민지역사박물관(<http://historymuseum.or.kr/>)
- 원각사 정보박물관(<http://wongaksa.or.kr>)

<○○○○○ ○○ ○○○>

1) 개요

- 본 유물은 김은영(일본식 성명 金城根滌, 1923.12.20.일생, 1999년 작고)이 입영식에서 착용했던 천인침 조끼(千人針 チョッキ), 적색띠[赤襷{あかだすき}]임. 이 중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는 김은영의 모친 배을룩이 징병 영장을 받은 아들을 위해 제작한 것임.
- 일제는 태평양 전쟁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조선인, 대만인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함. 1943년 3월 1일자로 개정병역법을 시행하여, 1944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함. 유물의 착용자 김은영은 1944년에 만 20세로 징집 대상이 되어 국내(조선 남선 제17방면 직할부대, 전라도 광주 지역)에 배치되었다가 1945년 8월, 일본 패전을 계기로 제대함.
- 본 유물은 194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청년들의 피해 실상을 증명하는 유물로 의미가 있음. 특히, 본 유물은 출정식에 착용되었던 복식이 일습으로 남아있는 드문 경우임.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는 소집 영장이 도착한 김은영의 모친이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만든 것으로 극진한 모성을 엿볼 수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징병제가 시행되던 당시 조선인 입영 환송 사진에 갓 입대한 군인의 양어깨에 적색 어깨띠와 일장기가 모두 착용된 사진이 다수 발견됨. 보통 적색 어깨띠는 오른쪽 어깨에 이름을 앞으로 보이도록 “祈 武運長久”와 같은 기원하는 문구를 뒤에 오도록 맴. 여럿이 글을 쓴 일장기는 대각선으로 접어서 왼쪽 어깨에 들렀음. 적색 어깨띠만 두르고 일장기를 매지 않았을 경우, 일장기를 들고 있음.
-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입영 기념 사진 중에는 군모를 쓰고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 적색띠와 일장기를 두른 사진은 이 시기에 전장으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풍습을 반영하는 것임이 확인됨.



입영 환송 가족사진, 피해자 김재경 기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입영식 사진, 피해자 이원식 기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피해자 구종필 기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피해자 김중계 기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① 천인침 조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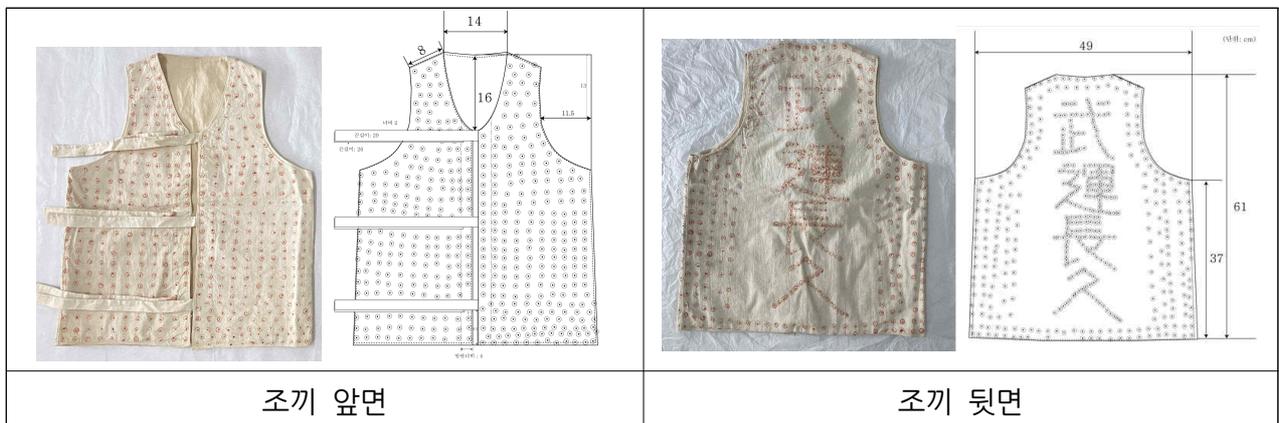
- 천인침(센넨바리)은 흰 천에다 붉은 실로 천 명의 여성들로부터 바늘 한 뼘씩을 얻어 매듭지어 만들며, 이렇게 하면 적의 탄환에 맞지 않는다고 믿는 일종의 부적 역할을 함. 천인침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호랑이가 하룻밤에 천리를 오고 간다”는 속담에 따른 것임.
- 천인침은 붉은 실로 매듭(玉留[たまどめ, 다마도메])을 맨 것으로, 붉은 실은 신사(神社) 입구에 세운 기둥(鳥居[とりい, 도리이])의 색이며, 매듭을 의미하는 옥류는 탄환을 멈추는 의미를 지님. 천인침은 소집 영장이 도착한 가정에서 출병하는 사람을 위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일심으로 바라며” 가족이 만들었다고 함. 푸른 실로 천인침을 한 유물도 발견됨.
- 조끼 형태로써 식민지역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원각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군 위문품 속조끼 3건의 사례가 있음. 세 건의 조끼 유물 모두 천인침은 수놓아져 있지 않음. 경성군사후원연맹(京城軍事後援聯盟) 또는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에서 제작하여 기증한 것으로 당시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쓴 ‘무운장구’ 글씨와 일종의 호신부로 조선 신궁 도장을 찍은 천을 덧대어 만들. 군사후원연맹이 학생들이 만든 것을 모아 군인에게 위문품으로 보낸 것임.
- 군사후원연맹이 여학생들을 동원해 근로작업을 시켰으며, 장병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을 가지고 조선 신궁에 가서 참배하고 ‘조선 신궁’ 도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음.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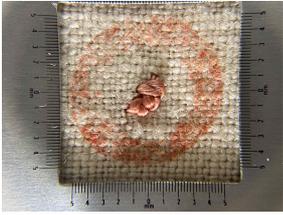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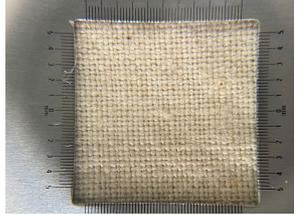
(1944년 8월 12일자). ‘단성의 천인침, 여학생들이 학병에게’

“경성부 내의 여학도들이 더운 여름 근로 작업하는 중에 틈을 내어 정성껏 만든 학병 오빠에게 보낼 선히바리가 총독부 학무국 안에 있는 조선장학회에 연달아 들어와서 관계자들을 감격시키고 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한 바늘씩 뜬 다음 천 명이 다 못되는 남은 것은 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지나가는 부인들에게 청하야 한 바늘씩 얻어서 전부 완성시킨 것이다. 군국여성의 사무치는 열성과 의기로 뭉친 이 선히바리에 관계자들은 감격하는 터인데 장학회에서는 이것을 조선신궁에 가지고 가서 참배하여 학병의 무운장구를 기원한 후 근근 조선 내 각 부대에 있는 학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 천인침 조끼가 사용되었다는 사례는 신문 기사와 문학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매일신보』 1944년 1월 20일자에 수록된 마츠무라 코이치(문인 주요한의 창씨명)의 기고문 ‘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 천인침’
 “삼팔조끼(명주조끼)에 풀숨을 두어 붉은 실로 한 바늘 두 바늘 천 사람의 어머니와 누이의 정성을 모두어 뜨는 ‘선히바리’. 학병의 입영날짜를 앞두고 종로네거리 백화점 어구에 세패 네패로 벌어진 정성의 바느질 (중략)”
 - ‘천인침’ (노천명, 詩, 춘추. 1944. 10) “한 땀 두 땀 천 사람의 정성이 빠알가니/한포韓布 조끼 위에/방을 방을 솟는다.”
- 천인침은 남성 조끼로 소재 광목을 사용하여 겹으로 제작하고, 여밈을 세 개의 끈으로 함. 겹감에 광목(경사 울 수*위사 울 수 22*22/1cm²), 안감에 광목(35*35/1cm²)을 사용함.
- 천인침 개수는 도식화하면서 천인침 개수를 세어본 결과 약 974개 정도로 앞길 오른쪽 249, 앞길 왼쪽 237(고름 천인침 포함), 뒷길 ‘무운장구’ 240, 뒷길 글자 제외 248임. 조끼 뒷판의 천인침 잘린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0개의 천인침을 놓았을 가능성이 있음.
- 유물을 통해 천인침 조끼 제작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음. 조끼 겹감을 완성(끈까지 부착)한 후, 외경 10mm, 내경 7.5~8mm의 원형 도장을 사용하여 천인침 자수 도안을 인주(印朱)로 표시하고 도장 가운데에 붉은 실크사를 사용하여 씨앗수를 놓음. 고름에 천인침이 놓인 것은 끈이 부착된 후 천인침을 수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끈을 묶었을 때에도 천인침이 완전히 보이게 하기 위함. 천인침 완료 후 안감을 대어줌.

<표 1> 천인침 조끼 사진 및 도식화



	
<p>조끼 안</p>	<p>조끼 겉감과 안감의 소재 비교</p>
	
<p>고름 부분의 천인침</p>	<p>뒷판 천인침 잘린 부분</p>
<p>겉감과 천인침 확대 사진 (22*22/1cm²)</p>	
<p>안감 직물 확대 사진 (35*35/1cm²)</p>	

② 적색띠

- 적색 어깨띠(赤襷, あかだすき 아카다스키)는 일본 제국 병사들이 출정하기 위해 배웅을 받을 때 착용한 어깨띠임. 오른쪽 어깨에 걸쳐 왼쪽 허리에서 고정함. 일본인의 적색 어깨띠는 끝단이 일자로 제작됨.
- 적색띠는 길이 158.8cm, 너비 7.7~7.8cm 정도의 크기로, 겹으로 제작되었음. 김은영의 창씨개명인 “金城根滌”과 전쟁에서 무운을 기원하는 “祈 武運長久”가 먹으로 써짐. 글자가 세로로 거울 반사된 모습임. 반대편에서 보면 제대로 된 방향의 글씨가 은은히 비쳐보임. 제작 시 글씨가 써진 겉감을 안쪽으로 두어 만든 것으로 글을 잘 모르는 제작자가 안과 겉을 반대로 제작했거나 의도적으로 글자를 거울 반사된 모습으로 보이도록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음.

		 <p>길이: 158.8 너비: 7.7~7.8</p>
<p>일본식 적색 어깨띠(赤たすき) しがけんバーチャル祈念館 소장, 広田とめさん提供</p>	<p>김은영 적색 어깨띠와 도식화</p>	

- 양쪽 끝 부분에는 전통 제비부리 댕기 제작 방식이 관찰됨. 어깨띠 술기 가운데 창구멍으로 뒤집고 공그르기한 부분이 있음. 소재는 직물 확대 사진으로 보아 명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유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변형이나 노후화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편임.
-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함.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태평양 전쟁시기이자 194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으로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대를 피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유물은 조선 청년들의 강제 징집 또는 강제 동원을 증빙하는 유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인 가족들의 애환을 담은 유물로 판단됨.
- 일제의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일제강점기 1944년까지 20만 명의 조선 젊은이들이 징병된 사실을 사진이 아닌 유물로서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유물임.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인침, 적색띠 유물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일제강점기에 조선 문화 및 풍속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암울한 복식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서 ‘색복 장려 깃발’(국립여성사전시관 소장)이 등록되어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일제강점기 조선 젊은이들의 징병 사실을 증명하며, 그 가족들과 동료들이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유물임. 그 당시 복식문화를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 가치 있음.
- 유물이 희소하고, 강제징집된 조선 병사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임.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민들의 당시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천인침 조끼와 적색띠는 가정에서 제작되어 제작자와 착용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제작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복식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무운장구 천인침 조끼와 적색 어깨띠’로 제안함.

9) 참고문헌

- “丹誠의 千人針-女學生들이 學兵에게”, 『매일신보』, 1944년 8월 12일자.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아카이브, <https://www.fomo.or.kr/museum/kor/CMS/Relic/list.do?mCode=MN0079>
- 국사편찬위원회,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 한국문화사 13, 국사편찬위원회, 2007.
- 김정효,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한겨레신문, 2018-08-29,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 전시체제와 민중의 삶』, 2004.
- 부평역사박물관 아카이브, <https://portal.icbp.go.kr/bphm/own/search.asp>
- 원각사 정보박물관 아카이브, http://wongaksa.or.kr/g4/bbs/board.php?bo_table=junggak_09&wr_id=3460
-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엔진]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main>
- 일본 시가현버추얼평화기념관(しがけんバーチャル祈念館) 전시실 자료, <https://www.pref.shiga.lg.jp/site/heiwa/tenji/index.html>
- 일본 시가현평화기념관(滋賀縣平和祈念館) 전시실 자료, <https://www.pref.shiga.lg.jp/site/heiwa/tenji/index.html>
- 일본 에도동경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 소장 천인침 머리띠, <https://museumcollection.tokyo/works/6283488/>
- 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소장 천인침 조끼, <https://www.nishinippon.co.jp/item/n/627579/>
- 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아카이브, <https://jmapps.ne.jp/fukuokacity/>

7.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등록

가. 제안사항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소장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의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10.25.)를 거쳐 등록 예고한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680점 관측야장 524점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	12×17 27×36 20×27 26×37	1904~1951 1904~1953 1904~1961 1904~1963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11.8.)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2.3.30.) : 자료보완 요청(문화재청→서울시)/ 1910년 이후 기록물 포함
 - ('22.4.11.) : 보완자료 제출(서울시→문화재청)/ 650점 추가
 - ('22.9.1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 최종 680점
 - ('22.10.25.) :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을 「대한제국기 목포관측소 기상관측 기록물」에서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로 변경하여 추진
- (5) 등록예고 : '22.11.4.~12.3.(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 건은 제2 목포임시관측소 설치(1904.3.23.) 후, 1904년부터 1963년까지 작성된 기상관측 기록물(야장, 월보, 연보, 누년월부)임. 우리나라 기후, 기상분야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근대기상 관측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22.9.13.)

- 본 유물은 1904년 3월 23일부터 1963년까지 목포측후소에서 수행한 관측 기록물로, 국내 기상관측과 기상연구의 초기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줌. 매일, 매월, 매년, 누년의 관측값이 기록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음
-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물임

○ ○○○○○ ○○ ○○○('22.9.13.)

- 본 유물은 우리나라 근대 기상 100년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온, 강수, 바람, 기압 등 기후요소에 대한 주기적 관측, 관측기기의 오차 보정, 기상현상 발생 특성(현상유형, 강도, 일시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 양호한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음
- 남서해안 지역에 대한 1900년대 초 기상기록 자료는 기후학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 ○○○○○○○ ○○ ○○○('22.9.13.)

- 본 유물은 개항기 이후 우리나라 근대 기상 관측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현재 기상 관측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었음
- 기록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상박물관에 소장되어 공공 활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1>

현존 근현대시기 기상관측 기록물 현황('22.10.6.기준)

생산기관	조선 관상감	조선해관 (부산·인천·원산)	관측소, 측후소			
			목포		부산	인천
존속기간	1466 ~ 1907.12.13	1883~1910	1904~		1903~	1904~
소장처	국립중앙 도서관	중국 기상청	국립 기상박물관 (680점)	국가기록원 (788점)	국가기록원 (1,547점)	국립 기상박물관 (1점)
관측야장	관상감청향 력고준등록 필사본 (1790~1890)	72점	1,312점		1,497점 1903~1999	-
		부산 24점 1883~1906 인천 25점 1883~1907 원산 23점 1885~1907	524점 1904~1951	291점 1904.4.1.~ 1930.12.31. 497점 1951.11.3.~ 1963.1.31		
월보원부	총 14점/ 관상감계목/ 시헌서	-	55점 1904~1953	-	39점 1904~1943	-
연보원부		-	85점 1904~1961	-	-	-
누년원부		-	16점 1904~1963	-	11점 1905~1970	1점 1906.1.1.~ 19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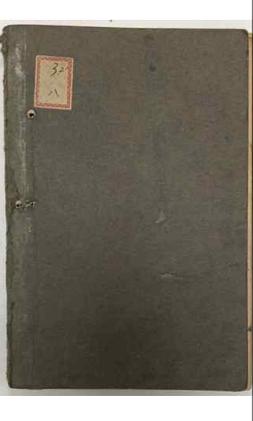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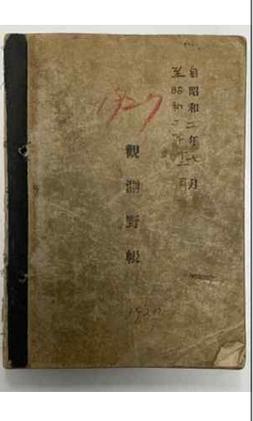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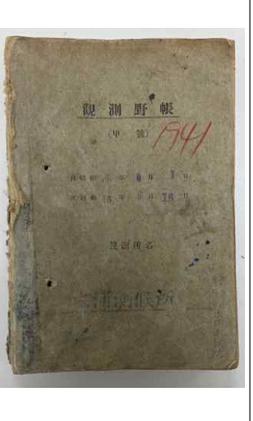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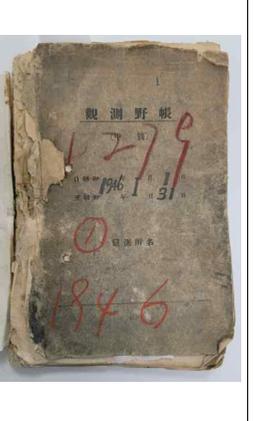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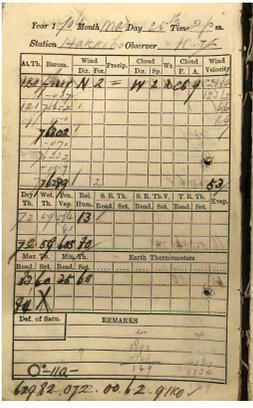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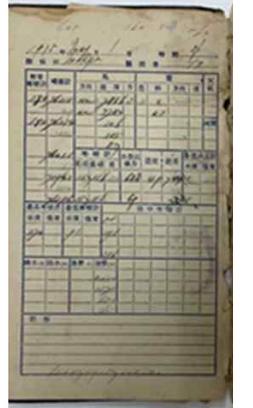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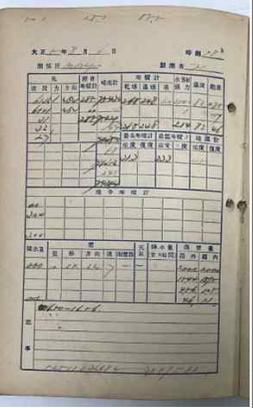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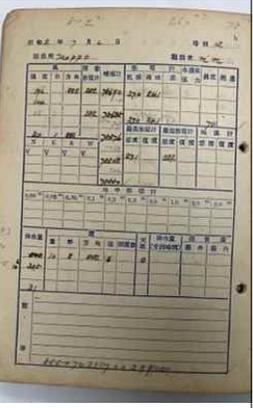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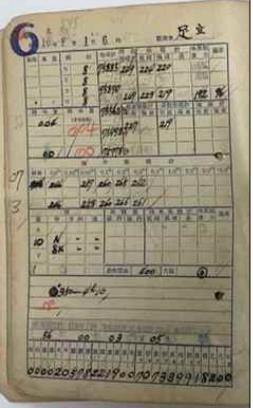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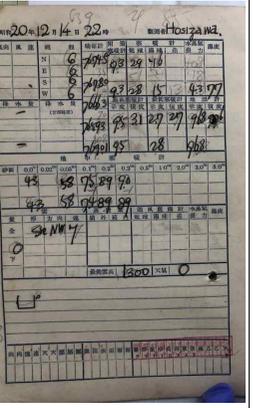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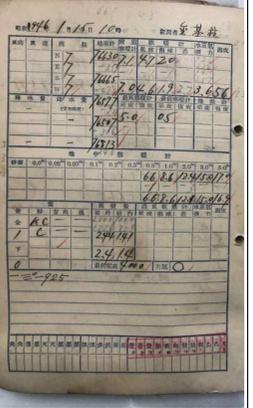
*근대시기 관상감 직제 변화 및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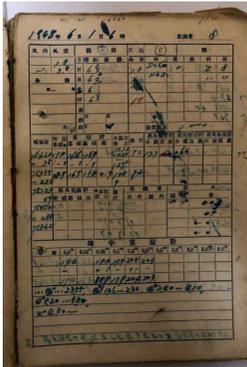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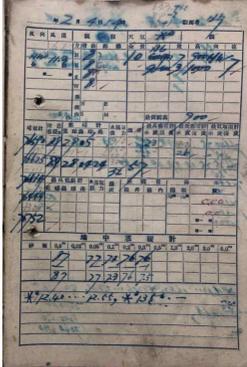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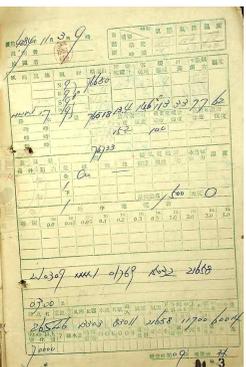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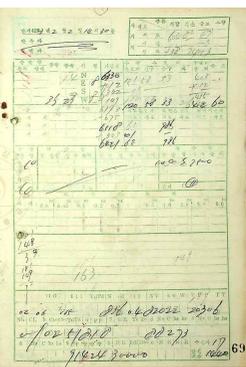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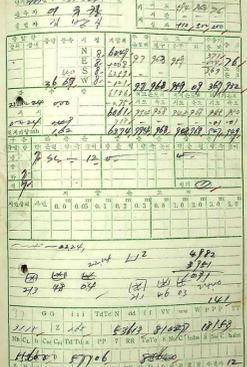
1894 갑오개혁 - 학부아문 관상국(감에서 국으로 격하)

1895 을미개혁 - 학부 관상소(국에서 소로 격하)

1907.12.13. 관상소 폐지

<붙임2> 관측야장 변천양상

	1904년	1915년	1916년	1927년	1941년	1945년	1946년(1월)
표지							
	· 明治37年(1904)	· 大正4年(1915)	· 大正5年(1916)	· 昭和2年(1927)	· 昭和16年(1941)	· 昭和20年(8월)	· 昭和 인쇄됨 · 서기력 사용
내용지							
	· 영어 양식 · 서기력	· 한자 양식 · 서기력	· 양식 변경 · 일본 연호	· 양식 변경 · 일본 연호	· 양식 변경 · 일본 연호	· 관측자 일본인(12월) · 일본 연호	· 관측자 한국인 ·昭和 인쇄됨 · 서기력 사용

	1948년 6월	1949년 2월	1951년	1959년	1960년(1.25.~2.14.)	1963년 1월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관상대 · 서기력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 단기 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428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4292년 · 야장 크기 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4293 · 한글로 변경 · 야장 크기 작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야장 · 서기력 사용
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변경 · 서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변경 · 단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변경 · 단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로 변경 · 단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429 인쇄 · 서기력 사용 · 검열자도 서명

<붙임3> 국가기록원 소장 관측야장과 비교

국가기록원							
	· 1904.4.4./ 02am	· 03am	· 04am	· 05am	· 06am	· 07am	· 08am
기상박물관							

국가 기록원

Year 1968 Month April Day 11 Time 10 a.m.
 Station Hachikō Observer T. Taniyama

ALTh.	Barom.	Wind Dir. Sp.	Wind Precip.	Cloud Dir. Sp.	Cloud Wx.	Cloud F. A.	Wind Velocity
101	1010.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2	1011.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3	1011.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4	1012.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5	1013.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6	1013.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7	1014.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8	1015.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9	1015.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0	1016.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1	1017.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2	1017.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3	1018.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4	1019.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5	1020.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6	1020.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7	1021.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8	1022.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9	1022.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0	1023.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1	1024.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2	1024.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3	1025.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4	1026.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5	1027.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6	1027.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7	1028.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8	1029.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9	1029.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0	1030.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1	1031.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2	1031.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3	1032.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4	1033.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5	1034.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6	1034.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7	1035.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8	1036.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9	1036.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0	1037.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1	1038.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2	1038.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3	1039.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4	1040.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5	1041.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6	1041.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7	1042.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8	1043.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9	1043.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0	1044.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1	1045.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2	1045.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3	1046.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4	1047.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5	1048.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6	1048.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7	1049.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8	1050.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59	1050.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0	1051.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1	1052.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2	1052.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3	1053.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4	1054.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5	1055.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6	1055.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7	1056.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8	1057.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69	1057.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0	1058.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1	1059.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2	1059.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3	1060.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4	1061.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5	1062.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6	1062.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7	1063.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8	1064.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79	1064.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0	1065.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1	1066.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2	1066.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3	1067.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4	1068.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5	1069.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6	1069.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7	1070.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8	1071.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89	1071.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0	1072.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1	1073.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2	1073.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3	1074.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4	1075.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5	1076.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6	1076.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7	1077.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8	1078.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99	1078.8	1000 2	E 7	100	100	100	100
200	1079.5	1000 2	E 7	100	100	100	100

End of Date: 12
REMARKS: 12

Year 1968 Month April Day 11 Time 02 p.m.
 Station Hachikō Observer T. Taniyama

ALTh.	Barom.	Wind Dir. Sp.	Wind Precip.	Cloud Dir. Sp.	Cloud Wx.	Cloud F. A.	Wind Velocity
101	1010.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2	1011.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3	1011.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4	1012.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5	1013.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6	1013.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7	1014.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8	1015.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09	1015.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0	1016.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1	1017.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2	1017.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3	1018.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4	1019.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5	1020.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6	1020.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7	1021.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8	1022.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19	1022.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0	1023.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1	1024.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2	1024.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3	1025.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4	1026.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5	1027.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6	1027.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7	1028.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8	1029.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29	1029.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0	1030.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1	1031.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2	1031.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3	1032.6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4	1033.3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5	1034.0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6	1034.7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7	1035.4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8	1036.1	1000 2	E 7	100	100	100	100
139	1036.8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0	1037.5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1	1038.2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2	1038.9	1000 2	E 7	100	100	100	100
143	1039.6	1000 2	E 7	100			

<붙임4>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2. 소 유 자 : 국립기상박물관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4. 제작년대 : 1904년 ~ 1963년
 5. 수 량 : 680점
 6. 규격(cm) : 12×17 cm 등
 7. 제작연대 : 1904년 ~ 1963년
 8. 재 질 : 종이
9. 조사자 의견('22.9.13.)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한반도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함. 1905년 3월 23일 목포에 제2임시관측소를 개설하고 3월 25일부터 공식 업무와 관측을 시작함. 3월 26일에 부산에 제1임시관측소를, 4월 10일에 인천에 제3임시관측소를, 원산에 제5임시관측소를 개설함. 5월 1일에는 용암포에 제4임시관측소를 개설했음.
- 목포 기상관측소는 처음에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31km 떨어진 작은 섬 옥도에 설치했음. 옥도는 해상의 요충지로 대한제국 때부터 일제는 군사적 전략적 요지로 주목했던 곳임. 러·일전쟁이 끝난 뒤 1906년 4월 목포시내(목포시 대의동)로 옮겼고 1908년 목포측후소로 이름을 바꾸었음. 당시 일본의 중앙기상대는 한반도의 임시관측소 5곳에서 취합한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의 기상을 예측했으며 일본군은 이러한 기상정보를 활용해 러시아의 제2, 제3함대를 물리칠 수 있었음.
- 우리의 근대기 기상관측은 1884년 시작함. 목포 기상관측소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군사적 침략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이곳에서 체계적인 근대 기상관측이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등록신청 대상은 목포기상관측소에서 1904년부터 1963년까지 생성한 기상관측 기록물로 기상관측야장 524점(1904~1951), 기상관측월보원부 55점(1904~1953), 기상관측연보원부 85점(1904~1961), 기상관측누년 원부 16점(1904~1963) 등 총680점으로 이뤄져 있음. 현재 국립기상박물관 소장.
- 기상관측야장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각의 주요 기상 항목을 관측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한 것임. 기상월보 원부는 주요 기상 항목(기압, 풍향, 풍속, 기온, 증기압, 습도, 구름의 형태와 양, 구름의 이동방향과 속도 등)에 관한 월별 데이터를 정리해

기록한 자료임. 기상연보원부는 주요 기상항목의 연도별 데이터를 정리해 기록한 자료임. 기상누년원부)는 각 연도의 월별로 기상항목을 기록함.

- 1904년 3월 25일부터 1950년대까지의 목포측후소의 기록물로 국내 기상관측과 기상 연구(기상학)의 초기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자료임. 매일, 매월, 매년, 누년의 관측 값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또한 기상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물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등록신청 대상은 ①기상관측 야장 524점(1904~1951) ②기상관측월보 원부 55점(1904~1953) ③기상관측 연보 원부 85점(1904~1961) ④기상관측누년 원부 16점(1904~1963) 등 680점.

<기상관측 야장 524점>(1904~1951),

- 기상관측 야장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각의 기상을 관측한 여러 결과를 수치로 기록한 것임. 목포측후소의 기상관측은 1904년 3월 25일 시작되었으나 이보다 이틀 앞선 3월 23일에 시험관측이 이뤄짐. 관측야장에 기록된 첫 관측은 따라서 1904년 3월 23일임.
- 대체로 02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관측했으나 정시관측은 매일 5차례(06시, 10시, 14시, 18시, 22시) 진행되었음.
- 야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고 이 양식의 빈 칸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작성함. 안쪽 표지에는 기입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 기상관측야장 작성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기상관측 기록에 사용되는 여러 부호도 안내해놓았음. 1904년 처음 사용한 양식은 영어로 되어 있고 1910년부터 한자로 바뀌었음.
- 관측 및 기입 항목은 온도계 높이, 기압, 풍향과 풍속, 강우량, 운향과 운속(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 운형과 운고(구름의 종류와 높이). 온도(건구온도와 습구 온도), 수증기압, 상대습도, 포화수증기압, 최고기온, 최저기온, 지중온도, 하늘상태 등임. 이밖에 기상현상(강우, 강설, 안개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결빙, 이슬, 낙뢰 등)을 기록하는 항목도 있음. 기상에 관해서 관측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이 들어 있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관측값을 기록했음.
- 1941년부터는 갑호와 을호로 나누어 관측함. 갑호는 03시, 09시, 12시, 15시, 21시, 24시에 관측한 결과를 기록했으며 을호는 그 외의 시각에 부정기적으로 관측한 결과를 기록했음. 3일 주기로 반복했는데, 1일차는 01, 05, 10, 14, 19, 23시에 관측하고 2일차에는 04, 08, 13, 17, 22시에 관측함. 3일차에는 02, 07, 11, 16, 20시에 관측함. 갑호와 을호 관측을 통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음.

<기상월보 원부 55점>(1904~1953)

- 기상월보 원부 52점(1904~1953), 일사월보 1점(1940~1947), 상층기류월보 원부 2점(1937~1945)로 이뤄져 있음.
- 기상월보 원부는 주요 기상 항목(기압, 풍향, 풍속, 기온, 증기압, 습도, 구름의 형태와 양, 구름의 이동방향과 속도 등)에 관한 월별 데이터를 정리해 기록한 자료임. 각 항목별로 매일매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간격으로 6차례 관측한 수치를 기록함. 동시에 5일 단위로 각 시각별 수치를 합하고 평균치를 기록함.
 - 상층기류월보 원부는 매일 1회(8, 9시경)지상부터 상층(4~16km) 사이의 100m 고도별 풍향과 풍속을 세세하게 관측해 기록한 것임. 일사월보는 기상요소별로 세분화해 기록했음.

<기상연보원부 85점>(1904~1961)

- 기상연보원부 57점과 평균풍량운향계산부, 매시기온원부, 무(霧)관측보고, 풍향풍속 계산부 등 28점으로 이뤄져 있음.
- 기상연보원부는 주요 기상항목의 연도별 데이터를 정리해 기록한 자료임. 그 항목은 월별 최대풍속, 월별 평균기온, 일별극값 평균, 월중 일별 극값(30도 이상 월별 일수, 30도 이하 월별 일수), 일교차 최대값, 일평균 기압 변화량, 월별 기온변화, 폭풍, 기압 등을 기록했음. 1939년까지는 기상연보원부였고 1940년부터는 기상연표원부로 이름이 바뀌었음.

<기상누년원부 16점>(1904~1963)

- 기상누년 원부(1904.4~1925)는 각 연도의 월별로 기상항목(기압, 기온, 수증기압, 풍속, 강수량, 지중온도)의 평균치와 최고치 최저치를 비롯해 태풍일수 등을 기록한 자료임.
- 누년원부에는 목포 이외의 전남 여러지역의 기상항목 수치를 비교해놓은 경우도 있음. 목포측후소는 1936년 독립 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정황을 반영하는 관측기록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기상관측야장은 전체적으로 낡은 편임. 특히 1910년대까지의 것이 제본 상태가 많이 약해졌음. 관측야장은 목포측후소 직원들이 매일매일 여러 차례 손에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해야 했기 노후한 상태임. 하지만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음.
- 기상관측월보원부, 기상관측연보원부, 기상관측누년원부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함.
- 그러나 이후 보관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표지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여서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등록신청 대상인 목포측후소 기록물들은 현재 국립기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관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국립기상박물관은 현대 이 기록물 가운데 일부를 전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시나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
- 국내 근대 기상관측에 있어 가장 오래된 자료로, 근대기 우리의 기상관측 관련 내용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물임. 특히 당시 목포와 전남 지역의 기상을 매일매일 모두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기상관측 데이터가 완벽함. 한반도의 근대기 기상 상황과 기상관측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전체적으로 기상 관련 분야에서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자료임.
- 문화재 활용 방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이 자료들의 기본적인 해체와 함께 연구 분석 작업이 시급함. 이 작업이 진행된다면 다채롭고 흥미로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가운데 과학 분야의 기록물로는 해양조사연보, 청강 김영훈 진료일지,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 등이 있음. 이들과 비교해 볼 때, 목포측후소 기록물은 그 가치와 의미에서 손색이 없음.
- 국가기록원에도 목포측후소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립기상박물관 소장 목포 관측소 자료와 비교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부산관측소의 기록물에 대한 조사 및 비교 검토도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

- 1904년 3월 23일부터 1950년대까지 목포측후소의 관측 결과를 담고 있는 기록물로, 국내 기상관측과 기상 연구(기상학)의 초기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줌. 매일, 매월, 매년, 누년의 관측값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음.
- 기상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물임.
- 따라서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등록문화재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이 적절하다고 봄.

1) 개요

- 1904년 3월에 제2목포 임시관측소가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상과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정량적 기상관측이 최초로 수행되었음. 관측자료의 기록(영어, 한글), 관측방법(정시관측, 특별관측, 일사관측, 갑호/을호 관측 등), 관측변수 기록 방식 등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기후 요소들의 관측은 관측 및 기록지침에 의거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
- 목포 관측소 외에도 부산, 인천, 용암포, 원산에 임시관측소를 설치 운용하였으며 이후 성진과 진남포에도 임시관측소를 설치하여 총 7개의 관측소에서 한반도에서의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을 구성함으로써 근대기상업무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목포 임시관측소에선 주로 지정된 시간에 5회(또는 6회)/일 지상의 기압,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을 측정하여 관측일시와 함께 관측값을 일별로 기록(‘기상관측 야장’이라 함)하였으며 관측자의 실명도 함께 제시하여 기록의 신뢰성을 높였음.
- 또한 기상 및 기후자료의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기후요소 자료의 연속성인데 목포 측후소(관측소)의 경우 다른 관측소들에 비해 핵심적인 기후요소 자료의 보존 연속성이 가장 우수함. 특히,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다중 평가할 수 있도록 일별 기록된 기상관측야장, 이들 자료의 월 및 연별로 세밀하게 통계분석한 기상월보원부 및 기상연보원부 그리고 누년원부 등이 대부분 보존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기상관측야장’은 기후요소에 대한 정량적 관측기록과 기상현상을 정성적으로 관측하여 기록한 기사란으로 구성됨. 기압의 경우 수은 기압계로 관측한 것을 기차보정, 중력보정, 온도보정, 해면경정을 수행한 값을 기록(단위: mmHg)하였으며 그 외에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풍향풍속, 강수량, 구름 이동 속도와 방향, 구름 종류와 운량, 수증기압, 상대습도, 최대습도, 최소습도, 지중온도 등을 기록하였음. 기사란에는 강수유무, 안개의 시작과 끝 등 일기현상, 측기의 교체 및 보정, 기차 보정값 변화, 동식물 관측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기록하였음.
- 기상관측야장은 주요 기후요소인 기압, 바람(풍향, 풍속/풍력), 기온(평균, 최고, 최저), 지중온도, 수증기압, 상대습도, 운량, 운형, 강수 특성, 기상현상, 시정(근대 목측과 같이 시정도 활용), 관측자 등에 대해 관측주기별(4시간 또는 3시간 간격)로 기록한 자료임. 일사량 관련해서는 대기상단에서의 이론적 계산값(I_0)과 지상에서의 관측값, 2분 간격의 온도 등을 상세히(소수점 2자리) 기록하였음. 특히,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관측기구의 고도별 오차(예: 최고온도계: 4.0m: +0.1°C; 3.5m: +0.1°C; 3.0m: +0.2°C)를 사전에 평가하여 보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그림 1). 특히 서리, 안개, 낙뢰 등과 같은 주요 기상현상에 대해 시작일과 끝날을 상세히 기록한 점도 기후변화 특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단됨.

Corrections of Instruments			
士官産密ノ教則主 面ハ平均海面ヨリ 6.6米ナリ	at		
.. .. Att. Thermometer	at	40	35
.. .. Dry Bulb Thermometer #3017		00	00
.. .. Wet Bulb Thermometer #3018		+006	+008
.. .. Maximum Thermometer #4281		-003	-005
.. .. Minimum Thermometer #3729		+01	+01
.. .. Max. Solar Radiat. Thermometer			
.. .. Max. Sol. Rad. Therm. in Vacuo			
.. .. Min. Terrest. Rad. Thermometer			
.. .. Raingauge	at		
.. .. Anemometer		X0.97	
.. .. Earth Thermometer	at		
Year 1904. Month March. Day 23 rd			

그림 1. 주요 관측기기의 고도별 오차표

- 비, 눈과 같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24개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록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만국공통의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언비(frozen rain)와 지진과 같이 6개의 현상에 대해서는 고유의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 기상월보원부는 일/5일/월에 대해 관측주기별로 각각 주요 기후요소인 기압, 바람(풍향, 풍속/풍력), 기온(평균, 최고, 최저), 수증기압, 상대습도, 운량, 운형, 강수 특성, 일조시간, 기상현상 및 보충 설명 등을 포함한 자료로 현재 관측자료와 비교하여도 전혀 미흡한 점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특히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세계기상관측 및 기록에 대한 표준화 시행 이전 자료임에도 자료의 기록 및 양식이 현재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매우 짜임새 있게 되어있음. 또한 정시관측(6~8회/1일)외에도 일최고기온 및 일최저기온을 따로 관측하여 기록함(그림 2). 일평균기온 계산시 6회 관측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일최고/최저기온만을 이용할 경우가 다를 수 있음.

(Continued) 29

TEMPERATURE		EXTREME								DAY
°C		Air Temperature °C								
6 p.m.	10 p.m.	Sum	Mean	Max.	Min.	Sum	Mean	Range		
12.0	22	524	8.33	41	34	176	8.75	19	1	
7.7	27	366	6.20	100	47	147	7.25	53	2	
7.9	30	394	6.57	102	31	123	6.15	81	3	
2.3	72	573	8.38	12.6	64	200	10.00	72	4	
7.3	74	542	8.03	14.7	53	202	10.10	92	5	
9.5	24.5	234.9	8.14	15.5	32.1	147.7	8.25	103	Sum	
9.5	24.5	234.9	8.14	15.5	32.1	147.7	8.25	103	Mean	
9.18	23.0	463.1	8.33	12.52	44.20	187.4	8.27	81.00		
12.0	12	639	10.65	17.7	41	217	10.25	157	6	
14.8	12.6	730	12.17	17.7	63	250	12.50	124	7	
14.4	94	790	13.17	15.9	122	281	14.05	37	8	
7.2	26	470	7.83	102	66	16.8	240	2.6	9	
10.4	19	474	7.90	123	30	15.3	260	9.2	10	
10.5	47.7	3108	21.72	240	22.1	182.9	15.345	12.7	Sum	
12.0	9.5	1165	10.64	14.76	26.2	213.2	11.87	10.6	Mean	
7.6	20	4600	7.67	9.6	68	161	8.05	34	11	
11.2	120	683	11.38	11.7	80	21.7	10.75	5.7	12	
8.2	80	670	10.83	15.8	80	23.6	11.50	20	13	
120	104	563	9.87	12.6	77	20.3	10.15	4.9	14	
8.8	26	546	9.10	11.6	81	14.3	9.65	1.9	15	
4.5	6.5	27.7	4.80	6.0	13.9	10.00	5.90	2.3	Sum	
4.5	6.5	27.7	4.80	6.0	13.9	10.00	5.90	2.3	Mean	
10.3	38	528	10.71	11.6	74	190	9.50	42	16	
100	78	608	10.13	14.1	69	210	10.50	70	17	
8.1	31	524	8.52	12.1	20	2.1	10.55	4.1	18	

그림 2. 기상월보원부 예(1904년 4월의 관측주기별 기온 및 일최고/최저기온)

○ 기상연보원부: 야장, 월보 자료를 기반으로 관측시간별, 월별 그리고 기상현상 강도별 (예: 기온 5도 간격, 상대습도의 경우 10% 간격, ...) 빈도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분석한 자료임(그림 3).

Station *Hakhalba* 1904

No. 69		No. 71		No. 73		No. 74		Annual		
Number of Daily Mean Humidity distributed for every 5 mm		Number of Daily Mean Air Temperature distributed for every 0.5 °C		Number of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distributed for every 10 %		Number of Daily Mean Cloud Amount distributed for every 1				
10-20	0	0	0	0	0	0-1	3 2 2 2 2 7 8 4 3			
20-30	0	0	0	0	0	1-2	1 3 2 2 2 1 3 3			
30-40	0	0	0	0	0	2-3	1 2 3 1 1 4 3 1			
40-50	0	0	0	0	0	3-4	0 2 1 4 2 2 4 1 3			
50-60	0 5 5 5 6	0	0	0	0	4-5	1 4 1 3 0 3 1 3			
60-70	4 11 22 21 20 15 2	0	0	0	0	5-6	2 1 1 1 1 2 2 1 1			
70-80	18 12 3 4 15 12 6 4	0	0	0	0	6-7	3 4 6 7 3 2 3 1			
80-90	7 3	0	0	0	0	7-8	3 4 2 2 2 3 3 2			
90-100	1 1	0	0	0	0	8-9	5 5 6 3 1 2 1 2 2			
100-110	0 1 1 1 1 1 1 1	0	0	0	0	>9	11 6 6 2 3 6 4 10			
Sum	37 51 50 51 51 50 51	20 31 20 21 21 20 21	30 17 20 17 17 20 17 20 17	30 17 20 17 17 20 17 20 17	Sum	30 17 20 17 17 20 17 20 17				
No. 70		No. 72		No. 75		First Date		Interval	Last Date	First Date
Number of Daily Mean Wind Velocity distributed for every 2 m. p. s.		Number of Daily Mean Rainfall of Vapor distributed for every 3 mm		Minimum Air Temperature below 0°		Month	Month			
0-2	0 1 1 1 2	0-2	0 0 0 1	Minimum Air Temperature above 30°	4 August	1 August	3	17	December	
2-4	2 5 13 6 13 11 8 5 5	2-4	0 1 0 1 1	Hear Frost	21 August	21 August	1	1	December	
4-6	12 5 7 7 3 8 12 7 7	4-6	0 1 0 1 1	Snow	21 August	21 August	1	1	December	
6-8	4 5 1 9 2 3 6 4 5	6-8	15 5 2 1 1	Snow on ground	21 August	21 August	1	1	December	
8-10	1 1 2 2 2 3 4 2	8-10	17 12 1 1 1	Max. continuation of days with Min. Temp. below 0°	17	17	1	1	December	
10-12	1 1 2 1 2 1 3	10-12	13 12 1 1 1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12-14	1 1 2 1 2 1 3	12-14	2 1 2 1 1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14-16	0 1 1 1 2	14-16	0 1 2 3 3 2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16-18	0	16-18	0 2 2 2 2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18-20	0	18-20	0 2 2 10 4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20-22	0	20-22	0 1 7 5 17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22-24	0	22-24	0 1 1 3 2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24-26	0	24-26	0 0 1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26-28	0	26-28	0 0 0 1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28	0	>28	0 1 0	" " " " " " " " " " " "	17	17	1	1	December	
Sum	30 31 30 31 30 31 30 31	Sum	30 31 30 31 30 31 30 31							

그림 3. 기상연보원부 예(1904. 주요 기후요소별 강도별 빈도분포)

강수량의 경우 강수강도별로 월별 발생 횟수를 기록하였는데 강수 특성이 현재와 매우 다른 해도 있음. 예를 들어 1904년의 경우 4, 5, 11월에 강수일수가 16~17일로 가장 많고 현재 강수가 많은 6월과 8월의 경우 9일과 10일만 내렸음. 또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7, 8월보다 5, 6월에 더 강한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음(그림 4).

1904	Jan	Feb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	Sept.	Oct.	Nov.	Dec.	Sum
No. 28				14	14	22	16	21	18	21	14	17	
0				2	4	2	2	4	6	2	4	3	
1				4	4	2	1	1	4	3	5	3	
2				1	2	1	3	2	2	2	4	2	
3				2	2	0	0	1	0	1	1	1	
4				3	1	1	4	1	0	1	0		
5				4	1	2	2	0	0	0	2		
6				8	0	2	0	0	0	0			
7				1	0	1	1	0	0	1			
8				1	1	1	0	0	0				
9				1	1	0	0	0	0				
10				1	0	0	0	0	0				
11				1	0	0	0	0	0				
12				1	0	0	0	0	0				
13				1	0	0	0	0	0				
14				1	0	0	0	0	0				
15				1	0	0	0	0	0				
16				1	0	0	0	0	0				
17				1	0	0	0	0	0				
18				1	0	0	0	0	0				
19				1	0	0	0	0	0				
20				1	0	0	0	0	0				
21				1	0	0	0	0	0				
22				1	0	0	0	0	0				
23				1	0	0	0	0	0				
24				1	0	0	0	0	0				
25				1	0	0	0	0	0				
26				1	0	0	0	0	0				
27				1	0	0	0	0	0				
28				1	0	0	0	0	0				
29				1	0	0	0	0	0				
30				1	0	0	0	0	0				
Sum				30	31	20	31	31	10	31	20	31	

그림 4. 기상연보원부 예(1904. 월별 강수 강도별 발생 빈도 분포)

- 기상누년원부는 관측이 시작된 1904년 4월부터 기상연보원부를 기반으로 각 연도별 월별 기후요소들의 통계 처리한 자료임(그림 5). 월평균 최고기온이 가장 낮(높)은 달은 대부분 1(8)월이며 1917년(1922)의 경우 1.9(31.98)℃를 기록하고 있음.

地名 木浦
平均最高気温

年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合計	平均
1904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05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0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07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08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09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0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1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2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3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4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5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7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3.2	1.9
1918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19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20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21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39.2	11.6
1922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1.98	383.76	31.98

그림 5. 기상누년 원부 예(일최고기온의 월 및 연도별 평균)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680건)에 포함된 야장, 월보, 연보 및 누년원부 모두 표지 등 일부에서 훼손이 있으나 관측기록 등은 그대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그러나 기록 당시(1900년대 초) 종이 질이 우수하지 않았던 점과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포함한 일정한 수준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은 기록 당시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표지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훼손된 상태임으로 보다 철저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총 680건에 달하는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측면에서 1900년대 초 호남지역의 기상 및 기후특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현대와의 차이 분석을 통해 호남지역에서의 기후변화 특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 특히, 관측자료의 실명제 기록 및 오차보정 등이 철저하게 수행된 점과 관측기후요소 수가 현대 기상학에서 관측하는 요소 수와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대기상학의 시작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가기록원에도 목포측후소(관측소) 관측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국립기상박물관의 기록물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1904년부터 1951년사이의 관측야장의 경우 국립기상박물관에서는 524점이 보관되어 있으나 국가기록원에는 291점만 있으며 특히 월보원부(55점), 연보원부(85점), 누년원부(16)는 국립기상박물관에만 있음.
- 부산 측후소(관측소)에서의 관측자료는 1903년부터 현재까지 1,547점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자료 중 대부분(1,497점)이 관측 야장임. 특히, 연보원부는 확인된 자료가 없으며 월보원부는 39점, 누년원부는 11점에 불과함. 또한 1904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인천측후소 관련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가 누년원부 1점뿐임.

7) 등록가치의견

- 목포 임시관측소에서 1904년 3월 25일부터 정기적으로 관측한 기상정보를 기록한 기상 관측야장, 이를 월 및 연에 따라 정리한 월보원부, 연보원부 등 총 680건은 근대식 기초 기상관측자료라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현대와 유사하게 기온, 강수, 바람, 기압, 등 다수의 기후요소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측한 점(4회 또는 6회/일),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한 점, 기상현상 발생 특성(현상 유형, 강도, 일시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점 그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뿐만 아니라 본 관측기록은 우리나라 근대기상 100년사의 시작이었기에 우리나라 기상업무 자료로써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또한 남서해안 지역에 대한 1900년대 초 기상기록 자료는 기후학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임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임.

- 일부 결측이 있고 누년원부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누년원부의 경우 월보원부나 연보원부를 활용하여 재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자료로서 활용하는데 큰 장애 요인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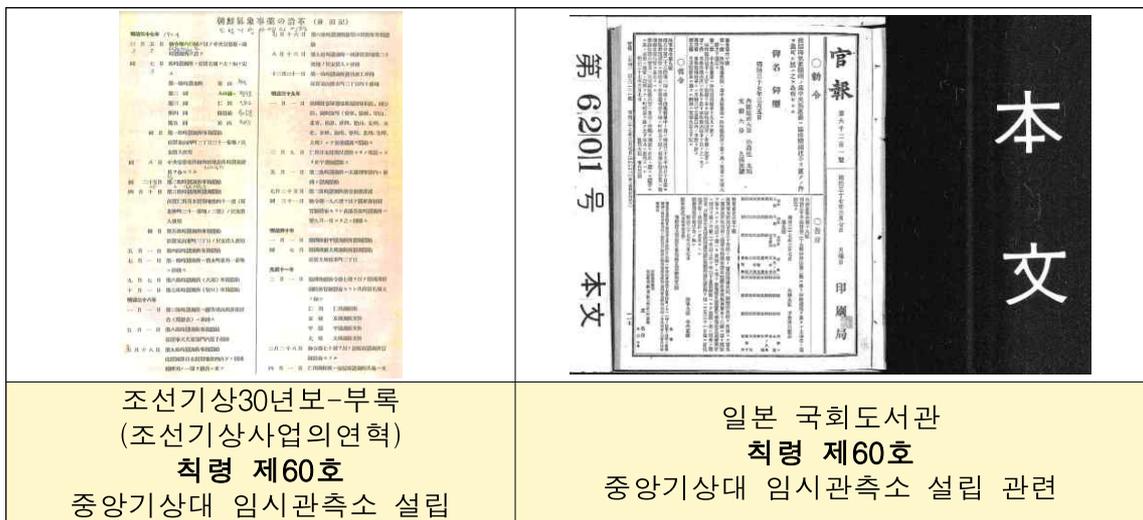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이 명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1) 개요

- 우리나라의 근대 기상업무는 1884년 인천세관과 원산세관에 기상관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1887년 부산세관에서도 관측을 시작하여 인천, 원산, 부산 기상관측소 업무를 1903년까지 수행하였음.
- 대한제국기에 우리나라에서 대립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일본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기상업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은 1884년부터 상기와 같이 관측을 시작하여 일본 기상예보에 활용하였으며, 러시아는 1887년부터 경성 러시아 공관에서 관측을 시작하였음.
- 러일전쟁이 시작되면서 1904년 3월 대한제국 칙령 제60호로 일본 중앙기상대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하는 관제를 공포하여 제1(부산), 제2(목포), 제3(인천), 제4(용암포), 제5(원산) 등 5곳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하고, 그 후 성진과 진남포에도 임시관측소를 설치하여 모두 7곳에서 기상관측을 하였음



조선기상30년보-부록
(조선기상사업의연혁)
칙령 제60호
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 설립

일본 국회도서관
칙령 제60호
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 설립 관련

- 목포(임시)관측소는 1904년 3월 25일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에서 처음으로 정규 기상 관측을 실시함으로써 근대 기상의 관측이 시작되었음. 목포측후소는 부속 섬인 옥도(玉島)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섬 모양이 ‘옥(玉)’ 자처럼 생겨 조선 시대의 기록에서는 ‘구슬도’라 불렸으며, 목포진의 8군데 요망 대의 하나일 정도로 해로의 요충지였음. 특히, 대한제국기에 일본은 옥도 주변 해역을 ‘팔구포라 부르며 일본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였는데, 일본군은 1904년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에 의해 하의면 옥도(팔구포)에 제2 목포(임시)관측소를 설치하였음.
- 한편, 세계적으로 1873년 각국의 기상청 책임자로 구성된 국제기상기구(IMO)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세계기상협약을 채택하여 1950년 UN에 의해 세계의 기상관측 체계 수립,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정보의 국제 교환, 다른 분야에 대한 기상학의 응용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가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목포측후소의 기상 관측 기록은 1904년 3월 25일부터 시작하여 관측야장 524점,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의 총 680점으로 되어 있는데, 개항 이후 조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기상관측의 표준에 준하는 기압,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목포측후소의 관측 기록은 일본인에 의해 관측과 기록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근대 기상 관측 기록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더불어 관측 요소, 관측 자료, 통계 자료의 형태와 보존이 우수하여 기상학, 기후학, 역사학, 기록학 측면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우수함.
- 기상 관측의 연속성, 업무의 일관성 등 최초의 기상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임
- 기압계, 우량계 등의 측기로 정량적 과학적기법에 의한 전국적인 관측망 구축과 현재와 비슷한 정규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04년의 유일한 자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관측야장 524점,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으로 구성된 목포(임시)관측소의 기상관측 기록은 관측일의 시간별 기록으로부터 매월의 일평균값, 매년의 월평균값, 여러 해의 누적된 월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관측야장, 월보원부, 연보원부, 누년원부는 관측과 통계 자료의 구성으로 **일제 강점기 기상과 기후에 대한 연구에 가치가 매우 높음.**
- 관측야장 524점은 1904년 3월 25일부터 1945년 12월까지 1일 4회 기압, 풍향, 풍력(보퍼트 풍력 계급), 강수, 구름의 이동 방향과 종류, 풍속, 구름의 유형과 양,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수증기장력(압), 상대습도, 지면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으며 기사란에는 일기현상 및 기호, 측기의 교체 및 보정, 기차보정값 변화, 동식물 관측 결과 등을 기록하였으며, 1940년 4월부터 1941년까지 일사량을 관측한 일사관측 야장이 있으며 일본인 관측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였음.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이후에도 12월까지 관측이 기록되었으며, 이후에도 1951년 1월까지의 관측이 기록되어 있음.

- 관측야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1904년 3월 25일 6시 최초의 공식 관측이 이루어졌는데 기압은 762.56 mmHg, 바람은 북서풍으로 보퍼트 풍력계급 3이었으며, 풍속은 1.5 ms^{-1} , 건구온도(기온) $3.5 \text{ }^{\circ}\text{C}$, 습구 온도 $2.8 \text{ }^{\circ}\text{C}$, 수증기장력(압) 5.12 mm, 상대습도 87%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기압은 수은 기압계로 관측하였는데 관측 후 기차보정, 중력보정, 온도보정, 해면 경정 순으로 가감하여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일사관측야장의 기록에서는 관측 시각, 남중시, 직태양시, 방위각, 태양의 적위와 같은 정보와 일사량 그리고 운량, 운형,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수증기장력(압)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 월보원부 55점은 1904-1945년뿐 아니라 이후 1953년까지의 1일에 6회 (오전 2시, 6시, 10시, 14시, 18시, 22시) 측정된 기압, 풍향, 풍속, 기온, 수증기장력(압), 습도, 구름의 형태와 양, 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가 기록되어 있음. 1904년 3월의 월보에서는 3월 25일 관측 시작일로부터 31일까지 일별 수증기장력(압), 상대습도, 운량, 강수량과 각각 월평균 기온 $7.38 \text{ }^{\circ}\text{C}$, 수증기장력(압) 5.99 mm, 상대습도 78.7%, 운량 5.6, 강수량 0.1 mm(누적)이 기록되어 있음. 기사란에는 일별 기상요소 측정값에 대해 기호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음. 또한, 1916-1948년 동안 전남지역에 대한 관내월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 단위의 지역에 대한 기상 관측 자료를 여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추후 연구의 가치가 큼.
- 연보원부 85점은 1904-1945년뿐 아니라 이후 1961년까지 1일 6회의 관측값과 월별 평균값을 기록하고 있음. 평균값은 1일 6회 관측시간 중 주관측시각에 해당하는 06시, 14시, 22시의 값을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관측소의 자료가 일, 월, 연단위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누년원부 16점은 1904-1937년까지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구름양, 수증기장력(압) 등 기상 요소별로 매년 누적된 월 평균값이 기록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관측야장, 월보원부, 연보원부, 누년원부는 국립기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110 여 년 전 기상관측체계와 측정 및 통계 자료로써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보존을 위한 전문 적인 보존처리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상태임.
- 현재는 기록물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 스티커 또는 청테이프 등이 활용이 되고 있어 추가 적인 훼손의 우려가 있음.
- 보존과학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안정적인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점차적으로 소장품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보존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박물관 보존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기상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보존과학적인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보존 상태는 표지와 일부 내용이 훼손되어 있으나, 소장처가 국립기상박물관으로 보존관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유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전시에 활용하여, 근대 기상관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 유물에 기록된 기상정보가 현대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관측자료를 분석·연구하여, 과거 호남지역은 기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함. 또한 이를 현재 기후와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목포측후소에서 1904년 4월 1일부터 1930년 12월 31일까지 측정한 관측야장 291점과, 1951년 11월 3일부터 1963년 1월 31일까지 측정한 관측야장 497점을 보유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본 목포측후소의 기상관측에 대한 관측야장, 월보원부, 연보원부, 누년원부는 문화재 등록에 관한 공통 지침인 원형 유지와 희소성을 갖추고 있음
- 특히, 목포(임시)관측소의 기상관측 자료는 개항기 이후 우리나라 근대 기상 관측 시작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료가 현재 기상 관측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공공 활용의 가치를 갖고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임시)관측소는 목포측후소로 하며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로 기상관측야장, 기상월보원부, 기상연보원부, 기상누년원부로 등록하는 것을 제안함.

첨부 1~4. 기상관측야장, 기상월보원부, 기상연보원부, 기상누년원부 번역본

첨부 5~8. 기상관측야장 기상월보원부, 기상연보원부, 기상누년원부 사진 각각 4장

첨부 1. 기상관측야장 번역본

관측년(1904)_ 관측월(4)_ 관측일(8)_ 관측시각(오후3).

관측소명(목포)

관측자 이름/이니셜

고도 (m)	기압 (mm)①	바람		강우량 (0.1mm)	구름		Wr.	구름		풍속 (m)
		풍향	계급		운량 (m)	운속 (m/s)		운형	운고 (m)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수증 기압	상대 습도.	S.R.Th. Read. 관측값		S.R.Th.V. Read. 관측값		T.R.Th Read. 관측값		포화 수증 기압
최고기온		최저기온		지중온도						
시도	관측값	시도	관측값							
하늘상태 (현상 번호)	기사란(관측기간 나타난 기상현상(강우, 강설, 안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결빙, 이슬, 낙뢰 등)을 기록									

※ 수은주높이(m)① : 기압 관측값으로 수은주 높이 0.10mm로 기압을 관측하여 기록 (예를 들어서...) 수은주 높이 760.00mm는 76cm×13.6=1033.6mb(밀리바).
=1033.6hPa(헥토파스칼).

※ 지중온도 관측은 통상 0.0, 0.05, 0.1, 0.15, 0.3미터까지는 곡관지중온도계 관측하고, 0.5미터 이상 지중온도는 철관지중온도계 관측

첨부 2. 기상월보원부 번역본

No. 17		반순별 절대습도(g/m ³ → 절대습도)													
일	3월							...	12월						
	오전2시	오전6시	...	오후6시	오후10시	합계	평균		오전2시	오전6시	...	오후6시	오후10시	합계	평균
1															
2															
합															
계															
평															
균															
3															
4															
5															
6															
7															
합															
계															
평															
균															
8															
9															
:															
30															
31															
합															
계															
평	64.9	64.7	65.9												
균	4	8	6	65.24	65.00	65.	65.								
						98	31								

※ 절대습도 통계는 1960년대(?) 이후 기상월표원부 및 기상월보의 통계항목에서 제외함

※ 10월을 기준으로 11월 12월은 같은 패턴임

월, 일 구분과 함께 julian-day(365일 총 일수)기법으로 통계하여 작성

(1) 10월 1, 2일아래 합계, 평균은 전달(9월) 28, 29, 30일이 반순(5일간)에 연속한 것임
이것은 10월 28, 29, 30, 31이 11월 1일과 연속한 것과 같음.

(우측)

(관측소: 목포)

(연도: 1904)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No. 15 일평균기온 변화량(섭씨온도)													
1													
2													
⋮													
30													
31													
합계													
평균													
No. 16 월별 기온변화 및 빈도(섭씨 온도)													
기온폭													
\ 변화편차	+	-	s										
2도 이상													
2~4도													
4~6도													
6~8도													
8도 이상													
변화량													
합계													

※ s : 표준편차

※ 1월과 같이 2~12월도 3칸(+, -, s)씩 나누는 것을 생략하였음.

첨부 4. 기상누년원부 번역본

(좌측)

頁(엽/페이지)	項目(항목)
134	7, 8월 운량(구름의 양)
135	9, 10월 운량(구름의 양)
136	11, 12월 운량(구름의 양)
137	1, 2월 풍속도(바람의 속도)
138	3, 4월 풍속도(바람의 속도)
139	5, 6월 풍속도(바람의 속도)
140	7, 8월 풍속도(바람의 속도)
141	9, 10월 풍속도(바람의 속도)
142	11, 12월 풍속도(바람의 속도)
143	1, 2월 강우량
144	3, 4월 강우량
145	5, 6월 강우량
146	7, 8월 강우량
147	9, 10월 강우량
148	11, 12월 강우량
149	
150	

첨부 5. 기상관측야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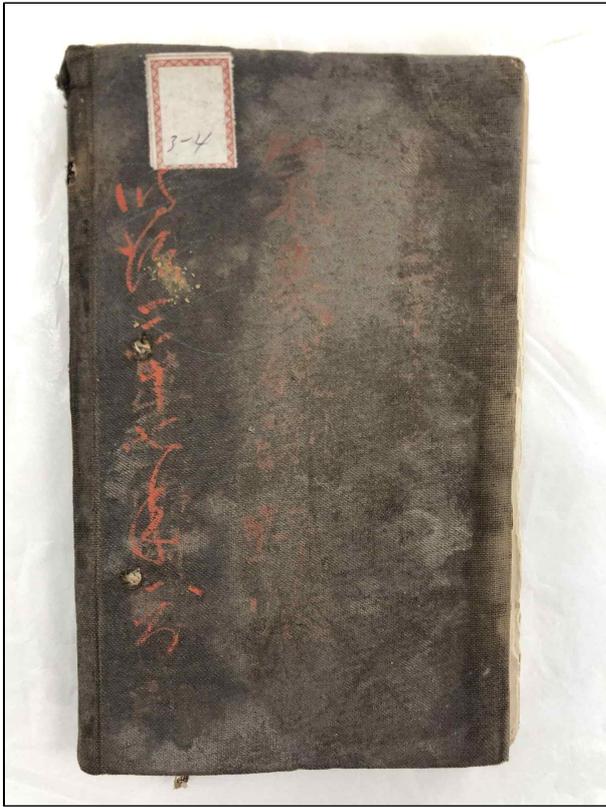


사진 1. 1904년 3-4월 야장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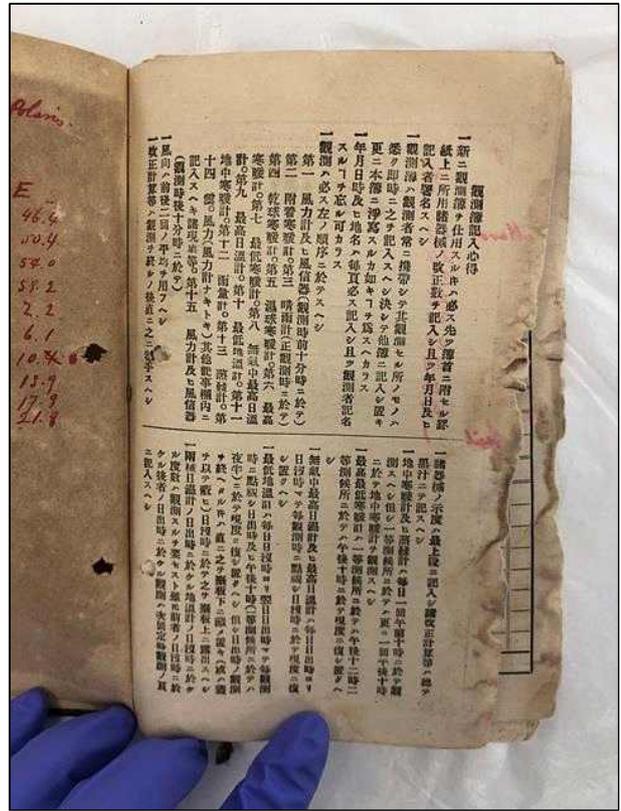


사진 2. 1904년 3-4월 야장 관측지침

For 1. Month Mar Day 25 Time 10a m.

Station Hannoko Observer K.T.

Wind Locality	Barom.	Wind		Precip.	Cloud		Wr.	Cloud		Wind Velocity
		Dir.	For.		Dir.	Sp.		F.	A.	
137	1013.0	N	1	—	—	—	—	—	—	1120
110	1012.5	N	1	—	—	—	—	—	—	1100
10	1012.0	N	1	—	—	—	—	—	—	1080
15	1011.5	N	1	—	—	—	—	—	—	1060
50	1011.0	N	1	—	—	—	—	—	—	1040
Wet. Th.	1010.5	N	1	—	—	—	—	—	—	1020
Wet. Th.	1010.0	N	1	—	—	—	—	—	—	1000
Wet. Th.	1009.5	N	1	—	—	—	—	—	—	980
Wet. Th.	1009.0	N	1	—	—	—	—	—	—	960
Wet. Th.	1008.5	N	1	—	—	—	—	—	—	940
Wet. Th.	1008.0	N	1	—	—	—	—	—	—	920
Wet. Th.	1007.5	N	1	—	—	—	—	—	—	900
Wet. Th.	1007.0	N	1	—	—	—	—	—	—	880
Wet. Th.	1006.5	N	1	—	—	—	—	—	—	860
Wet. Th.	1006.0	N	1	—	—	—	—	—	—	840
Wet. Th.	1005.5	N	1	—	—	—	—	—	—	820
Wet. Th.	1005.0	N	1	—	—	—	—	—	—	800
Wet. Th.	1004.5	N	1	—	—	—	—	—	—	780
Wet. Th.	1004.0	N	1	—	—	—	—	—	—	760
Wet. Th.	1003.5	N	1	—	—	—	—	—	—	740
Wet. Th.	1003.0	N	1	—	—	—	—	—	—	720
Wet. Th.	1002.5	N	1	—	—	—	—	—	—	700
Wet. Th.	1002.0	N	1	—	—	—	—	—	—	680
Wet. Th.	1001.5	N	1	—	—	—	—	—	—	660
Wet. Th.	1001.0	N	1	—	—	—	—	—	—	640
Wet. Th.	1000.5	N	1	—	—	—	—	—	—	620
Wet. Th.	1000.0	N	1	—	—	—	—	—	—	600
Wet. Th.	999.5	N	1	—	—	—	—	—	—	580
Wet. Th.	999.0	N	1	—	—	—	—	—	—	560
Wet. Th.	998.5	N	1	—	—	—	—	—	—	540
Wet. Th.	998.0	N	1	—	—	—	—	—	—	520
Wet. Th.	997.5	N	1	—	—	—	—	—	—	500
Wet. Th.	997.0	N	1	—	—	—	—	—	—	480
Wet. Th.	996.5	N	1	—	—	—	—	—	—	460
Wet. Th.	996.0	N	1	—	—	—	—	—	—	440
Wet. Th.	995.5	N	1	—	—	—	—	—	—	420
Wet. Th.	995.0	N	1	—	—	—	—	—	—	400
Wet. Th.	994.5	N	1	—	—	—	—	—	—	380
Wet. Th.	994.0	N	1	—	—	—	—	—	—	360
Wet. Th.	993.5	N	1	—	—	—	—	—	—	340
Wet. Th.	993.0	N	1	—	—	—	—	—	—	320
Wet. Th.	992.5	N	1	—	—	—	—	—	—	300
Wet. Th.	992.0	N	1	—	—	—	—	—	—	280
Wet. Th.	991.5	N	1	—	—	—	—	—	—	260
Wet. Th.	991.0	N	1	—	—	—	—	—	—	240
Wet. Th.	990.5	N	1	—	—	—	—	—	—	220
Wet. Th.	990.0	N	1	—	—	—	—	—	—	200
Wet. Th.	989.5	N	1	—	—	—	—	—	—	180
Wet. Th.	989.0	N	1	—	—	—	—	—	—	160
Wet. Th.	988.5	N	1	—	—	—	—	—	—	140
Wet. Th.	988.0	N	1	—	—	—	—	—	—	120
Wet. Th.	987.5	N	1	—	—	—	—	—	—	100
Wet. Th.	987.0	N	1	—	—	—	—	—	—	80
Wet. Th.	986.5	N	1	—	—	—	—	—	—	60
Wet. Th.	986.0	N	1	—	—	—	—	—	—	40
Wet. Th.	985.5	N	1	—	—	—	—	—	—	20
Wet. Th.	985.0	N	1	—	—	—	—	—	—	0

Max. Th. 11.5 Min. Th. 7.6

Earth Thermometers

Read. Set. 50

REMARKS

사진 3. 1904년 3월 25일 야장 관측 기록

첨부 6. 기상월보원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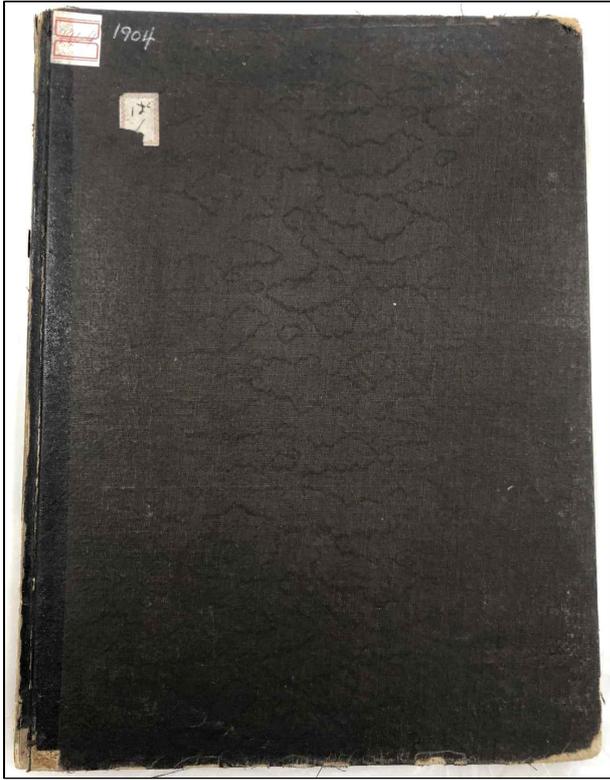


사진 1. 1904년 3월 월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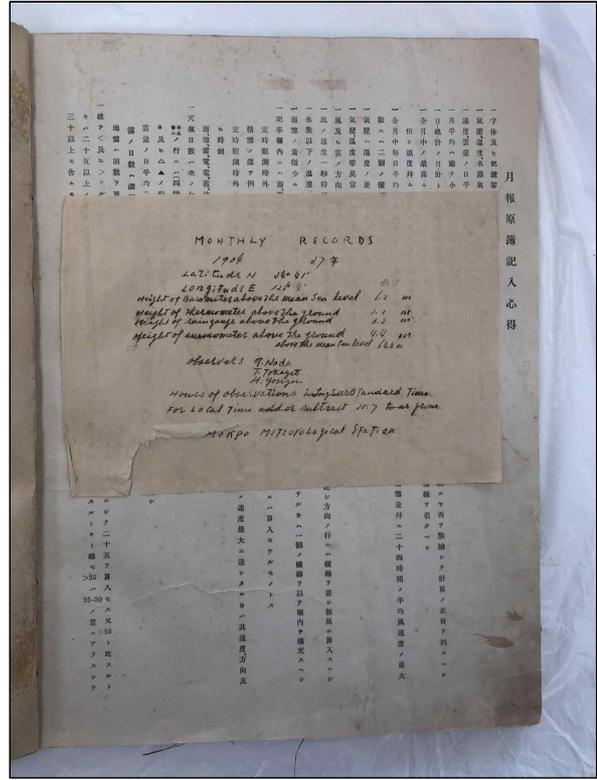


사진 2. 1904년 3월 월보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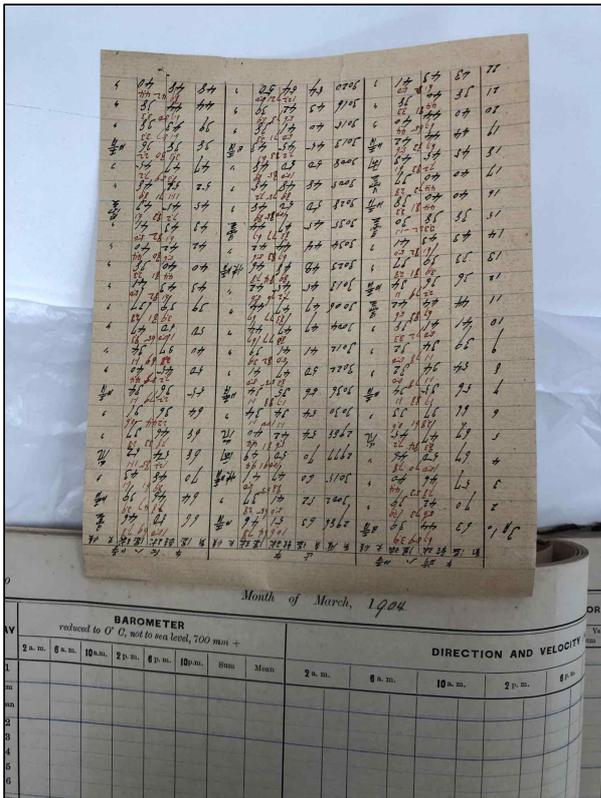


사진 3. 1904년 3월 월보 1면(뒷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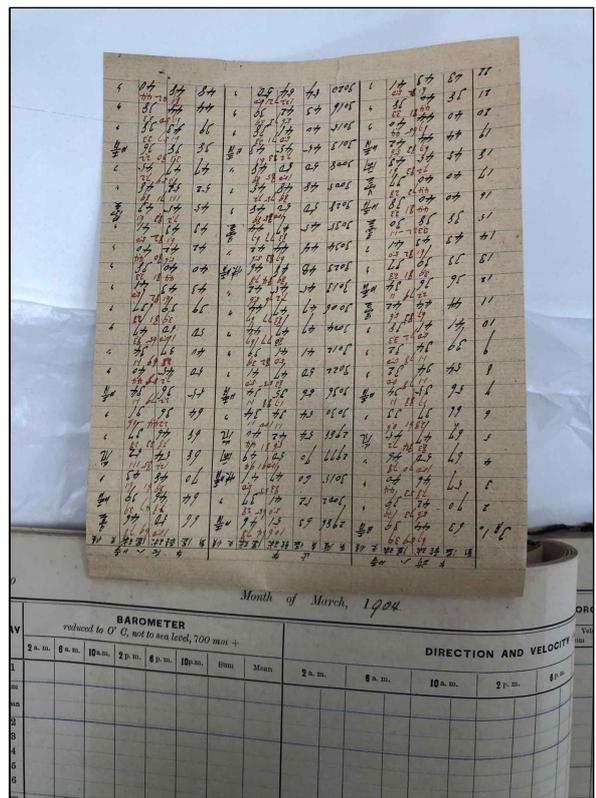


사진 4. 1904년 3월 월보 마지막 면

첨부 7. 기상연보원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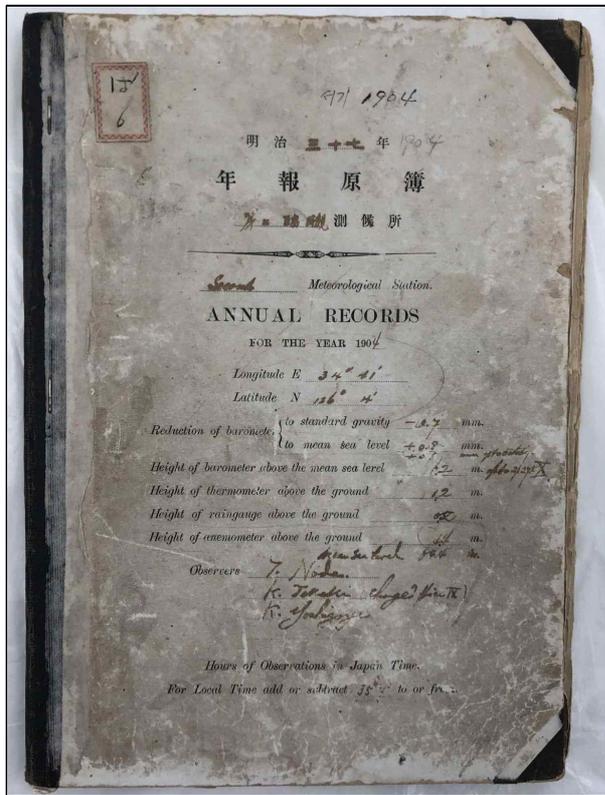


사진 1. 1904년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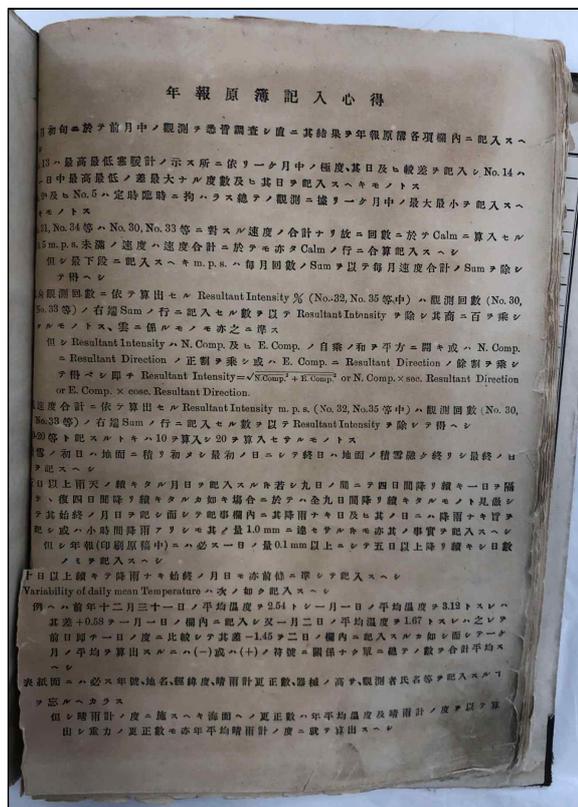


사진 2. 1904년 연보 기입심득(일러두기)

Station *Satsicho* 1904

Month	Jan.	Feb.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	Sept.	Oct.	Nov.	Dec.	Annual
No. 1 Barometer reduced to 0° C, not to sea level, 700 mm +													
2 am													
6 am													
10 am													
2 pm													
8 pm													
10 pm													
Sum													
Mean													
No. 2 Extremes of Barometer (mm)													
Max.													
Time Day													
Min.													
Time Day													
Range													
No. 3 Extremes of Barometer (mm) in 6 Obs. Daily													
Max.													
Day													
Min.													
Day													
Range													
No. 4 Wind Velocity (m. p. s.)													
2 am													
6 am													
10 am													
2 pm													
8 pm													
10 pm													
Sum													
Mean													

사진 3. 1904년 연보 1면

Station *Satsicho* 1904

Month	Jan.	Feb.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	Sept.	Oct.	Nov.	Dec.	Annual
No. 5 Total course of Wind.													
Dir.													
W.S.													
No. 6 Max. Velocity of Wind (m. p. s.)													
Max.													
Direction													
Day													
No. 7 Max. Velocity of Wind (m. p. s.) in 6 Obs. Daily													
Max.													
Direction													
Day													
No. 8 Number of days with Wind force > 4													
4													
5													
6													
Sum													
No. 9 Monthly Mean Velocity (m. p. s.) of Wind from													
N													
NNE													
NE													
NSE													
E													
ESE													
S													
SSE													
SE													
SSE													
S													
SSW													
SW													
WSW													
W													
WSW													
WNW													
W													
WNW													
WNW													

사진 4. 1904년 연보 2면

첨부 8. 기상누년원부 사진



사진 1. 1904년 누년원부 표지

地名 未湊
平均水蒸氣壓力

月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合計	平均
190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	10

사진 2. 1904년 누년원부 내지

地名 未湊
平均最高氣溫

月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合計	平均
1904	4	4	4	4	4	4	4	4	4	4	4	4	48	4

사진 3. 1904년 누년원부 5면

地名 未湊
最高氣溫 $^{\circ}\text{C}$

日	初日		終日		初時	終時	最大總日數							
	月	日	月	日			年	日	年	日	日			
1	1	1	1	1										

사진 4. 1904년 누년원부 117면

8.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8.2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0.8.)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학교법인정의학원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내
- 소유자 : 학교법인정의학원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61년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459.15m²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6.25.) : 근현대 교육시설 목록화 조사 결과 등록 권고(문화재청 → 서울 노원구)
※ 2013 근현대 교육시설 목록화 조사 완료(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B등급)
- ('18.8.2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노원구 → 문화재청)
- ('21.10.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3.22.) : '22년 제3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보류'(건물연혁, 역사 등 고증자료 보완)
- ('22.3.23.) : 보완자료 제출 요청(문화재청 → 노원구)
- ('22.4.26.) : 보완자료 제출(노원구 → 문화재청)
* 서울여자대학교 건축물 연혁(증·개축 관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 양식으로 신축된 대학본부 건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으나 건축적 내력 등 고증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신청 대상 건물과 유사한 보편적 특징을 보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10.8.)

- 광복 후 사학의 대학본부 건물이 지어지며 다양한 모색과 실험을 하였던 사례 중에 남아 있는 유구라는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설계자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점은 앞으로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밝힐 필요가 있음.
- 외부: 외벽 및 외관
- 내부: 건축구조적 요소(기둥, 벽체마감 등: 현재의 내부 마감재 교체시기가 도래하면 해체 후 원형을 복구하여 규모별 강의실, 행정실의 원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상 및 시설물: 준공당시의 옥상 모습이 잘 남아 있으며, 현재 옥상정원의 식물들에 대하여 “무관리 상태 생태계 조사”의 실험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10.8.)

- 동 건물이 서울여자대학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성이 인정되며, 보존·관리 상태 역시 비교적 양호하여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산물로서도 그 가치가 제고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수직적 요소의 강조를 위해 정면 주출입구 캐노피 및 그 상부에 설치한 수직루버의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실시한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용역(교육시설)’ 결과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B등급)되었음.
- 다만, 동 건물이 비록 시·도등록문화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 신청된 것이기는 하나, 건축적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보편적 특징을 보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등록된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재전문위원 ○○○('21.10.8.)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은 1961년에 건립되어 시기적으로 등록문화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학에 상징적인 건물로서 건축적 측면에서 교육

시설이 갖는 기능성과 당시 유행하던 수직·수평성 강조한 모더니즘 양식에 조형적 요소가 강조된 건물임.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1960년대 대량으로 건축된 교육시설이 갖는 평면계획의 보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장조사 결과, 건축 당시에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물로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건립시기에 따른 문화재 등록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대상 건물에 역사와 연혁을 이해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부족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 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구) 서울여자대학교 본관
2. 용 도 : (현) 교육연구시설 (원) 교육연구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4. 소유자 : 학교법인 정의학원(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61년
 - 수량 및 면적 : 1동 / 지상4층(지하 보일러실), 연면적(3,459.15㎡)
6. 조사자 의견('21.10.8.)

<문화재위원 ○○○>

1) 개요

- 서울여자대학교는 1950년 후반에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여자대학 설립을 결의함으로써 1960년 12월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교계와 국제적인 헌금과 후원으로 1961년 4월 본관과 제1생활관을 건립함으로써 개교하여 오늘에 이른다.
- 사회학과, 가정학과, 농촌과학과, 기독교교육과 등을 개설하여 광복, 한국전쟁 후 민주사회를 향해 가는데 여성이 실제 사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질적 분야의 지식을 전하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기 예산은 교계의 후원에서 비롯되었다.
- 이번에 신청된 건물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워진 사학의 설립초기 유구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평면은 T자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복도를 뒤쪽에 편복도로 배치하였다.
- 중앙의 현관을 들어서면 진입방향으로 이어지는 중앙계단을 통하여 위층으로 오르게 되며 복도의 좌우 양끝에도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원래 중앙현관은 지금의 위치보다 안쪽에 설치돼 있었으나 현관홀의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출입문을 바깥 쪽으로 옮겼다.
- 현재는, 중앙계단실의 뒷부분을 회의실들(1, 2, 3층)과 휴게실(3층 일부), 문서보관실(4층)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준공 당시에는 대형강의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초기에는 총장실을 비롯한 행정기능과 강의실들이 배치되었으나 계속되는 교사와 부속시설 증축으로 강의기능은 다른 건물로 옮겨 가고 현재는 행정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 건물 외벽은 화강석 완자문양으로 마무리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 고전주의 양식의 대학건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직육면체의 매스를 정교한 비례로 엮은 후에 창을 대담하게 큰 면적으로 설치한 모더니즘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 좌우로 긴 본체 중앙부를 약간 돌출시켜 외부에 폭넓은 수직 띠(멀리언)를 촘촘히 내려서 지루한 외관에 액센트를 주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계 단실 뒤쪽의 대형공간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우선 1층의 외벽보다 2, 3, 4층의 외벽이 양쪽으로 1.5m 정도 내밀게 하여 그 외부에도 각층마다 수직을 강조하는 불임기둥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창문 위의 인방을 활용하여 캐노피를 두어 수평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더욱 짜임새 있게 이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 이 건물의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술이 보편화하면서 종전의 트러스 경사지붕에서 탈피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평지붕을 설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부는 원형을 잘 보존되어 있다.
- 내부는 전면적으로 마감재료에 변화가 있어, 원형은 가려져 있지만 마감재를 해체하면 원형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옥상은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본 행정동을 중심으로 전면의 운동장, 스탠드, 체육관 등 캠퍼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물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개교 초기에 자활적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흙벽돌을 자체 제작하여 축조한 생활관의 유구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교 초기의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다수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총장실과 행정부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학행정 본부시설로 계속 용도 유지할 계획으로 별도의 특별한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대학의 행정동 또는 본관이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것 중, 광복 후에 건립된 것은 광주 조선대, 부산대학교 구 본관, 광주 대건신학교,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 경희대학교 본관, 한양대학교 본관 등이 있다.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동은 대학교 건물들이 고전주의 건축양식에서 벗어나는 1960년대 초반의 변화현상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위의 6)번의 사유로 본 신청건은 광복 후 사학의 대학본부 건물이 지어지며 다양한 모색과 실험을 하였던 사례 중에 남아 있는 유구라는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설계자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점은 앞으로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밝힐 필요가 있다.

- 외부: 외벽 및 외관
- 내부: 건축구조적 요소(기둥, 벽체마감 등: 현재의 내부 마감재 교체시기가 도래하면 해체 후 원형을 복구하여 규모별 강의실, 행정실의 원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상 및 시설물: 준공당시의 옥상 모습이 잘 남아 있으며, 현재 옥상정원의 식물들에 대하여 “무관리 상태 생태계 조사”의 실험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 서울여자대학교 행정동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 신청된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건물은 1961년 서울여자대학교가 개교될 당시 본관(본부)으로 건립된 것으로 1960년 착공하여 다음해 3월에 완공되었음. 2004년 5월 행정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현재 총장실과 교무처, 사무처, 기획처, 입학처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음.
- 서울여자대학교는 195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여자대학 설립을 청원하여 1958년 7월 재단법인 정의학원으로 인가를 받아 1961년 4월 15일 개교하였음.
- 학교측 시설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오늘날 개교 당시 준공된 건물이 여러 동 현존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증·개축 등으로 본래의 모습이 훼손된 반면, 동 건물은 비교적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 동 건물은 2017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용역(교육시설)’ 결과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B등급)되기도 하였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중앙부에 위치한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배면 중앙부와 좌우측 양끝에는 일정 규모의 공간을 덧달아내어 전체적으로는 ‘山’의 형상을 취하고 있음.
- 입면은 기본적으로 지상3층(지하 일부 공간에 보일러실이 있음)으로 구획되었지만, 배면 중앙부에 덧붙여진 공간의 경우 옥상 상부까지 연장되어 별도의 4층 공간을 구성하였음.
- 주출입구 앞에는 포치를 두었고 그 상부에는 3층까지 이어지는 수직 루버를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중앙부와 함께 양쪽 단부를 전면으로 약간 돌출시켜 횡방향으로 길게 놓인 건물의 단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입면의 변화를 주었음.

- 내부는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 실들을 일렬로 배치하였고 이에 면하여 뒷편으로는 편복도를 길게 두었으므로 중앙 계단 및 건물 양쪽 끝에는 계단실을 두어 1층에서 3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음.
-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체는 내·외부 마감재 등으로 인해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 기록사진에서 확인되는 보·기둥부의 결구와 함께 현재 천정 마감재 아래로 일부 노출되어 있는 헌치 등의 부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에 화강석 돌 붙임을 하여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음.
- 내부공간은 여러 차례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호를 포함한 수장 및 마감재의 변경이 다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구조체의 변형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최초 건립 당시 각 실의 용도와 기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신축 당시 작성된 도면이 남아 있지 않아 원형보존 및 변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나, 관련 사진자료 및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구조체의 큰 변형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총장실과 교무처, 사무처, 기획처, 입학처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다만, 옥상에 다수의 실험용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될 경우 옥상 슬라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동 건물이 교직원들 사이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고 있는 등 보존·관리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며 현재도 계속해서 대학본부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멸실 및 훼손의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학교측에서는 동 건물을 역사적 산물로서 최대한 구조적 변형 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할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학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교육연구시설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한 일종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관리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학교 등 교육시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틀 속에서 교육 및 활용의 목적으로 보존·관리 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건물이 서울여자대학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성이

인정되며, 보존·관리 상태 역시 비교적 양호하여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산물로서도 그 가치가 제고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수직적 요소의 강조를 위해 정면 주출입구 캐노피 및 그 상부에 설치한 수직루버의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실시한 ‘근현대 건축 시설 일제조사 연구용역(교육시설)’ 결과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B등급)되었음.
- 다만, 동 건물이 비록 시·도등록문화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 신청된 것이기는 하나, 건축적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보편적 특징을 보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등록된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서울여자대학교 구 본관」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서울여자대학교는 1956년 예수교장로회에서 기성회를 조직하여 1960년 설립인가를 받아 1961년 개교한 사립종합대학임
- 신청대상인 행정동은 1961년 3월 본관 건물로 완공되었으며 2004년 행정관으로 건물명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현재 행정동은 서울여자대학교 내 앤더슨기념관 및 국제생활관과 함께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로, 건물의 구조와 외형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음.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행정관은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장방형의 긴 평면을 갖고 있다. 3층 규모의 장변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 계단실과 연결된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4층 규모의 건물이 북측으로 돌출됨에 따라 전체 건물은 ‘T’자형에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물의 전면 중앙부에 현관이 위치하고 길게 돌출된 캐노피 위로 전면 파사드는 2층에서부터 건물 최상단 슬라브까지 콘크리트로 돌출된 수직 루버를 설치하여 건물의 중앙부에 수직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당시 교육시설이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모더니즘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수직·수평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면은 편복도형으로 복도의 남향에 실이 배치되는 기본적인 교육시설에 평면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 북측으로 돌출된 공간은 계단실 좌측에 실별 출입구를 두고 있음.

- 건물에 수직 동선에 배치되는 중앙 계단실과 건물 배면의 좌우측 끝단에 계단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 계단실과 일부 실내 천정에 노출된 보와 헌치구조 등 당시의 건축에 주로 사용되던 구조적 특징이 잘 남아 있음.
- 외벽 전체 마감은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대학본부로서 본관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표현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중앙출입구 방풍실 설치, 1층 홀 등은 인테리어로 마감재가 덧대어지고, 창호 및 천정마감, 도장 등 행정관이 사용되면서 진행된 개보수로 인한 변경 부분이 확인되나, 건물의 외형과 평면, 구조적 특징 등 건축적 요소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지붕에는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과 방부목을 바닥에 설치하면서 현재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건물 지붕에 일부 균열 등 노후화 진행이 확인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 행정관을 비롯해 대학 설립 이후 건립된 50년 이상된 건물이 남아 있고, 교육시설의 행정시설로 사용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보존여건을 갖추고 있음.
- 캠퍼스 주변으로 태릉과 육군사관학교 등 문화재 보존 및 경관적 저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교육시설로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차원에 보존관리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에 부합된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서울여자대학교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건물로서 등록신청에 따른 보존과 활용 의지가 있다고 판단됨.
- 신청서 상에 부재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된다면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 건물과 관련된 설계자와 시공자 등에 대한 정보와 연혁 등이 부재하여 고증과 비교 검토가 가능한 자료 확보가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기고등학교 본관(현 정독도서관, 등록문화재 제2호)은 1938년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벽돌로 벽을 쌓아 올린 3층 건물로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에 중앙을 강조한 전형적인 학교 건물로 주현관의 곡면부처리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의 창호 등 철근콘크리트조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을 갖음.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 대학(등록문화재 제736호)은 1958년 건축가 이천승의 설계로 건립된 건물로, 충남대학교 내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전체적인 외관은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건물의 출입구가 중앙이 아닌 우측면 필로티를 통해 진입하는 등 독특한 평면형태를 보여주는 건물임.
- 상기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해당 교육시설을 대표하는 건물이며, 근대 시기에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관련 건축가와 연혁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은 1961년에 건립되어 시기적으로 등록문화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학에 상징적인 건물로서 건축적 측면에서 교육시설이 갖는 기능성과 당시 유행하던 수직·수평성 강조한 모더니즘 양식에 조형적 요소가 강조된 건물이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1960년대 대량으로 건축된 교육시설이 갖는 평면계획의 보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장조사 결과, 건축 당시에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물로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건립시기에 따른 문화재 등록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대상 건물에 역사와 연혁을 이해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부족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문화재 명칭은 '구 서울여자대학교 본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9.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의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4.15.)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9.6.)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108-1
-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건립시기 : 1928년(성당), 1846년(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묘소)
- 수량 : 성당 1동, 묘소 4기
- 구조 : 목구조, 콘크리트구조, 석조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2.4.14.)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 → 문화재청)
- ('22.9.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9.8.)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안성시, 신청서 보완 및 고증자료 등)
- ('22.10.14.) : 보완자료 제출(안성시 → 문화재청)
 - * 신청명칭 변경(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
 - * 수리이력(출입구 캐노피, 성당 내부사진 추가 등)
 - * 현황측량도(건물 및 묘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신청대상은 한국 최초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성당 및 묘역들로, 해당 유구들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발전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념성당 자체도 원형이 상당히 잘 유지되어 있고, 성당 앞에 위치한 묘역들에 의해 성당의 상징성·장소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고려한 등록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2.9.6.)

- 해당 성당은 소규모 기념성당으로서 일반적 성당과 다르게 차별화된 형식으로 건축됨. 전체적으로 원형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후에 부분적으로 증축, 개보수, 변형되었지만 관련 기록이나 문헌을 통해 원형 및 변형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함.
-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역사적·종교적·장소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념성당과 묘역이 함께 있는 드문 사례로 건축적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2.9.6.)

- 지방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다양한 성당들이 있지만 김대건 신부와 직접 관련된 성당은 그리 많지 않으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은 한국 천주교사의 개척 과정에서부터 변화 과정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등록범위 설정에 있어서 정확한 실측에 의해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22.9.6.)

-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교우촌이자 주요 성지인 미리내 성지에 위치한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성당과 묘역으로,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병오박해 때 순교하자 신도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묘역을 조성한 위치에 만들어진 성당과 성당을 만들며 함께 정비한 묘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장소적 가치를 가짐.
-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매장지라는 역사성과 그로 인해 형성된 미리내 성지라는 장소성, 그리고 기념성당과 묘역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가치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명칭은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으로 추진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
(구) 복자기념성당,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 기념 경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108-1

4.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5. 시설물 개요

- 구조 : 기념성당(콘크리트 구조), 묘역(석조)
- 제작년도 : 기념성당(1928년)
김대건 신부 묘소(1846년) 페레올 주교 묘소(1853년)
강도영 신부 묘소(1929년) 최문식 신부 묘소(1952년)
- 수량 및 면적 : 기념성당 1동, 묘소 4기, 전체면적 129.7㎡

6. 조사자 의견('22.9.6.)

<문화재위원 ○○○>

1) 개요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이 있는 미리내 성지는 용인과 안성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시궁산과 쌍령산 사이의 깊은 산속 골짜기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형 조건을 형성함.
- 미리내 성지는 이와 같은 지형적 조건을 바탕으로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등 천주교 박해 당시 안성,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 지역의 많은 신도들이 이 일대에 숨어들어 용기를 굽고 화전을 일구며 교우촌을 형성함.
- 성 김대건(1821~1846년) 안드레아 신부는 1845년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로 서품된 후 선교활동을 하다 병오박해 당시 체포되어 1846년 9월 16일 서울 새남터 형장에서 순교함.
- 김대건 신부 순교 후 이민식 등 당시 신도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새남터 인근의 문배부리, 왜고개(현재 서울 용산구 문배동 일대) 등에 임시 매장하였다가 1846년 10월경 장례 절차를 거쳐 교우촌 및 이민식의 선산이 있던 현재의 미리내 성지로 이장됨.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은 1846년 김대건 신부 묘소 조성 이후 1853년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 묘소 조성, 1928년 기념성당 건립, 1929년 강도영 주임신부 묘소 조성, 1953년 최문식 주임신부 묘소 조성 등을 거치며 미리내 성지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소가 됨.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의 외부에서 기념성당 우측 인접지에는 김대건 신부 모친 고 우르슬라(高 Ursula, 1798~1864년) 묘소와 1846년 김대건 신부의 미리내 성지로의 이장을 주도하였던 신도 이민식의 묘소가 각각 위치함.
- 미리내 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뿐만 아니라 1896년 미리내 성당 본당 승격, 1907년 성 요셉 성당이 건립, 1991년 대성전 건립, 순교자 묘역 조성, 지속적 성지 성역화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성지로 조성, 정비되었으며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이자 순례지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은 1928년 건립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을 중심으로 전면에는 1846년 조성된 김대건 신부 묘소를 포함한 4기의 묘소가 나란히 위치함.
- 안성시 외곽 산속 깊숙한 골짜기 지형에서 넓게 형성된 미리내 성지의 안쪽 경사지에 형성된 계단식 지형에서 동서 방향축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외부계단 진입로, 정문, 진입광장, 묘역, 기념성당의 순으로 위치함.
- 기념성당 전면에는 정면부 양측과 정문을 포함하는 낮은 담장이 외곽에 방형 평면으로 배치되어 내부에 중정형 공간을 형성하며, 담장 내부에 4기의 묘소와 진입광장이 위치함.

<기념성당>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1928년 건립 당시 김대건 신부를 지칭하였던 ‘복자(福者)’를 기념하는 의미로 ‘복자기념성당’이라는 명칭이었으며 이후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 기념 경당’을 거쳐 2020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으로 변경됨.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미리내 성당 초대 주임신부 강도영의 주도로 1921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1927년 건립이 결정되고 1928년 봄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 완공함.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건립 당시 양회(시멘트)를 사용하여 중국인 인부가 건축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건축물대장에는 세멘콘크리트 구조로 기록되었으며 상부는 목조 지붕틀로 추정됨.
- 평면은 전체적으로 정면 4m, 측면 8m의 소규모로 장방형에 가깝지만 제단부 후면을 사다리꼴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내부는 기둥이나 칸막이가 없이 전체를 단일 홀 형식의 공간으로 구성됨.
- 내부는 제단 부분과 예배석 부분에 의해 매우 단순하게 구성하고 바닥은 목조 마루로 마감하였으며 제단부는 예배석보다 바닥을 높게 형성하고 중앙부에 제대와 감실(龕室)을 배치함.
- 내부는 벽체는 기둥이나 장식이 없이 흰색 벽체와 첨두형 아치 형태의 목재 오르내리 창문 9개에 의해 매우 단순하게 구성하였으며 상부 천장은 곡면으로 형성하고 목재 리브(Rib)로 장식함.
- 내부 천장은 반원형 배럴볼트에 가까운 첨두형 배럴볼트(Pointed Barrel Vault)에 의해 곡면형 천장을 형성하고 제단 후면부 사다리꼴 평면 상부는 반구형 천장을 형성하였으며, 천장에는 구조적 리브가 아닌 장식적 목적으로 리브 형태의 목재 장식을 설치함.

- 외관은 외벽에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부축기둥을 설치하고 그 사이마다 침두형 아치 창문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경사형 지붕을 형성하였으며, 상부가 박공면으로 구성된 정면부 중앙에 침두형 아치 형태의 주출입구를 설치함.
- 지붕재료는 본래 함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아스팔트청글로 변경되었으며, 주출입구 상부 캐노피는 건립 당시에는 없었다가 후에 설치되고 개·보수되며 현재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

<묘역>

- 묘역에는 4기의 묘소가 나란히 위치하며 김대건 신부 묘소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1896년부터 미리내 성당 초대 주임신부로 재임하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 건립을 주도하였던 강도영 신부(1863~1929년) 묘소가 위치함.
- 김대건 신부 묘소 우측으로는 진입로 건너편에 그에게 신부 서품을 주고 그와 함께 조선에 입국했던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Ferréol, 1808~1853년) 주교의 묘소가 위치 위치하며 그 옆에는 1932년부터 미리내 성당 제3대 주임신부로 재임하였던 최문식 신부(1881~1952년) 묘소가 위치함.
-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새남터 형장에서 순교한 이후 1946년 10월경 미리내 성지 묘소로 이장되었으며, 유해는 1901년 5월 용산예수성심신학교 성당으로 옮겨졌다 1925년 시복(諡福)을 계기로 유해 일부가 미리내 성지로 복귀되었고 현재는 유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임.
- 김대건 신부 묘소와 페레올 주교 묘소는 1928년 기념성당 건립을 계기로 정비되었으며, 당시 관 모양의 시멘트 봉분과 상부에 십자가가 설치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함.
- 1978년 미리내 본당 부활을 계기로 기념성당 주변정비와 함께 묘역도 정비되었으며, 당시 김대건 신부, 페레올 주교, 강도영 신부, 최문식 신부의 묘소 모두 현재의 석관 형식으로 변경됨.
- 김대건 신부 묘소는 1984년 시성(諡聖)을 계기로 석관 상부에 김대건 신부 일생을 기록한 책자 형식의 검은 돌판을 설치하였으며, 1989년 페레올 주교 석관 덮개를 김대건 신부와 같은 형식으로 교체 설치함.
- 기념성당 아래쪽에는 본래 김대건 신부의 모친 고 우르슬라(高 Ursula, 1798~1864년)의 묘소와 1846년 김대건 신부의 미리내 성지로의 이장을 주도하였던 신도 이민식의 묘소가 함께 위치하고 있었으나 1965년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고 그 자리에 광장을 조성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28년 건립 당시 문헌기록과 1928년 10월 5일자 동일일보 기사 및 사진, 성당보관 각종 문헌 등에 의해 건립당시 원형, 그동안 개보수 및 변형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 지붕재료, 정면 캐노피 등이 변형되고 내부 마감은 원형 재료에 맞춰서 개·보수되는 등 몇 차례 거쳐서 부분적으로 변형되거나 개·보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원형의 기본적 형식은 유지되고 있음.
- 미리내 성지 측에서 주요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미리내 성지 측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리내 성지의 대표적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며, 미리내 성지 내 안쪽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도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미리내 성지를 대표적 성지이자 순례지로 활용, 조성하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을 미리내 성지의 상징적 주요시설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활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주교 성당 다수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만 김대건 신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없으며, 지정문화재로는 당진 솔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사적)이 대표적 사례임.
- 일반적 천주교 성당과 다르게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성당으로 김대건 신부 묘소와 관련 성직자들의 묘소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김대건 신부는 한국 최초의 사제로서 천주교 전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해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선각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묘소 인근에 1928년 건립된 성당으로 건축형식도 소규모 기념성당으로서 일반적 성당과 다르게 차별화된 형식으로 건축되었음.
- 묘역은 1846년 김대건 신부 유해가 안장된 묘소를 중심으로 선교와 근대화에 노력했던 페레올 주교, 강도영 신부, 최문식 신부 묘소가 함께 있어 종교적, 역사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음.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은 전체적으로 원형의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후에 부분적으로 증축, 개보수, 변형되었지만 관련 기록이나 문헌을 통해 원형 및 변형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함.
- 이상과 같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은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역사적, 종교적, 장소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념성당과 묘역이 함께 있는 드문 사례로 건축적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
- 등록구역은 필지 산108-1 전체가 아니라 기념성당과 그 전면에서 담장으로 둘러싸인 묘역을 포함하는 면적만 등록하는 것이 적합함.

<문화재위원 ○○○>

1) 개요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스스로 천주교를 습득하여 1845년 상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음. 이는 세계 천주교사에서 유래가 없는 일임. 김대건 신부는 1846년 6월 5일 파리외방선교사들에게 선교를 위한 조선 지도와 편지를 보내려다가 붙잡혀 해주목 황해감영에서 천주교인임이 밝혀짐. 결국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함. 이후 김대건 신부의 시신이 약 40일 뒤 이곳 안성 미리내로 옮겨 안장됨.
- 김대건 신부의 시신이 있던 자리 옆에는 1853년 4월 12일 페레올 주교(2월 3일 선종)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음. 1864년 5월 17일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인 고 우르슬라의 시신이, 또 1921년 12월 9일에 선종한 김대건 신부의 시신 이장자인 이민식(빈센치오)의 시신이, 1929년 3월 12일에 선종한 강도영 신부의 시신이, 1934년 6월 28일 선종한 미리내 본당 2대 주임신부인 뤼카(F. Lucas)의 시신이, 1952년 10월 11일 선종한 미리내 본당 3대 주임신부 최문식(베드로) 신부의 시신이 김대건 신부의 묘소 아래쪽과 인근에 안장되었음.
- 김대건 신부의 묘소는 1886년 시복 판사인 프와넬 신부가 김대건 신부의 묘소 봉분을 해치고 횡대를 확인한 적이 있고, 1901년 5월 21일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발굴되어 용산 예수 성심신학교로 옮겨지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던 자리는 한국 천주교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음.
- 이에 미리내 본당의 주임 신부로 있던 강도영(마르코) 신부는 1924년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에 대한 시복식이 곧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여러 성직자, 신자들의 협조를 얻어 본래 묘소가 있던 자리에 기념 성당을 건립하기로 함.
- 1925년 7월 5일 79위 시복식이 거행된 지 3년 만인 1928년 봄에 성당을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이를 준공하였다. 이후 9월 18일에는 라리보(A. Larribeau) 주교의 집전 아래 ‘한국 치명자(순교자의 옛말)들의 모후’를 후보로 축성식을 가짐.
- 현재 김대건 신부 기념성당에는 발가락뼈가 안치되어 있고, 관 조각 일부가 보존되어 있으며, 김대건 신부의 묘소 아래쪽에 있던 고 우르슬라와 이민식의 묘소가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면서 그곳에는 작은 광장이 조성됨. 같은 해 9월 26일 그 광장에서 최초의 순교자 현양대회가 개최되었음.
- 김대건 신부 묘소가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1976년 미리내 본당이 부활하고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가 미리내 성지를 담당하게 된 이후임. 1978년 묘소 및 기념성당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김 신부 묘소뿐만 아니라 페레올 주교, 강도영 신부, 최문식 신부 묘소가 모두 석관구조물로 단장되었음. 1984년에는 석관 위에 부착된 책자 모양의 검은 돌판이 새겨짐. 더불어 페레올 주교의 석관 뚜껑이 김대건 신부의 뚜껑과 같은 것으로 1989년 교체되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가. 평면 형식 및 공간 구성

- 평면은 4.1m x 6.07m 크기의 4각형의 방형에 제대부분이 2m 폭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 합쳐진 형태임. 제대 부분에는 2단의 계단이 형성되어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 평면 형식은 전형적인 바질리카 형식의 nave와 aisle이 구분된 형식이 아니라 초기 성당의 형식인 경당(Oratorium) 형식이며, 모든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있음.

- 양쪽 벽면으로 3개씩의 포인티드 아치 형식을 지닌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제대 쪽으로 2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 내부 천정은 배럴 볼트형으로 되어 있고, 제대 부분의 천정에는 6개의 리브(rib)가 노출되어 있음. ribbed arch의 재료는 목재이나 마치 석조나 벽돌조처럼 페인트가 칠해져 있음. 출입구에서 볼 때 제대 전면에는 2개의 ribbed arch가 양쪽 벽천 천정을 형성하고 있고, 제대 후면에는 4개의 ribbed arch가 정점으로 모여 있음.
- 내부 공간구성은 제대부분에 십자가와 성체를 모시는 감실,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발가락뼈와 관 조각을 모셔두고 있고 제대 및 미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부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경당(Oratorium) 형식으로 되어 있음.
- 이 성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당 전면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묘와 페레올 주교의 묘, 강도영 마르코 신부의 묘, 최문식 베드로 신부의 묘 등 4구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임. 주변에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인 고 우르슬라 묘와 이민식 빈센치오의 묘가 있어 한국 천주교 역사를 실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나. 입면 및 구조 형태

- 정면 입구는 삼각형의 페디먼트 아래에 현관 입구로 사용되는 포치를 형성하고 있음. 1960년 사진에는 현관으로 사용되는 포치가 없이 반원형창이 보임. 1960년 7월과 8월 김대건 기념성당의 수리과정에서 현관 입구를 위한 포치가 설치된 것으로 보임.
- 문과 창호는 모두 뾰족한 포인티드 아치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배럴 볼트로 되어 있고 벽면 좌우에는 버트레스가 설치되어 있음. 이 버트레스는 실질적인 구조적 장치라기보다는 장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짐.
- 볼트와 아치 리브 등이 석재나 벽돌이 아니라 목재를 사용하였는데 벽돌이나 석재처럼 보이도록 하였음. 바닥은 원래 인조석 물갈기 테라조를 사용하였는데 그 위에 나무 마루를 깔았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28년 준공 당시부터 기념 성당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기록을 통해 전면 입구의 현관 포치가 1960년 이후 추가된 것으로 여겨짐. 묘소는 1978년 8월 묘소 및 기념성당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김대건 신부 묘소뿐만 아니라 페레올 주교, 강도영 신부, 최문식 신부의 묘소가 모두 강화 애석으로 단장되었으며, 1984년 5월 6일 김대건 신부의 간략한 이력(출생·신부서품·순교·시복·시성 일자) 등이 석관 위에 부착된 책자 모양의 검은 돌판에 새겨짐.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에 미리내 성지와 성 요셉 성당이 있어서 한국 천주교사의 역사적 장소로서

문화재 보존 여건 및 주변 환경은 매우 양호함. 특히 이곳은 한국천주교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건 신부의 묘소 및 기념성당이 있어 매년 현양운동 및 순례 장소로서의 의미도 매우 큼.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 성당은 한국 천주교사의 개척 과정에서부터 변화 과정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장소성의 보존에 대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성당 자체가 복사에서 성인으로 승격되는 과정과 같이 하고 있음. 또한 한국가톨릭 수원 교구의 보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보존 계획 관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 정확한 실측을 통해 등록문화재 등록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의 안성 미리내 성지와 성 요셉 성당과 연계하여 한국 가톨릭 성지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지방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다양한 성당들이 있지만 김대건 신부와 직접 관련된 성당은 그리 많지 않음. 특히 이 성당은 김대건 신부의 묘소와 같이 있고 성당 내부에 김대건 신부의 묘와 발가락뼈를 모시고 있음. 또한 김대건 신부에 의해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점은 한국 천주교사 뿐만 아니라 세계 가톨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특히 1928년 준공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김대건 신부의 묘소뿐만 아니라 수원 교구를 책임졌던 페레올 주교와 강도영·최문식 신부의 묘소와 함께 있는 우리나라 성당으로서는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등록범위 설정에 있어서 정확한 실측에 의해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안성 성 김대건 신부 기념 성당’이 적합함.(세레명까지 명칭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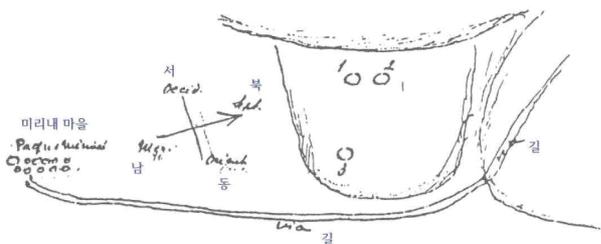
<문화재위원 ○○○>

1) 개요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은 조선 말 천주교 교우촌이 있었던 미리내 지역에 1846년 조성된 김대건 신부의 묘역을 비롯한 천주교 신부들의 묘역과 그 자리에 1928년 신축된 기념성당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임.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자 형장 모래밭에 매장된 그의 시신을 이민식(빈첸시오)를 비롯한 신자들이 수습하여 1846년 10월 경 미리내 지역으로 옮겨 와 묘소를 조성하였음. 1853년에는 김대건 신부에게 신부

서품을 주고 조선에 입국했던 장 페레올(Ferréol, 高) 주교의 묘소가 김대건 신부 묘소 옆에 조성되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 묘소도 부근에 조성되었음. 1901년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발굴되어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로 옮겨져 빈 무덤이 되었으나 신자들의 방문은 계속되었다고 함. 1925년에는 강도영 신부 요청으로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인 발가락뼈 조각과 관 조각이 미리내 본당으로 돌아와 1928년 7월 건립된 기념성당에 안치된 것으로 보임.

- 복자(김대건 신부) 기념경당이 건립되며 김대건 신부의 묘소는 프와넬 신부의 묘소와 함께 시멘트로 다시 만들어졌고 주변에는 울타리를 둘러 신부들의 묘지로 조성되었음. 현재와 같은 석관 구조물로 변경된 것은 1978년 기념성당 주변 정비 사업 당시였던 것으로 확인됨. 1929년에는 강도영 신부의 묘가 김대건 신부 묘 좌측에 조성되었으며, 1952년에는 최문식 신부의 묘가 페레올 신부 묘 우측에 조성되어 현재와 같은 묘역이 형성되었음.
- 1921년부터 추진된 기념성당 건립은 1925년 7월 5일 김대건 신부가 복자로 선포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28년 7월에 완공되었고, 9월 18일에 강복식을 가졌음. 성당의 앞으로는 김대건 신부와 프와넬 신부 묘역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묘역 주변은 2m 높이의 담으로 둘러져 기념성당과 함께 하나의 공간을 이루었음. 건립 당시 공식명칭은 복자기념성당이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복자(시복)기념 경당으로 불렸음. 2020년 10월까지 공식 명칭은 79위 복자기념경당이었으나, 그 이후 수원 교구의 결정에 따라 ‘김대건 신부 기념성당’으로 공식명칭이 변경되었음.
- 김대건 신부 기념성당은 건립 이후 김대건 신부에 대한 현양과 순례의 장소가 되었으며 1960년에는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순례성소’[Sanctuary, 성지(聖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순례장소가 되었음. 목조와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기념성당은 소규모의 경당이지만 묘소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유형으로 성 요셉성당과 함께 미리내 성지를 구성하고 있음.



1. 가경자 김 안드레아 묘소
2. 페레올 주교 묘소
3. 김 신부 어머니(고 우르술라)의 묘소

그림 248 1901년 발굴 당시 작성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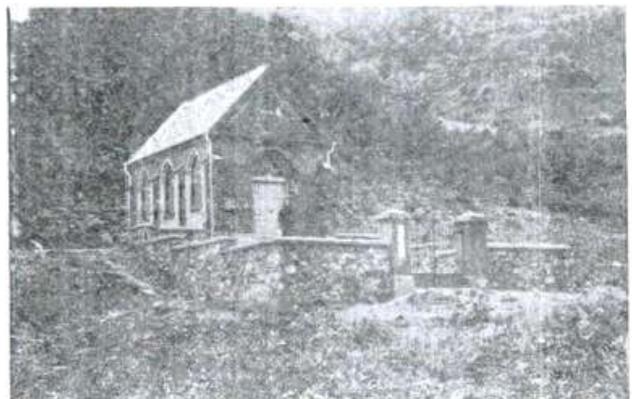


그림 249 1928년 기념성당 모습 (『동아일보』 1928.10.5. 기사)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가로 약 8m(약 26척) X 세로 4m(약 13척)의 소규모 성당으로 성격상 어떤 공동체나 그곳에 모이는 일부 특정 신자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작은 예배당인 경당(Oratotium)임. 성당은 동측의 계단을 통해 진입 하며 내부 공간은 성도석과 앵스로 나누어짐. 앵스는 십자가, 성체를 모셔 둔 감실,

순교자의 유해를 모신 돌 판 성석, 제대 및 미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대 뒷 공간은 3각으로 꺾여 제대를 둘러싸고 돌 수 있는 앰블라토리(Ambulatory)가 형성되어 순례길에 위치한 성당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냄. 내부에는 목조 리브(Rib)가 반원 볼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외부에 수직버트레스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 창호는 첨두아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의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 성당의 주 건축 재료는 시멘트였다고 하나 내부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지 조적벽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 현재 마감은 백색 스테코 마감이며 현재 바닥은 목재이지만 원 바닥은 테라조였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볼트와 아치, 리브 등은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구조체라기 보다는 장식재였던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과 목재 오르내리창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1970~80년대 수리할 당시 교체된 것으로 판단됨. 현관 앞 캐노피는 최초에는 없었으나 1980년대에 반원형의 캐노피가 설치되었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현재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의 박공지붕으로 변형되었음. 지붕 재료 역시 원재료는 함석이었으나 현재는 아스팔트싱글로 교체되었음.
- 성당 앞 계단을 내려오면 강도영 신부, 김대건 신부, 페레올 주교, 최문식 신부의 석관묘 4기가 좌우로 각각 2기씩 배치되어 있음. 성당 건립과 함께 묘역이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시멘트로 된 묘로 십자가가 앞에 서 있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석관묘의 형태로 상판에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는 형태이며 김대건 신부묘에는 돌판 위에 관련 정보(출생: 1821.8.21, 서품: 1845.8.17, 순교: 1846.9.16, 시복: 1925.7.5, 시성: 1984.5.6.)가 새겨져 있음. 묘역은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여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계단과 이어지는 위치에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음. 성당 외부 서측에는 김대건 신부 어머니 우르슬라의 묘와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수습해온 이민식(빈첸시오)의 묘가 이장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28년 신축된 기념성당은 1960년 성지로 지정됨에 따라 김대건 신부의 아래턱뼈와 관조각이 돌아오게 되었고, 이를 기념성당에 안치하였음. 1965년에는 기념성당 아래에 있던 우르슬라와 이민식의 묘를 현 위치로 이장하고 광장을 조성하였음. 1976년에는 미리내 본당이 부활하고,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가 미리내 성지를 관리하게 되었고 이후 성당 및 묘역의 수리 및 변형이 있었음.
- 먼저, 성당은 1960년 수리공사가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수리 내용은 알 수 없으며, 1976년 이후 전면에 캐노피가 설치되었고, 묘소 남쪽 및 좌우 아래쪽 돌담이 해체되고 스테인레스 난간이 설치되었음. 캐노피는 2000년대에 다시 한번 현재의 형태로 설치되었음. 전체적으로 지붕재료, 바닥재료를 비롯하여 내·외부 마감재료 등은 전체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나 형태는 캐노피 및 외부 담장을 제외하고는 큰 변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묘역의 경우 전체 공간의 형태나 규모는 1928년 조성 이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묘의 경우 콘크리트묘에서 1978년 석관묘로 변경되며 거의 새로운 것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십자가가 서 있던 형태에서 상판 위 부조로 변형되었으며, 김대건 신부 묘에는 1984년 이후 책자 모양의 검은 돌판을 상석에

부착되었으며, 페레올 주교의 석관 상판 역시 1989년에 김대건 신부의 석관 상판과 같은 것으로 교체되어 현재의 모습은 1989년경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은 미리내 성지 내부 순례길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미리내 본당인 성 요셉성당을 비롯한 미리내 성지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음.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여건은 양호한 편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제출된 보존관리계획에 따르면, 본 신청대상건물에 대한 기록화 연구 및 문화재 학술연구를 통해 미리내 성지 및 김대건 신부 기념성당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신부 묘소 석관 전면부 드잡이와 기념성당 전면 계단 및 담장 보수를 포함한 구조 보수 및 복원 공사 계획, 문화재 주변 화장실, 휴게시설, 가로등, CCTV, 안내·이정표, 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 및 편의 시설 계획을 포함한 주변 정비계획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화재 보수 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원형 및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활용방안 역시 미리내 성지를 중심으로 성 김대건 신부 관련 문화유산 연계 방안을 성지순례, 종교행사, 문화행사, 문화재해설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계획은 구체적이며 현재 상황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 등은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미리내 성지 내 성 요셉성당을 비롯한 기타 시설들 및 순례길 등과 총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문화재 중 성당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본당과 공소로,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기념성당처럼 특정 성인을 기념하기 위한 성당은 없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최소 규모에 가까운 특징을 보임. 또한 묘역이 성당의 바로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 역시 기 등록된 문화재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임.

7) 등록가치의견

- 본 신청대상은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교우촌이자 주요 성지인 미리내 성지에 위치한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성당과 묘역으로,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병오박해 때 순교하자 신도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묘역을 조성한 위치에 만들어진 성당과 성당을 만들며 함께 정비한 묘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장소적 가치를 가짐.

- 기념성당은 소규모 경당 건물로 1960년 성지 지정과 함께 돌아온 김대건 신부의 아래턱뼈와 관 조각이 안치되어 있어 가톨릭 성인의 유해를 보관하는 장소이자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짐.
- 콘크리트 구조와 목구조와 혼용된 성당 건물은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묘의 경우 1978년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최초의 형태는 아니지만 묘역은 초창기와 크게 변화가 없으며 묘역이 있어 기념성당의 의미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성당과 묘역은 반드시 함께 보존·관리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됨.
-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의 매장지라는 역사성과 그로 인해 형성된 미리내 성지라는 장소성, 그리고 기념성당과 묘역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가치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명칭은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 혹은 ‘안성 미리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10. 「안성 미리내 성 요셉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4.15.)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9.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141
 -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260.4㎡
 - 건립시기 : 1907년
 - 구조 및 규모 : 목구조, 석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2.4.14.)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 → 문화재청)
 - ('22.9.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9.8.)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안성시, 신청서 보완 및 고증자료 등)
 - ('22.10.14.) : 보완자료 제출(안성시 → 문화재청)
 - * 원형 확인을 위한 수리이력(종탑, 구출입구, 내부수리 등)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 성지인 '미리내 성지의 본당'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장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미리내 성지 내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에 의해서 역사성·종교성 및 대표성·상징성 구현될 수 있는 점, 내·외부 증축·변형으로 원형의 보존상태가 다소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한 등록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2.09.06.)

- 오래된 천주교 교우촌이자 성지인 미리내 성지에 위치하였다는 장소성과 1907년 이른 시기에 건축되었다는 역사성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성지의 역사적·종교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성 요셉성당이 지닌 대표성과 상징성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에 의해 구현되고 강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당 내부공간이 평범하게 구성되었고 자연석 쌓기 벽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내외부에서 증축·변형이 발생되었으며, 가장 특징적 부분이었던 정면부의 형태·구조·공간이 전체적으로 변형되어 원형의 보존 상태나 특징적 양식·기법이 미흡한 상태로 보여짐.
- 따라서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은 미리내 성지에 공존하고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22.09.06.)

-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초기 성당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정면과 측면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명확하지 않음.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기록 및 자료가 필요하고, 정면 입구 등의 변화가 심해 등록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2.09.06.)

-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교우촌이자 주요 성지인 미리내 성지에 위치한 미리내 본당인 성 요셉성당은 1907년 미리내 본당 초대신부인 강도영 신부가 신축한 성당으로, 자연석재를 사용한 벽체가 특징적이고 성지의 본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장소적 가치가 높으나 내부변형이 크고 수리 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음.

- 유사한 유형의 성당들이 이미 국가등록문화재에 다수 등록되어 있기에 문화재 등록은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미리내 본당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미리내 성지의 전체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 (구)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141
4.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 제작년도 : 1907년 준공, 1912년 현재 모습 완성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260.4㎡
6. 조사자 의견('22.9.6.)

<문화재위원 ○○○>

1) 개요

- 성 요셉 성당이 있는 미리내 성지는 용인과 안성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시궁산과 쌍령산 사이의 깊은 산속 골짜기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형 조건을 형성함.
- 미리내 성지는 이와 같은 지형적 조건을 바탕으로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등 천주교 박해 당시 안성,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 지역의 많은 신도들이 이 일대에 숨어들어 용기를 굽고 화전을 일구며 교우촌을 형성함.
- 미리내 교우촌의 미리내 공소는 1894년 김대건 신부 묘소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성 요셉을 주보로 공소 강당을 축성하고 예배당으로 이용하였으며, 공소 강당은 한옥형식 건물로 1921년까지는 고증사진에서 존재가 확인되나 이후 철거 시기는 불확실함.
- 미리내 공소는 점차 교세가 확장되면서 1896년 미리내 본당으로 승격하고 강도영(1863~1929년)이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으며, 기존 공소 강당을 예배당으로 이용하다 신도 수가 점차 증가하자 많은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당 건립을 추진함.
- 기존 공소 강당의 서쪽에 새로운 예배당으로서 성 요셉성당이 1907년 완공되었으며 미리내 성지에서 성 요셉성당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과 함께 대표적, 상징적 성당이자 장소임.
- 미리내 성당 초대 주임신부 강도영 마르코 신부는 김대건, 최양업 신부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 사제서품을 받은 인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건립을 주도하고 안성시 두 번째 초등부 과정인 해성학원을 설립하여 근대 초등교육의 초석을 제공하고 성 요셉성당 건립을 주도하는 등 미리내 성지 성장뿐만 아니라 천주교,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미리내 성당 초대 주임신부 강도영은 1904년 410평의 대지를 매입하고 1906년 말부터 성 요셉 성당 건축을 시작하여 1907년 8월 완공하고 1909년 종을 설치하였으며 1913년 3월 당시 제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Mutel, 1854~1933년) 주교의 집전 아래 성 요셉을 후보로 봉헌식을 거행함.
- 성 요셉성당은 건축 당시에 중국인 기술자가 참여하였고 강도영 주임신부는 1907년 명동성당 등을 건축했던 경험이 풍부한 푸아넬(Poisnel, 1855~1925년) 신부에게 자문을 받아 건축함.
- 기본적 건축형식은 자연석을 쌓아 외부 벽체를 구축하였으나 완공 후 4년이 지난 1911년 벽체가 기울고 무너져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자 보수공사를 실시해 1912년 완공함.
- 성당 정면은 본래 기둥들로 지지되는 상부 지붕처마에 의해 개방적 형식의 전실(Narthex)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사각형 평면 목조 종탑을 올려놓은 형식이었으나 1950~1960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현재 모습으로 증·개축 되고 변형된 상태임.
- 양측면 외벽 중앙부에 설치된 부출입구도 본래 박공형 지붕과 기둥에 의해 구성된 포치(Porch) 형식의 개방적 구조였으나 2000년대 현재와 같이 벽체와 슬래브에 의한 폐쇄적 형식으로 변형됨.
- 지붕은 목조 왕대공 지붕틀을 기본으로 한 박공지붕 형태의 예배석 상부지붕과 합각지붕 형태의 제단 상부지붕이 결합된 형식이며 본래 함석으로 마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0년대 현재의 동판 지붕으로 개보수함.
- 평면은 길이 28m, 너비 9m의 장방형으로 기본적으로 장축형 바실리카식 공간을 형성하고 내부는 기둥이 없이 단일 홀 형식의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후에 증축, 변형된 정면 전실 상부에만 2층 바닥을 형성함.
- 기본적으로 장축형 바실리카식 형식이지만 천장이 평탄하고 낮아서 수직성은 미비하고 수평성이 강한 장축형 공간을 형성하였고 양측 벽면의 창문도 일반적인 아치 형태가 아니라 장방형이어서 성당으로서는 평범한 내부공간을 형성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고증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원형에서 현재 자연석 쌓기 외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외관에서 정면부, 지붕 마감재, 부출입구 및 창호 등은 변형되거나 증·개축된 상태임.
- 내부에서는 천장, 내벽 등의 마감재가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유지관리 되었으므로 내·외부 모두 전체적으로 심하게 노후화, 훼손된 부분이 없이 보존관리 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미리내 성지 측에서 성 요셉 성당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리내 성지의

대표적 주요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며, 미리내 성지 내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도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미리내 성지가 대표적 성지이자 순례지로 활용하며 성 요셉 성당을 미리내 성지의 상징적 주요시설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활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주교 성당 다수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 요셉 성당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사례들에 비해 원형의 보존상태 그리고 차별화되거나 특징적인 건축양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7) 등록가치의견

- 안성 미리내 성 요셉 성당은 오래된 천주교 교우촌이자 대표적 성지인 미리내 성지에 위치하였다는 장소성과 1907년 이른 시기에 건축되었다는 역사성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미리내 성지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성 요셉 성당이 지닌 대표성과 상징성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에 의해 구현되고 강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당으로서는 내부공간이 평범하게 구성되었고 자연석 쌓기 벽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내외부에서 증축, 변형이 발생되었으며, 가장 특징적 부분이었던 정면부가 형태, 구조, 공간이 전체적으로 변형되어 원형의 보존 상태나 특징적 양식, 기법이 미흡한 상태로 판단됨.
- 따라서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은 미리내 성지에 공존하고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

<문화재위원 ○○○>

1) 개요

- 유서 깊은 천주교 교우촌으로 형성된 안성 미리내 본당은 1896년 설정 이후 안성 양성면과 용인지역, 이천 지역, 광주 동남부 지역까지 관할하면서 이 지역의 천주교 전파와 신앙 공동체 형성에 큰 기여를 함.
- 미리내 본당의 초대 강도영 신부는 1894년 건립한 “성 요셉”을 주보로 하는 기존 성당 옆에 새 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1906년 말 중국인 인부들의 작업으로 시작됨. 강도영 신부는 신축을 위해 서울에서 신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명동성당의 건축을 감독한 명동성당 푸아넬 신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활발하게 성당 건립을 위해 노력함.

- 이듬해 1907년 8월 410평의 부지에 길이 28m, 폭 9m의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성당을 건립함. 이로써 옛 성 요셉 성당과 함께 두 채의 성당 건물이 공존하게 되었고, 1909년 3월에는 성당 종을 마련함.
- 1911년부터 성당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1911년 8월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음. 당시 교구의 재정을 담당했던 비에모(Villemot, 禹一模) 신부가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였고, 이에 뫼텔 주교의 경비 보조와 신자들의 봉헌을 바탕으로 1912년 보수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음. 성 요셉성당의 현재 모습은 이때 완성된 것으로 여겨짐.
- 제2대 주임신부 루카(Lucas, 陸加恩) 신부(재직 1929~1932)와 제 3대 주임신부 최문식(崔文植)(재직 1932~1952)는 미리내와 인근 지역 사목에 집중하면서 교세를 유지해 나갔으며, 이 세분의 신부는 모두 김대건 신부 묘역에 같이 묻혀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가. 평면 형식 및 공간 구성

- 평면은 21m x 9m 크기의 장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음. 평면 형식은 전형적인 바질리카 형식의 nave와 aisle이 구분된 형식이 아니라 nave와 aisle이 통합된 형식임. 또한 제대가 놓여지는 apse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장방형의 평면에 모든 기능이 하나의 평면 안에 통합된 형식을 지니고 있음. 현재 신자석이 두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4각형의 창문이 오르내리창으로 되어 있음. 정면 입구 출입구 이외 측면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신자석이 두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4각형의 창문이 오르내리창으로 되어 있음. 정면 입구 출입구 이외 측면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내부 천장은 반자로 처리 및 마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의 모습인지는 불분명함.

나. 입면 및 구조 형태

- 1913년경 사진에는 정면 입구에 종탑이 보여 지고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벽면이 보임. 창호는 4각형 목재 창으로 되어 있는데 상부에 박공모양의 장식이 있었으나, 현재 이 장식을 보이지 않음. 또한 현재의 정면 모습은 원래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원래는 측면 출입구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정면 입구의 증축된 부분과 측면 입구가 원래의 성당 건물과 잘 어울리지 않음.
- 주변의 자연석을 활용하여 광회를 이용하여 벽체를 구성하였고 창문 인방은 목재를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천정 부분의 가운데는 목재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등이 확실하지 않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07년 미리내 본당으로 건립된 성 요셉 성당의 현재 상태는 자연석을 이용한 벽체 부분을 제외하고 정면과 측면, 그리고 내부의 천정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원래의 도면 중 이에 대한 기록 등이 자료가 불충분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에 미리내 성지와 성 요셉 성당은 한국 천주교사의 역사적 장소로서 문화재 보존 여건 및 주변 환경은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성 요셉성당의 경우 원래 상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자료 역시 불충분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 요셉 성당은 미리내 본당으로서 한국 천주교사의 개척 과정에서부터 변화 과정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장소성과 역사성이 의미가 있음. 그러나 건축적으로 변화가 많아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주변의 안성 미리내 성지와 김대건 기념성당과 연계하여 한국 가톨릭 성지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초기 성당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정면과 측면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또한 다른 등록문화재 성당과의 차별성 역시 그리 크지 않음.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기록 및 자료가 필요하고, 정면 입구 등의 변화가 심해 국가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7) 등록가치의견

-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초기 성당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정면과 측면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명확하지 않음.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기록 및 자료가 필요하고, 정면 입구 등의 변화가 심해 국가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세기 초반부터 천주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던 미리내 지역에 1846년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이장함으로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가 됨. 1884년에는 뫼텔신부가 미리내 공소를 재건하였으며 1894년에는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묘소 약 300m 아래에 공소 강당을 건립하고 성 요셉을 주보로 축성함.

- 1896년에는 미리내 본당으로 승격하며 강도영(姜道永, 1863~1929) 마르코 신부가 초대 신부로 임명되었고, 1906년 말부터 기존 성당 건물 서쪽에 새 성당 건립을 시작하여 1907년 8월에 1907년 8월, 410평의 부지 위에 길이 28m, 폭 9m, 건평 약 8평의 자연석 석조 성당인 성 요셉성당을 완공함.
- 1909년 3월에는 성당 종을 설치하였으며, 1911년 8월~1912년 여름까지는 성당 벽체의 붕괴위험으로 인해 보수공사를 시행함. 1964년 7월 2일에는 본당이 폐지되며 안성본당의 공소로 편입되었으며, 1970년에는 대천동본당에 편입됨.
- 1976년에는 미리내 본당이 준본당으로 부활하였으며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에서 관리와 운영을 전담함. 2005년 이후에는 수원교구가 미리내 성지와 본당을 맡게 되며 성 요셉 성당은 수원 교구 관할이 되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은 가로 약 28m X 세로 9m의 장방형 평면으로 진입부와 회중석, 제단으로 이루어진 평면 구성을 하고 있으며, 양측면 중앙에는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 출입구가 있음. 진입부 상부는 2층으로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진입부 중앙에는 종탑이 설치되어 있음. 지붕은 왕대공트러스 구조로 1907년 당시의 지붕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붕 재료는 함석에서 동판으로 1976년 변경되었음.
- 1907년 건축 초창기에는 목조로 된 종탑 아래 목재 기둥이 늘어선, 진입부가 개방된 포치였으나, 1960년대 증축공사 당시 조적벽을 쌓아 아치형 개구부가 있는 진입부 위에 석조로 사각형 종탑을 올리고 맨 위에는 첨탑이 있는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으며, 측면 출입구 역시 캐노피만 있는 오픈형 출입구였으나 이 당시 콘크리트 구조로 개축되었음.
- 성 요셉성당의 벽체는 자연석재를 쌓아 만든 것으로 비교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음. 바닥에는 장마루를 쌓았으며, 내부는 비니어판으로 마감되어 있음. 성 요셉성당 내에는 1960년 미리내가 성지가 되며 돌아온 김대건 신부의 유해 중 하악골(아래턱뼈)가 안치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07년 신축 이후 1911년 벽체 보수공사가 있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50~60년대에 진입부 및 종탑, 주출입구, 부출입구 등이 개축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음. 1985~1986년경에는 내부 바닥 공사 및 지붕 재료를 함석에서 동판으로 교체, 종탑 수리 공사를 시행하였음. 전면 진입부와 종탑, 측면 진입부 등이 변형되었으며, 외부 창호 등도 모두 교체되었음. 전체적으로 벽체 재료 및 외형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진입부, 종탑, 창호 등은 전부 변형되거나 변경되었음. 내부의 경우 1985~86년 수리 공사 및 이후에도 사용하면서 계속 수리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원래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은 미리내 성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및 묘역을 비롯한 미리내 성지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음.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여건은 양호한 편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제출된 보존관리계획에 따르면, 본 신청대상건물에 대한 기록화 연구 및 문화재 학술연구를 통해 미리내 성지 및 성 요셉성당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외벽 기단 및 벽체 보수, 천장 반자 처짐 보수를 포함한 구조 보수 및 복원 공사 계획, 문화재 주변 화장실, 휴게시설, 가로등, CCTV, 안내·이정표, 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계획을 포함한 주변 정비계획세우고 있는데 이같은 문화재 보수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원형 및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활용방안 역시 미리내 성지를 중심으로 성 김대건 신부 관련 문화유산 연계 방안을 성지순례, 종교행사, 문화행사, 문화재해설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계획은 구체적이며 현재 상황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 등은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미리내 성지 내 기타 시설들 및 순례길 등과 총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문화재 중 성당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비슷한 규모와 성격을 가지는 성당으로는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나주 노안성당 등이 있음. 전체적인 형태나 규모 면에서는 성 요셉 성당이 가지는 특이점은 크게 없으나 자연석재를 사용한 점은 독특하다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본 신청대상은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교우촌이자 주요 성지인 미리내 성지에 위치한 미리내 본당인 성 요셉 성당으로 1907년 미리내 본당 초대신부인 강도영 신부가 신축한 성당임. 자연석재를 사용한 벽체가 특징적이며, 미리내 성지의 본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장소적 가치가 높으나 내부의 변형이 크고 수리 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음.
- 또한 유사한 유형의 성당들이 이미 국가 등록문화재에 다수 등록되어 있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미리내 본당이라는 역사적 가치, 미리내 성지의 전체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여 지방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명칭은 ‘안성 성 요셉성당’ 혹은 ‘안성 미리내 성 요셉성당’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11.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의 국가등록문화재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9.20., 9.28.)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	1점	34.2cm×22.0cm	1892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 A등급 분류
- ('22.9.20., 9.28.)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체결한 조약의 조약문과 고종의 비준서임.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전권대사의 서명과 인장, 고종의 어압(御押)과 어보가 남아 있으며, 1890년대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독립국으로의 지위를 찾기 위한 조선의 노력이 담긴 유물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약 체결에 참여한 특과전권대신 권재형(權在衡, 1903년 권중현으로 개명)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을사오적 중 한 명임.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러·일전쟁 개전시(1904)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친일반민족행위 기간으로 보고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조약 관련 기지정 문화재 현황]

생산 연대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전권대신	작성 언어
1883	제109호	조영통상조약	민영목	영어
1884	제108호	조아통상조약	김병시	러시아, 한문
1884	제110호	대조선국·대덕국 통상조약	민영목	한문, 영어, 독일어
1886	제112호	대조선국·대법민주국 통상조약	김만식	한문
1899	제111호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박제순*	한문

*박제순: 을사오적 중의 한 명

[동일, 유사 유형 유물 등록 및 지정 현황] - 동산 위주

구분	등록 및 지정 현황
기아마스타 T600	(국가) 08.8.12 기아 경3륜 트럭 (시/등) 21.10.27 기아 경3륜 트럭 T600 (국가) 22.5.11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협계 객차	(시/등) 21.8.9 수인선 협계 객차(18028호) (국가) 22.4.7 협계 객차 18011호
태극기	(보물) 데니 태극기 등 3건 (국가) 불원복 태극기 등 17건 (시/등)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1건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9.20., 9.28.)

- 본 유물은 1892년 조선이 자주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통상 조약을 맺은 문건으로, 유일한 원본으로 2쪽이 결락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문화재로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프랑스(1886), 청나라(1899)와 맺은 수호통상조약문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맺은 수호통상조약 또한 가치적으로 이 들과 동등한 수준임

○ 문화재전문위원 ○○○('22.9.20.)

- 1890년대 초반 고종과 조선 정부가 추진한 반청자주(反淸自主)의 외교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고종의 서명이 들어간 비준서에는 황제를 지칭하는 '짐(朕)'이라는 단어가 사용됨
- 본 유물은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조선·대한제국이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이 일제강점기 이후 개인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도 동종의 자료를 두 점 소장하고 있으나, 두 점 모두 전권위임자의 서명, 도장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 정부에서 내부 회람용으로 제작한 사본으로 판단됨

○ ○○○○○○○○○○○ ○○○('22.9.20., 9.28.)

- 본 유물은 1892년 6월 23일,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일본 도쿄에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전문과 고종의 비준서로, 반청자주를 위한 조선의 대외정책을 보여줌
- 비단 장황으로 만들어진 표제는 다른 조약의 수리복원과 보존 처리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비준서는 고종의 친필과 어압, 어보가 찍힌 원본으로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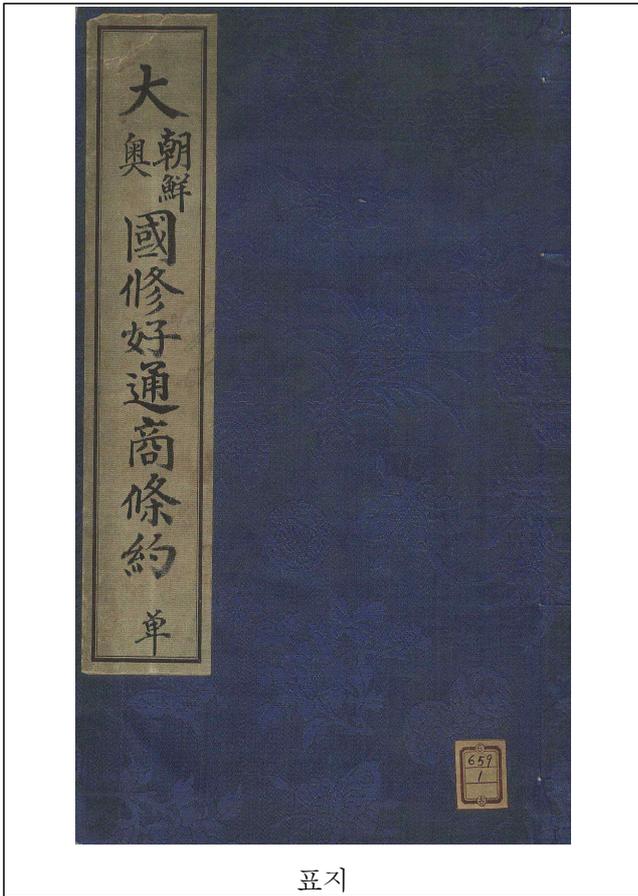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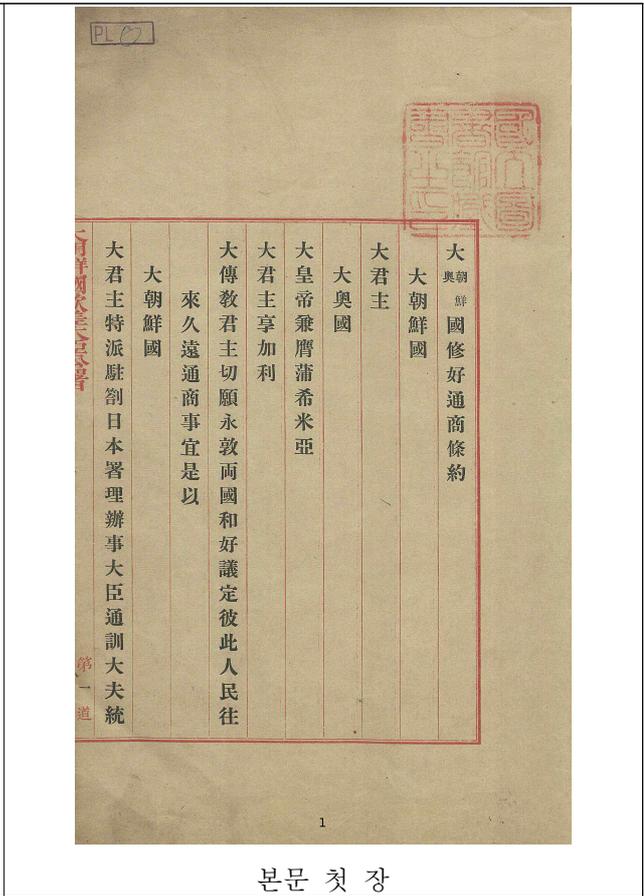
- 시도문화재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출석 11명 / 부결 9명, 기권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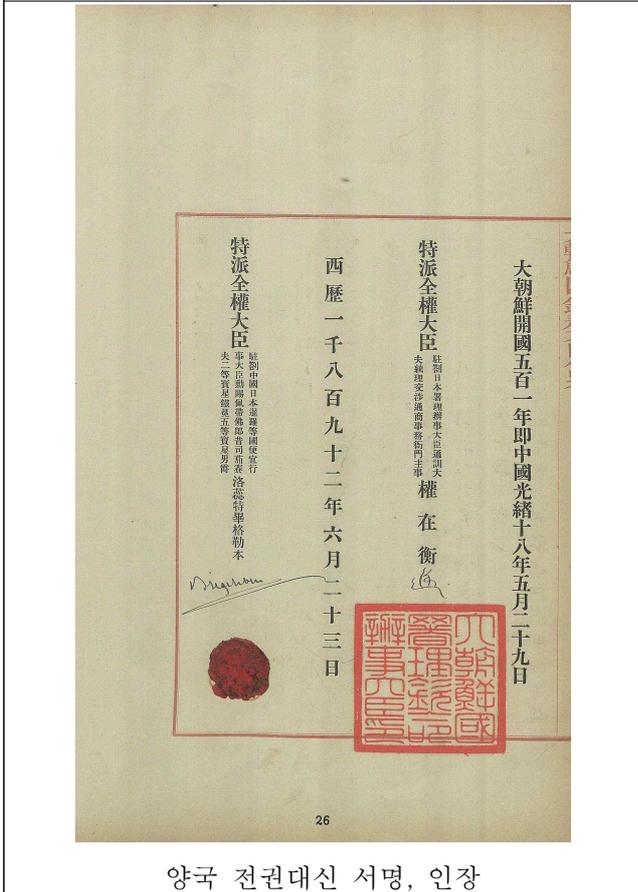
<붙임1> 대조선국 대오국 수호통상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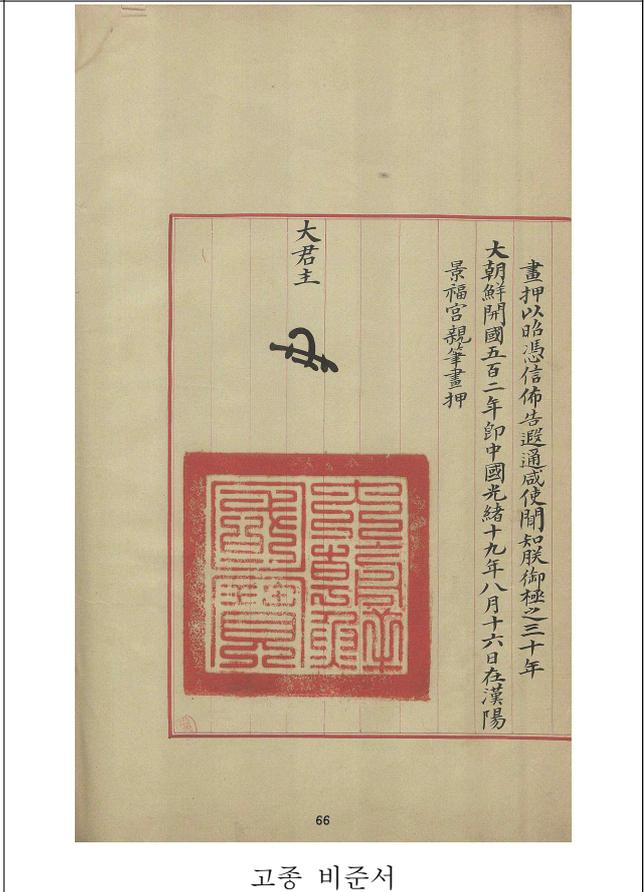
표지



본문 첫 장



양국 전권대신 서명, 인장



고종 비준서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조선국 대오국
2.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4. 제작년대 : 1892년(조약문), 1893년(비준서)
5. 수 량 : 1점
6. 규 격 : 34.2 × 22.0cm
7. 재 질 : 종이(冊紙) 및 비단(冊衣)
8. 조사자 의견('22.9.20., 9.28.)

<문화재위원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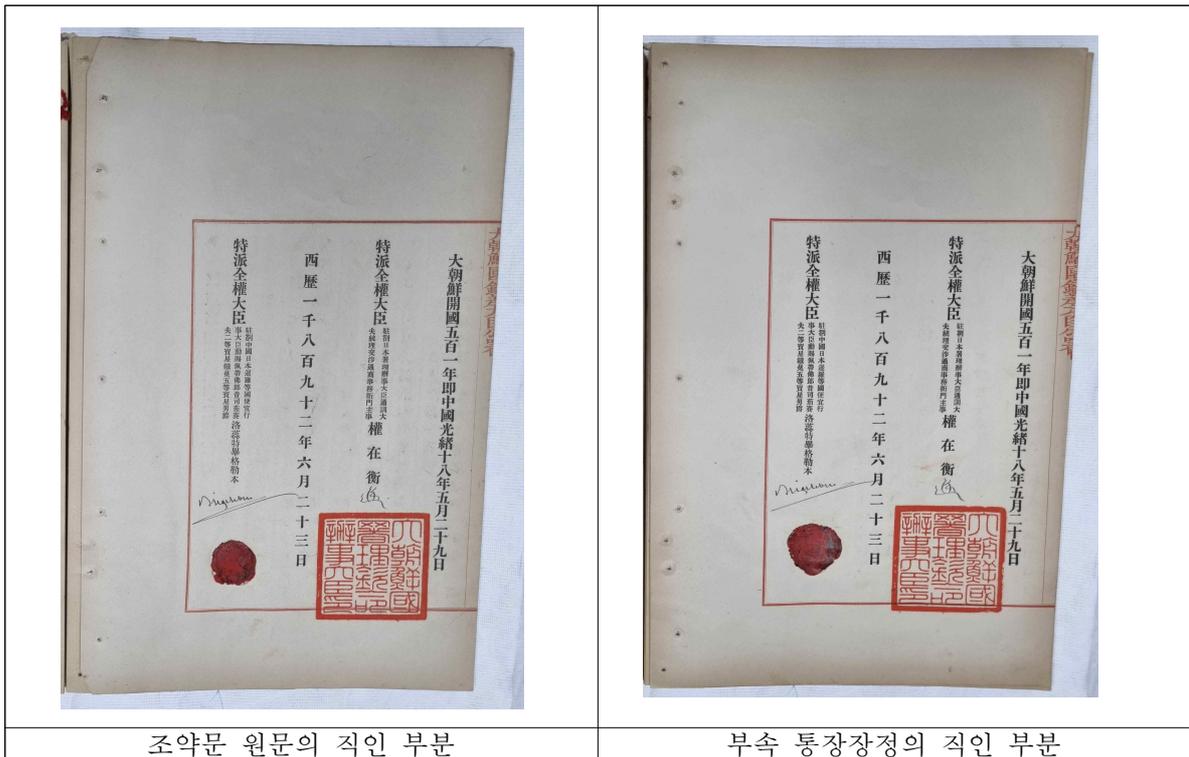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1892년에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상호 통상을 체결하는 조약문으로 작성된 것임.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국가들과는 1882년 미국, 1884년 영국과 프랑스, 1886년에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맺었으며 1892년에 오스트리아와 맺은 통상조약에서는 ‘대조선(大朝鮮)’ 국명을 사용하여 격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인이 찍힌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직인이 없는 사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문화재청 소장본과 한국은행 소장본이 기탁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조선-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은 1892년 6월 23일에 오스트리아 전권대신 비겔레벤(Roger de Biegeleben)과 조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권재형이 전권대신으로 6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맺은 조약임. 조약을 일본 도쿄에서 맺은 것은 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 조약문은 전문 13관의 본 조약문과 부속 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부약속관(附約續款), 세칙(稅則), 세칙장정(稅則章程) 등을 수록함. 내용은 우호 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왕래의 자유와 관세규정, 밀무역의 금지, 특권의 균등 등을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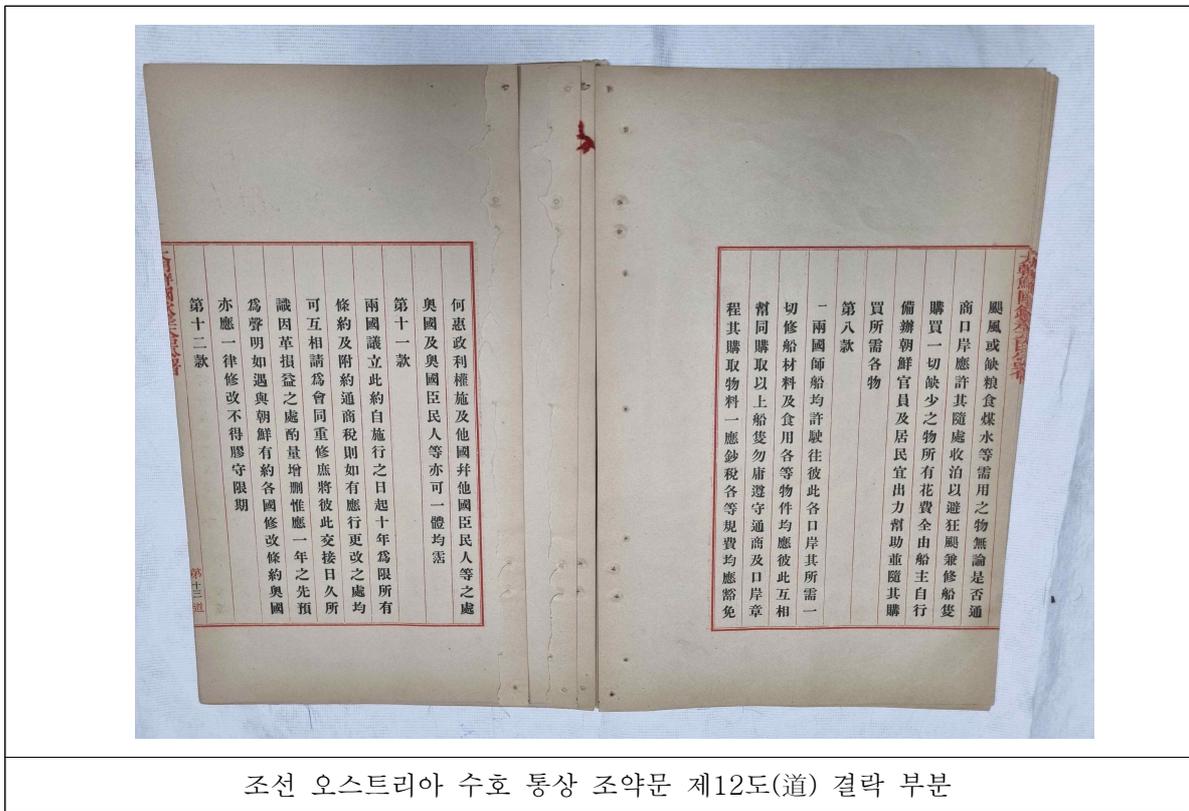
- 이 조약의 특징은 민회수의 연구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체결의 정치적 의의」 (『奎章閣』 Vol.35, 2009)에 따르면 조선의 반청자주(反淸自主) 정책과 오스트리아의 러시아 견제라는 상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기존에 1880년대에 이루어졌던 미국과의 조약 및 영국, 독일과의 조약 등은 청이 조선이 청의 속방이나 내치(內治)와 외교(外交)는 자주(自主)라는 문구를 넣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언제나 청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면 오스트리아와의 조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문구를 거부함으로써 조선 측에서는 청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와 대등한 국가로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이는 표지와 본문에 ‘대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는 등 황제국을 칭하는 호칭을 쓴 것으로도 드러남. 따라서 이 조약문은 1890년대 초반 조선의 자주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임.
- 표지와 뒷면은 모란 등 무늬가 있는 청색 비단으로 싸여 있으며, 표지에는 왼쪽 상단에 백색 비단에 테를 두르고 표제를 “大朝鮮奧國修好通商條約”이라고 필사로 써 붙였음. 내지는 한지를 사용했으며 어미 위쪽에 ‘大朝鮮欽差大臣公署“를, 아래 쪽에는 쪽 수를 뜻하는 “第 ○ 道”를 넣고 붉은 색으로 테를 넣은 형식으로 조약문으로 쓸 종이를 조선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이며, 이 종이를 사용해서 정리된 조약문 내용을 도쿄에서 연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보임.
- 조약문이 끝나는 부분에는 오스트리아와 조선의 전권대신의 사인 및 수결, 인장이 있어 이 책자가 조약문 원문임을 알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을 1957년에 개인에게서 구입했다고 함.
- 현재 오스트리아 국가기록원에도 조선과 통상 조약을 맺은 조약문 원본이 소장되어 있음. 청색 비단 표지에 싸인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 조약문> 책이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뒷표지만 제시되어 있음. 이는 왼쪽에서 시작하는 횡서 개념으로 책을 파악해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표지의 비단이나 표제 등이 조선의 전통적인 제책 방식에 따라 원래대로 붙어 있으며, 5선침으로 책을 묶었던 실은 남아서 끊어져 있으며 책 등의 위·아래에는 청색 비단을 덧대 책 모서리가 헤지는 것을 방지한 흔적이 남아 있음. 조약문 전체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제12도(道)의 두 쪽이 결락되어 조약문의 8관 일부, 9관, 10관 일부 등이 누락되어 있음.
- 현재 소장자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보존처리를 진행중임.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 제12도(道) 결락 부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장자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서에 적합한 보존 환경을 지니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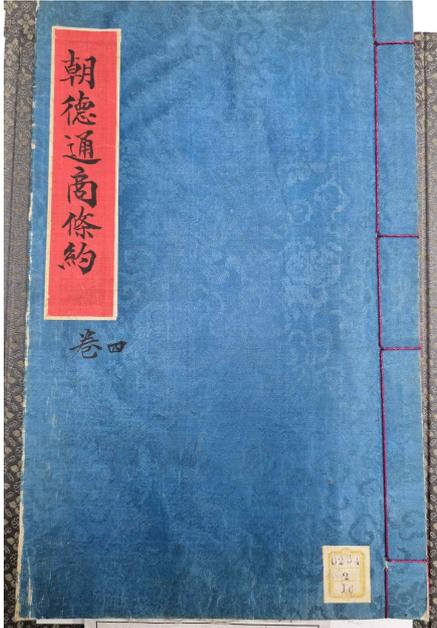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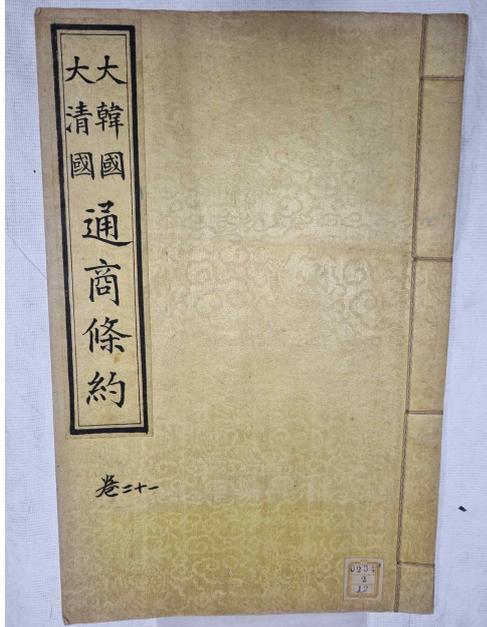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기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조영통상조약(朝英通商條約)>, <조덕통상조약(朝德通商條約)>, <조아통상조약(朝俄通商條約)>, <조법통상조약(朝法通商條約)>, <조청통상조약>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개항기 외교 통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개항기 조약 문서로 <조영통상조약>(1883), <조덕통상조약>(1883), <조아통상조약>(1884), <조법통상조약>(1886),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1899) 등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조영통상조약>은 1883년 11월 26일에 조선과 영국 사이에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稅則章程)」, 「선후속약(善後續約)」을 조인한 것으로, 당시에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필사본 1책임. 1998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109호로 지정됨.
- <조덕통상조약>은 <조영통상조약>과 같은 날인 1883년 11월 26일에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문으로 조약문,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세칙, 속약 등 5개 부분으로 이루어짐. 각 본의 말미에 조약 체결 당시 조선 측의 전권 민영목(閔泳穆), 독일 측의 전권 잡페(擦貝 : Ed. Zappe)의 서명이 들어 있으며 한문본(65쪽)·영문본(75쪽)·독문본(95쪽)의 3책으로 구성됨. 한문본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싸여 있으며 왼쪽 위에 붉은 색 종이가 된 제첩에 ”朝德通商條約“이라고 쓰여 있음. 1998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제110호로 지정됨.
- <조아통상조약>은 고종 21년(1884년) 7월 7일(음력 윤5월 15일)에 체결한 것으로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전문 13조의 <조아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조」를 조인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조선국 전권 대신 김병시(金炳始, 1832-1898)의 수결과 도장, 러시아 공사 베베르(1841-1910)의 도장과 사인, 대군주(大君主) 고종의 수결과 옥새가 찍힌 한문본(漢文本), 역시 김병시의 수결과 도장, 베베르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러시아어본, 수결과 도장이 없는 한문 필사본 등 3종이 소장되어 있음.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싸여 있고 왼쪽 위에 붉은 색 종이가 제첩되어 있고 필사로 ”朝俄通商條約“이라고 쓰여 있음. 보존 상태는 양호함. 수결과 사인, 직인이 있는 한문본과 러시아어본 2책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음.
- <조법통상조약>은 1886년(고종 23) 6월 4일(음력 5월 3일)에 조선과 프랑스 제3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전문 13조의 「조법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의 1책 33장의 한문 필사본이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되어 있음.
-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9년(광무 3년) 9월 11일에 체결된 한·청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으로 본문은 15조로 되어 있으며 대한제국과

대청국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왕래, 통상을 할 것을 체결한 근대적인 조약문임. 표지는 황색 비단으로 싸여 있으며 왼쪽 제첩에 ‘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이라고 쓰여 있음. 한문 필사본 1책이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11호로 지정되어 있음.

	
<p>조덕 통상조약 표지</p>	<p>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 표지</p>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이 조약문들에 견주어 뒤질 것이 없으나, 1880년대에 이루어진 다른 조약문들은 그 가치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었던 반면 1892년에 이루어진 조약은 시기적으로도 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조선 간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점 등 때문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p>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p>	<p>규장각 보관 문화재청 기탁본</p>	<p>규장각 보관 한국은행 기탁본</p>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문화재청 소장본과 한국은행 소장본이 기탁되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개인에게 구입했으며, 문화재청 소장본은 국유, 한국은행 소장본은 1955년 등록으로 되어 있으나 소장경위는 확실하지 않음. 문화재청 소장본은 규장각본은 능화문이 있는 황색 종이로 싸여 있으며, 한국은행 소장본은 무늬가 없는 황색 종이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다소 손상됨. 제첩은 국립중앙도서관본은 흰색 비단에 필사로 “大朝鮮 奧國 修好通商條約 單”이라고 쓰여 있으며, 문화재청 소장본도 흰색 비단 제첩에 “朝奧通商條約”이라고 간단히 쓰여 있음. 한국은행본은 종이에 인쇄로 “大朝鮮 奧國 修好通商條約”으로 활자로 인쇄한 제첩을 붙임.
- 3본은 모두 연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있어 내용은 동일하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통상조약 본문 뒤, 부속통상장정 뒤, 부속약관 뒤에 조약 당사자의 수결 및 사인과 도장이 있으나 규장각 보존 본에는 두 본 모두 날인이 없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원본이고 다른 본들은 사본임을 알 수 있음. 사본은 조약 체결 후 관련 관청 등에서 참고하도록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대군주의 수결 및 대군주보 인장이 찍혀 있으나 다른 본에는 들어 있지 않음. 한국은행 소장본에는 “京城 本町 二町目“에 있었던 ”門光 堂書店“에서 판매한 종이가 붙어 있어 일제시기에 매매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상에서 종합할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오스트리아와 조선이 1892년에 조약을 체결한 조약문 원문으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됨.

7) 등록가치의견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문>은 1892년에 조선이 자주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통상 조약을 맺은 문건으로 유일한 원본이며 2장이 결락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문화재로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조약문의 표지에는 “대조선오국수호통상조약(大朝鮮奧國修好通商條約)”으로 되어 있으나 등록시 명칭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892년 6월 23일(음력 5월 29일)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하 오스트리아)가 도쿄에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은 조선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각각 전권대신으로 임명한 주일 조선공사 권재형(權在衡)과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 로저 디 비게러벤(Roger de Biegeleben)이 조약 협상 및 체결에 임했음.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은 조선 정부가 청국의 간섭 속에서 반청자주(反淸自主)의 목적을 제한적으로나마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음.
-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 상인의 활동 범위를 조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 정부와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음.
- 1893년 10월 6일(음력 8월 27일) 조선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는 한양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양국 사이에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었음.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은 1) 총 13관으로 구성된 본 조약, 2)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3) 세칙장정(稅則章程), 4) 고종의 비준서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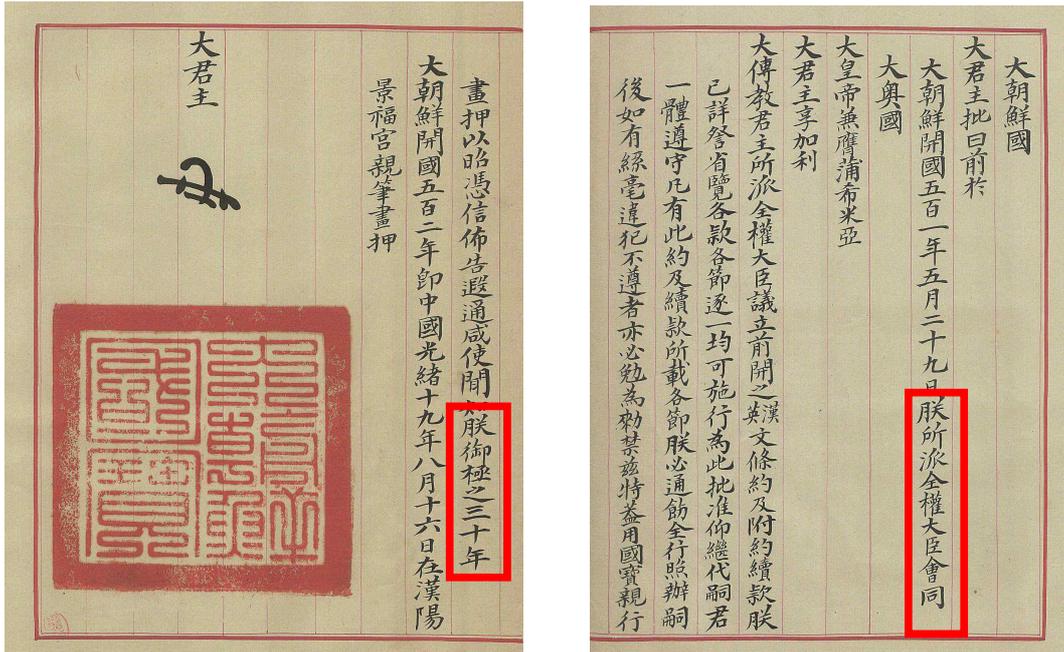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경위
 - 1880년대 중반 조선 정부는 청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독립국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조약 체결을 고려하였음.
 - 1880년대 말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그때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 폰 지볼트(von Siebold)와 그의 후임 비게러벤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경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본국에 제출함.
 - 1888년을 전후로 조선에 진출하려는 오스트리아 상인들이 등장함. 당시 조선 정부는 오스트리아인의 조선 입국 관련 행정절차를 조선 주재 독일 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함.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이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했음. 그 법적인 장치가 바로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이었음.
 - 1889년 주일 오스트리아 대리공사는 주일 조선 공사 김가진(金嘉鎭)에게 수호통상조약 체결 의사를 타진함. 그 때 대리공사는 김가진에게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의 오스트리아 측 초안을 마련해 두었으며, 조약 체결을 위해서 조선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조약 체결의 적극성을 보임.
 - 1890년 2월 11일(음력 1월 22일) 김가진은 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오스트리아의 조약 체결 의지를 보고함.
 - 1891년 8월 김가진은 조선의 청국 측 관리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도쿄로 귀임함. 주일 조선공사관에는 오스트리아 공사가 전달한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의

오스트리아 초안이 있었음. 김가진은 일단 그 초안을 휴대한 채로 조선으로 귀국 하였음. 1891년 10월 13일(음력 9월 11일) 해당 사실을 고종에게 보고함.

- 그 해 10월 23일(음력 9월 21일) 김가진은 주일 조선 공사관의 서기관 권재형을 오스트리아와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담당자로 추천함. 이에 그해 12월 고종은 권재형에게 오스트리아와 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부여함.
- 1892년 초에 권재형과 비게러벤 사이에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됨. 조약문의 작성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이견은 거의 없었음. 하지만 권재형이 제출한 ‘속방조회(屬邦照會)’는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음.
- 1892년 3월 1일(음력 2월 3일) 권재형은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지만 내치(內治)와 외교(外交)는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내용의 ‘속방조회(屬邦照會)’를 비게러벤에게 제출함. ‘속방조회(屬邦照會)’는 고종 명의로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보내는 공식 문건에 해당했음.
- 1892년 3월 7일(음력 2월 10일) 비게러벤은 군주 간의 교류 예절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속방조회(屬邦照會)’의 접수를 거부함. ‘속방조회(屬邦照會)’를 군주 간에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정부 사이에 오가는 문서로 대신할 것을 제안함. 이에 권재형은 조선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속방조회(屬邦照會)’를 보낸 전례를 지적하면서, 해당 문건의 접수를 요구함. 아울러 권재형은 해당 사실을 고종에게 보고함.
- 고종은 1892년 3월 21일(음력 2월 24일)자 서신에서 해당 사실을 주일 청국공사 리징광(李經方)에게 알려서 협의할 것을 권재형에게 지시함. 이어서 조선 정부는 권재형에게 ‘속방조회(屬邦照會)’를 관철시킬 것을 분명히 함.
- 청국의 북양대신 리홍장(李鴻章)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있었던 위안 스카이(袁世凱)는 조선 정부가 ‘속방조회(屬邦照會)’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1892년 6월 23일(음력 5월 29일)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
- 반청자주(反淸自主)의 목적을 제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
 -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정부, 특히 고종은 청국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했음. 고종은 오스트리아와 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외적·외교적으로 인정받고자 했음.
 - 하지만 고종은 오스트리아 황제 앞으로 ‘속방조회(屬邦照會)’를 보내려고 함으로써 청의 속방화 정책을 온전히 거부하지는 못했음. 이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서 청국의 영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와 고종은 청국의 중재를 받지 않고 비교적 청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일본의 도쿄에서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청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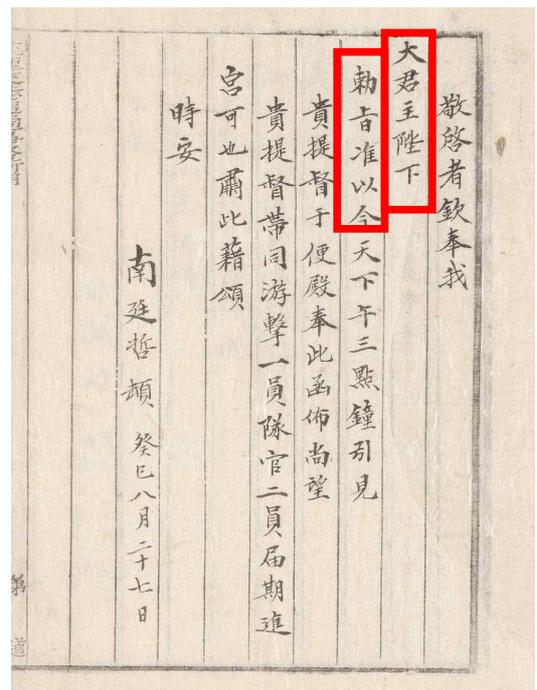
- 1893년 9월 25일(음력 8월 16일)자 고종의 서명이 들어간 조선 측 비준서에는 황제를 지칭하는 “짐(朕)”이라는 단어가 사용됨. “짐(朕)”이라는 단어는 고종이 반청자주의 일환으로 추진한 박정양의 주미공사 파견 과정에서 등장함. 즉 고종은 박정양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에게 보내는 국서(國書)에서 본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짐(朕)”을 사용하였음.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에 수록된 고종의 비준서

- 1893년 10월 조선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비준서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조선 측 관리와 오스트리아 전권대사 베커(Alois Ritter von Becker) 일행 사이에 오간 서신에서도 고종을 지칭하는 단어로 황제를 의미하는 “폐하(陛下)”, “칙(勅)”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해당 내용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奧約議案』(奎23465)에서 확인 가능함).

- 즉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의 일련의 과정을 보노라면 고종과 조선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청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반청자주(反淸自主)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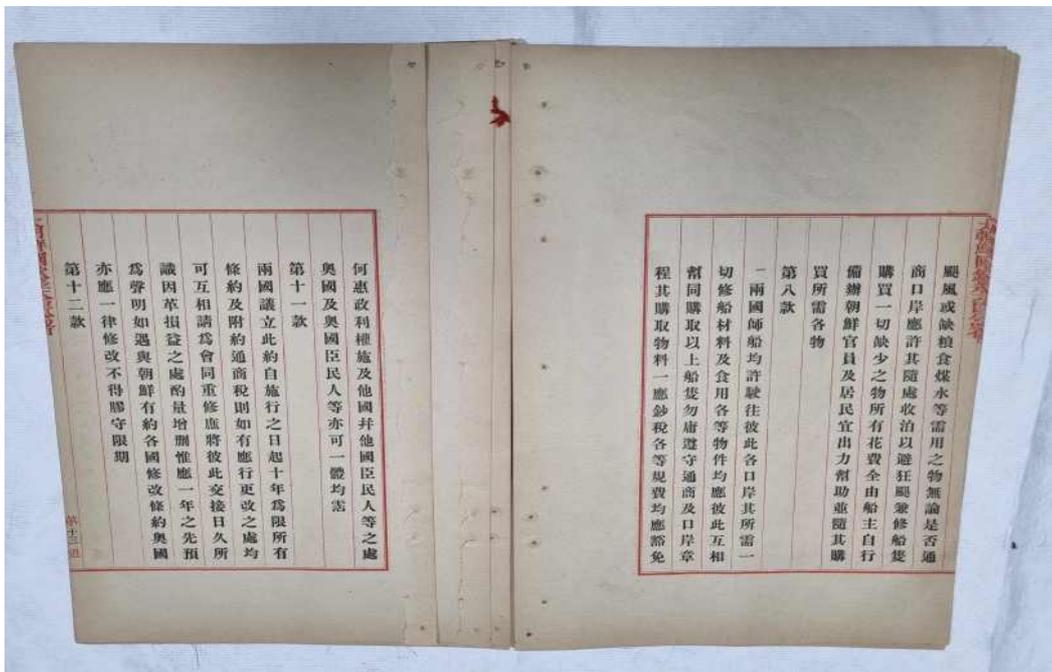


『奧約議案』(奎23465)

- 조선·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음의 수호통상조약*은 국내 소장 여부가 불분명함.
* 조일수호조규(1876),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이(이탈리아)수호통상조약(1884), 한비(벨기에)수호통상조약(1901), 한단(덴마크)수호통상조약(1902)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의 소장 상태는 양호함. 일부 종이의 경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소장처의 관리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음.
-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기 이전에 조약 8관 일부부터 10관 일부에 해당하는 종이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의 8~10관 사이의 누락된 부분. 해당 누락된 부분이 임의로 찢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참고로 8관은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의 항구에 도착할 경우의 규정 및 조선 연해의 항로 탐사에 조선 정부가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9관은 조선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인들이 조선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 및 조선인들도 오스트리아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조선인과 오스트리아인 모두 체약국에서 유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10관은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조선에서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아울러 표지의 “大朝鮮奧國修好通商條約”이라는 표찰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기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부착된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오스트리아 국가 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의 표지에는 표찰이 존재하지 않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299,194건의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기록문화유산 관리 기관임. 특히 2종 26책의 국보를 비롯해서 10종 19책 (17책+1괄+1축)의 보물, 5종 8책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6종40책의 등록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의거해서 고서를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 및 관리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해당 기록물들의 경우 130년 전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국교 수립을 시계열적·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에 해당함.
- 나아가 1890년대 초반 고종과 조선 정부가 추진한 반청자주(反淸自主)의 외교적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료에 해당함.
- 즉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은 고종과 조선정부의 반청자주(反淸自主)에 입각한 외교적 노력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구축된 국교관계의 기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료에 해당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조선과 대한제국이 외국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중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음 조약들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생산 연대	서명	작성 언어	책 수	서울시 유형문화재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1883	조영통상조약	영어	1	제109호	古貴0234-2-10
1884	조아통상조약	러시아, 한문	2	제108호	古貴0234-2-21~ 22
1884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한문, 영어, 독일어	3	제110호	古貴0234-2-16~18
1886	조불통상조약	한문	1	제112호	古貴0234-2-11
1892	대조선오국수호통상조약	한문	1	-	古貴659-1
1899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한문	1	제111호	古貴0234-2-12

- 위 통상조약들은 1998년 12월 26일자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확정 고시되었음.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도 소장하고 있었으나 1998년 심의 당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그 이유를 추론하자면 1998년 당시 학계에서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체결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 민회수(현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에 의해서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 체결 및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연구가 시도됨.

(민회수,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奧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규장각』 35, 2009, 151-184쪽)

- 2000년대 새롭게 나온 연구성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나는 『朝奧通商條約』(奎23464)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탁 『大朝鮮奧國修好通商條約』에 해당함.
- 두 자료 모두 전권위임자의 서명, 도장 등이 누락된 조약문에 해당함. 즉 두 자료는 조선 정부에서 내부 회람용으로 제작한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의 사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은 원본으로 가치가 있음.
 - ※ 현재 오스트리아 국가기록원에서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의 오스트리아 보관본을 소장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은 1890년대 초반 고종과 조선 정부가 추진한 반청자주(反淸自主)의 외교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의 등록문화재 지정은 조선·대한제국이 대외적으로 독립국임을 천명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산물에 해당하는 수호통상조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조선·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이관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해당함. 즉 조선·대한제국이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의 경우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 개인으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조선·대한제국이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을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로서 관리·보존함으로써, 장차 한국의 역사문화유산으로 후세에 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국가기관(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문>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때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약칭 조오수호통상조약)으로 할 것을 권유함. 학계에서는 조선과 미국, 혹은 조선과 영국이 체결한 조약을 각각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임.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의 조선 측 전권대신은 권재형(權在衡)임(1903년 권중현(權重顯)으로 개명). 그는 1905년 11월 농상공부대신으로 을사늑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을사오적’ 중 한 명에 해당함.

- 이후 군부대신을 지내면서 의병 탄압에 앞장섰음. 그 공로로 1908년 일본 정부는 권중현에게 훈1등 욱일대수상을 수여함. 1910년 일본의 강제적인 한국병합조약 체결 직후, 권중현은 친일행위의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음.
- 일제강점기 중추원 고문을 비롯해서 각종 친일단체에서 활동하였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권중현의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7·9·19호에 의거)
- 다만,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정에는 1890년대 초반 반청자주(反淸自主)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종과 조선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 그런 이유로 해당 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행위를 친일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약 체결의 과정에는 권재형의 의도보다는 오스트리아와 조약 체결을 고려했던 고종과 주일 조선공사 김가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 관점에서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보기 어려움.
-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권재형에 관해서는 위의 내용을 함께 부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어 보임.

<○○○○○○○○○○ ○○○○○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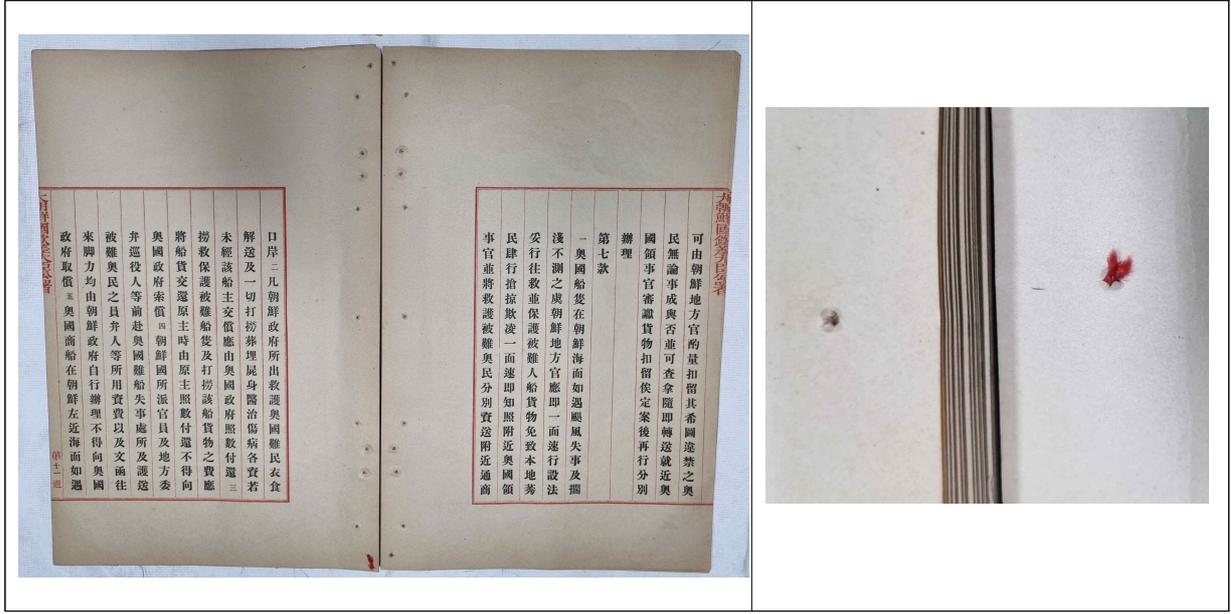
- 1892년 6월 23일(음력 5월 29일)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일본 도쿄에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전문과 고종의 비준서가 있는 기록물.
- <조오수호통상조약>은 반청자주를 위한 외교다변화를 추구한 조선의 대외정책과 러시아를 견제한 오스트리아의 대외정책이 배경.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한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조오수호통상조약>의 한문 원본임.
- 조약 체결을 담당한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 조선의 권재형(權在衡)과 오스트리아의 비겔레벤(Biegleleben, R. de)이 서명(署名)하고 인장을 찍음.
- 1893년 8월 16일에 고종이 어필로 조약 비준 내용을 쓰고 화압(畫押)을 했고, 국보[大朝鮮國寶]를 찍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은 오침(五針)으로 묶었던 장황(粧潢)에서 책사(冊絲)가 모두 풀려 낱장 형태로 원형 변형이 있음. 간혹 책사를 묶었던 자리에 홍사(紅絲) 조각이 끼어 있음.
- 본문 제12장이 찢겨 나간 위치에 책사로 묶여 있었던 부분만 잔존.
- 판심제(版心題) ‘大朝鮮國欽差大臣公署’가 선명히 찍혀 있고, 본문 종이도 상태 양호.



원형 변형 모습(좌), 책사 조각 모습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조선 오스트리아 수호통상 조약>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관리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1890년대 초반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약으로 학술 연구에 중요 자료.
-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여타 조약의 원형 복원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함.

6) 동일 유형 기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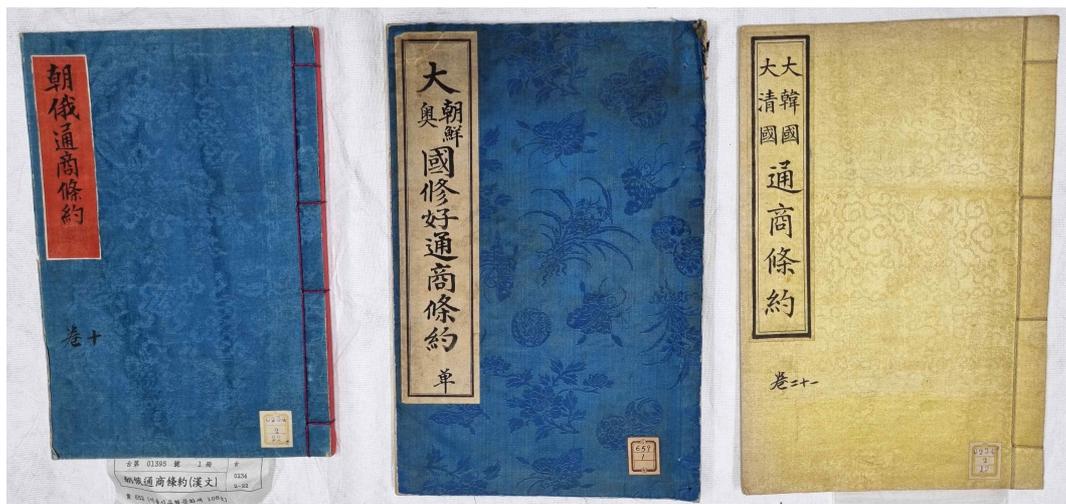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조약과 상황 비교
 - <조오수호통상조약>의 표제는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11호)의 표제와 유사한 형태. 이 형태는 조선 왕실에서 비단으로 장황한 서책의 표제 형태임.
 - <조오수호통상조약>의 상황을 통해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의 표제가 본래 모습을 지닌 원형이며, 그 외의 서울시 유형문화재는 개장된 형태임을 알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조아통상조약>(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8호)의 표제(붉은 비단)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는 <조의조약>(奎23455)과 <조아통상조약>(奎23258)과 유사한 형태. 붉은 비단에 쓴 제목의 자양과 자간 형태가 조약함. 일제강점기에 표제를 개장(改粧)한 것으로 추정.

朝奧修好通商條約(오스트리아)	朝義條約(이탈리아)	朝俄通商條約(러시아)
연대: 1892년	연대: 1884년	연대: 1884년(?)
版心: 大朝鮮欽差大臣公署	版心: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統理交涉通商事務
국립중앙도서관 古貴659-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34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32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여타 조약과 비교



좌: 조아통상조약(제108호), 우: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제111호)

소장경위: 구입(1957.8.6.) 版心題: 大朝鮮國欽差大臣公署 張次: 第一道 국립중앙도서관	소장경위: 국유재산 위탁관리 版心題: 大朝鮮國欽差大臣公署 張次: 第一道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경위: 한국은행 등록(1955년) 版心題: 上下向赤魚尾 張次: 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오수호통상조약>과 비교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오수호통상조약>과 비교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한 원본임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조약과 비준서 비교

- 1892년에 조선에서 체결한 <조오수호통상조약>에는 개항기 조선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음. 비준서에 나타나는 '朕'이나 전권대신들의 문서에 나타나는 '大君主陛下'는 황제국의 위상에 사용함.
- <조오수호통상조약>에 찍은 어보 [大朝鮮國寶] 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大韓國璽] 를 사용하기 전의 실상을 보여줌.
- 조약의 비준서에 찍은 어보의 크기: 세로 9.7cm x 가로 9.7cm

1884년(제108호, 제110호)	1892년(조오수호통상조약)	1899년(제111호)
대조선국대군주보 大朝鮮國大君主寶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대한국새 大韓國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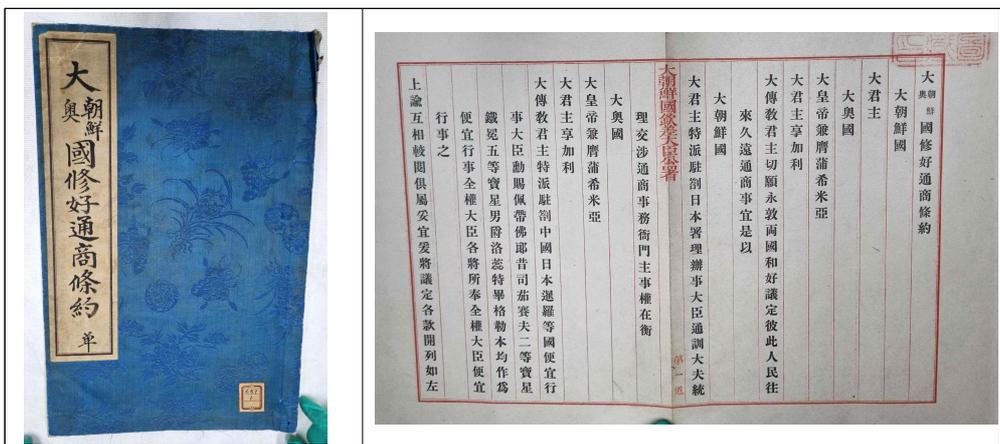
시대 추이에 따른 조선 어보(御寶)의 인문(印文) 변화

7) 등록가치의견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오수호통상조약>(古貴659-1)은 조선과 오스트리아 수교의 역사적 현장을 담고 있는 기록유산.
- 1892년 6월 23일(음력 5월 29일)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일본 도쿄에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전문과 고종의 비준서가 있는 기록로서 반청자주를 위한 조선의 대외정책을 반영하고 있고, 고종의 친필과 어압, 어보가 찍힌 비준서 원본으로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등록가치가 충분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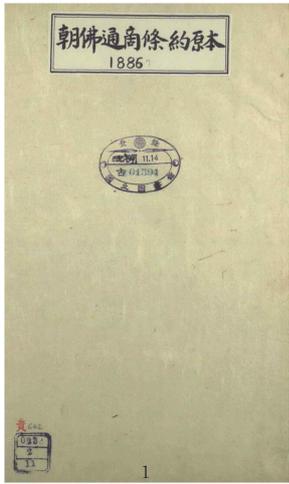
- 대상 문화재는 비단으로 장황한 책의(冊衣)의 외면(外面)에 쓴 표제(標題)와 본문 첫 줄에 있는 권수제(卷首題)가 모두 ‘대조선국대오국수호통상조약(大朝鮮國大奧國修好通商條約)’임. 이 서명에서 ‘大’자와 ‘國’자가 중복되므로 대자와 국자 사이에 병렬로 ‘朝鮮’과 ‘奧’를 넣은 것임. 우측 사진 본문에서도 ‘大朝鮮’과 ‘大奧國’으로 지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대상 문화재 명칭은 1892년 작성 당시에 명명한 ‘대조선국대오국수호통상조약(大朝鮮國大奧國修好通商條約)’이 가장 정확한 서명임. 간략 명칭을 고려한다면 『고종실록』(고종 29년 5월 29일) 기사에 따라 ‘조오수호통상조약(朝奧修好通商條約)’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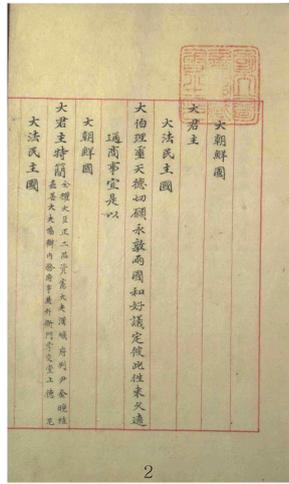
표제(標題)와 권수제(卷首題)

<참고> 통상조약 서울시 지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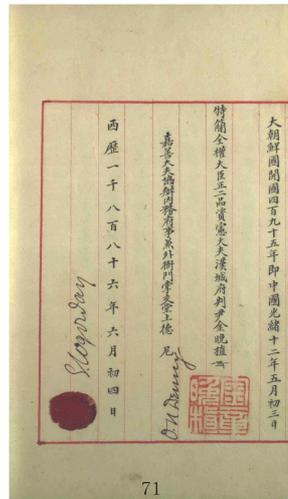
<p>1</p>	<p>2</p>	<p>123</p>	<p>124</p>
<p>조영통상조약 표지</p>	<p>첫 장</p>	<p>전권대사 서명, 인장</p>	<p>비준서</p>
<p>1</p>	<p>3</p>	<p>61</p>	<p>64</p>
<p>조아통상조약 표지</p>	<p>첫 장</p>	<p>전권대사 서명, 인장</p>	<p>비준서</p>
<p>1</p>	<p>4</p>	<p>62</p>	<p>65</p>
<p>대조선국·대덕국 통상조약 표지</p>	<p>첫 장</p>	<p>전권대사 서명, 인장</p>	<p>비준서</p>



1
대조선국·대법민주국
통상조약



2
첫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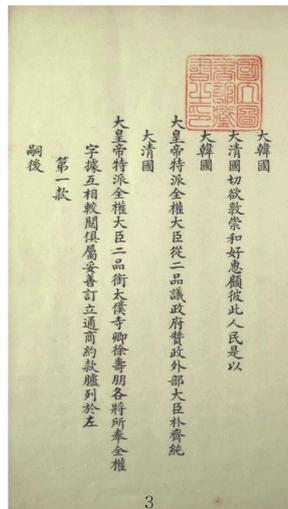
71
전권대사 서명,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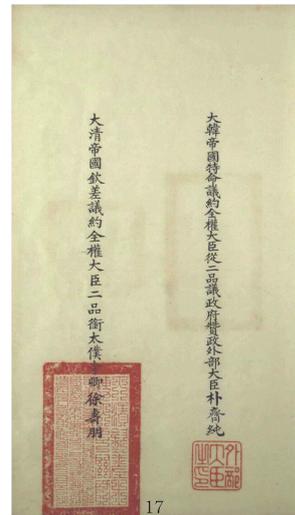
73
비준서



1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표지



3
첫 장



17
전권대사 인장



18
체결일



20
대한국새

12. 「민영환 예복 일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민영환 예복 일습」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영환 예복 일습」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6.30.)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9.2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려대학교 박물관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환 예복 일습	6건 7점 (정모, 입전모, 대례의, 바지, 대례견장 2점, 식대)	대례의 길이 64cm 등	1897~1900년 추정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2.6.30.)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2.9.2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 건은 순국지사 충정공 민영환이 착용하였던 신식 군대 복장임. 1897년 개정된 육군복장 규칙의 정장을 이루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12개 중 7개 소장) 복식사 연구에 활용 가치가 높고, 민영환 선생의 후손이 보관하다 기증한 것으로 유물의 출처 또한 명확함. 다만, 민영환의 신식 군대 복장 중 일부가 신청 당시 누락되었음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9.29.)

- 본 유물은 그 자체로서 등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
- 다만, 등록 신청 유물 외에도 소장처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상복(常服) 상의, 소례견장, 식서, 도대(刀帶) 등이 있음. 민영환 착용 서구식 군복 일습은 미 신청된 유물들을 함께 조사해야만 유물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일습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22.9.29.)

- 민영환 예복 일습은 복장 착용자의 계급이 높고, 보존상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을사늑약 이후 순국한 우국지사가 착용한 군복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함
- 다만, 예복 구성품에서 도대와 정식서가 누락되었고, 상복 유물도 누락되었으므로 신청되지 않은 유물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2.9.29.)

- 민영환 예복 일습은 을사늑약 당시 자결 순국한 '민영환'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착용하였던 육군복장이며, 대한제국 당시인 1897년에 개정된 육군복식 규칙에 의해 제작된 완전한 형태의 육군복장이라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신청된 유물과 함께 미 신청된 예복 관련 유물 10점이 있기 때문에 이 미신청된 유물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보류

- 미신청된 예복 관련 유물 추가 조사 필요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1> 등록신청 유물 및 미신청 유물



등록 신청 유물(6건, 7점)



등록 미신청 유물(5건, 10점)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민영환 예복 일습
2.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박물관
3.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4. 제작년대 : 1897년~1900년
5. 수 량 : 6건 7점
6. 규 격
 - 정 모: 윗지름 20.5cm×18cm, 앞높이 12.5cm, 뒷높이 14.5cm
 - 입 전 모: 길이 40.8cm
 - 대 례 의: 뒷길이 64cm, 품 42cm, 소매길이 52cm
 - 바 지: 길이 100cm, 허리둘레 78cm
 - 대례견장: 길이 17cm, 너비 13cm
 - 식 대: 길이 134cm, 너비 5cm
7. 재 질
 - 정 모: 흑융, 가죽, 양고직(금선)
 - 대 례 의: 흑융, 홍융
 - 바 지: 흑융, 홍융
 - 대례견장: 금사광직
 - 식 대: 적사광직, 은사
8. 조사자 의견('22.9.29.)

<문화재위원 ○○○>

1) 개요

- <민영환 예복 일습>은 조선 말, 개항기에 문신이자 개화 관료였던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 일습임. 내용은 정모(正帽, 모자), 대례의(大禮衣, 상의), 고(袴, 바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례의 양쪽 어깨에 부착하는 견장(肩章) 2점, 역시 대례의에 착용하는 식대(飾帶)로 구성됨.

- 순국지사인 민영환이 착용했던 것으로, 후손이 2005년 민영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소장 경위가 명백하며 역사적 의의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민영환 예복 일습>은 민영환 선생의 부인인 박수영 여사가 잘 간직해 왔으며 그 후손인 민병진 선생의 가족이 한국전쟁 중에도 고이 간직하였으며, 민영환 선생의 손자인 ○○○ 전 ○○○○○ 교수가 2005년 민영환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유품 일체를 기증함. 서구식 군복은 다른 민영환의 유품과 함께 기증된 것임.
- 민영환 선생은 1877년(고종 14)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으며, 이듬해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정자(正字)·검열·설서(說書)·수찬(修撰)·검상(檢詳)·사인(舍人) 등을 역임하고 1881년 동부승지, 이듬해 성균관 대사성에 발탁되었으나 1882년 폭발한 임오군란의 발발로 아버지 민검호가 살해되자 사직함. 이후 1884년 다시 관직에 나갔고 1887년에는 상리국 총판(商理局總辦)·친군전영사(親軍前營使)를 거쳐 호조 판서가 됨. 1888년과 1890년 두 차례 병조 판서를 역임하고, 1893년 형조 판서·한성 부윤, 1894년 독판 내무부사·형조 판서가 되었으며, 1895년 8월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됨. 1896년 4월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명 전권공사로 임명되어 윤치호(尹致昊)·김득련(金得鍊)·김도일(金道一) 등을 대동하고 참석했으며 1897년 1월에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가 되어, 영국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참석함. 1898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내부 대신 겸 군부 대신을 지냈고 잠시 관직을 떠났으나 그 뒤 다시 참정 대신·탁지부 대신을 지냈고, 원수부(元帥府)의 회계국 총장·장례원경·표훈원총재·헌병 사령관을 등을 역임하였고, 훈일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과 대훈위이화장(大勳位李花章)을 받음. 러일전쟁 후 다시 내부대신·군법교정총재(軍法校正總裁)·학부대신을 역임하고 1905년 잠시 참정 대신·외무 대신을 역임하였으나, 다시 시종무관으로 밀려난 뒤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자, 백관들과 연소(聯疏)를 올려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 하였음. 상소로 인해 왕명 거역죄로 구속되어 평리원(平理院: 재판소)에 가서 대죄한 뒤 풀려난 뒤 국운이 이미 기울어졌음을 깨닫고 죽음으로 항거하여 국민을 각성하게 할 것을 결심, 본가에서 자결함.
- 민영환 후손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많은 유품 중에는 조선시대 군복인 동다리와 구군복도 있으나 서구식 군복으로 예장(禮裝) 일습과 상장(常裝)이 있음.

<p>예모, 입전모</p>	<p>예장 상의(上衣)</p>
<p>대례견장</p>	
<p>예고(하의)</p>	<p>식대</p>

○ 서구식 군복 제도는 1895년에 시작되었으며 상의가 가운데에서 단추로 여미는 싱글 브레스티드 형식이었으며 1897년에는 매듭 단추로 여미는 이른바 늑골식(肋骨式)으로 바뀜. 서구식 군복은 참석하는 행사나 상황에 따라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으로 구분함. <민영환 예복 일습>의 복식은 1897년에 개정된 형태를 따르고 있음.

- 예모는 검은 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앞 챙은 가죽을 덧댄. 상부가 납작하고 붉은 색 용으로 제작한 이화문이 장착되어 있고, 모자의 끈이 8줄로 부장의 예모이며 모표는 이화문을 중심으로 이화꽃가지와 무궁화꽃가지가 교차되어 있음. 입전모는 깃털을 꽂아 만든 것으로 예모의 부속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 대례의는 검은 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앞여밈이 매듭단추로 여미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 예장이 1897년에 개정된 군복 형식임을 알 수 있음. 깃과 소매 끝에 붉은 색 용을 부착했으며 깃의 의령장에는 정도기자형(正倒己字形)이 수놓아져 있어 장관급임을 알 수 있으며, 상의 소매의 인(人)자 형 수장은 8줄로 되어 있어 육군 부장(副將)이 입는 복식임을 알 수 있음.
- 어깨에 다는 견장은 금사(金絲)로 직조했으며, 이화문(李花紋) 3개가 연이어 있고, 안쪽에는 이화문이 새겨진 단추가 있음. 이러한 형태의 견장은 일반적인 군복의 견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민영환이 원수부 회계국 총재로 있을 때의 견장으로 추정됨.
- 바지인 예고도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바지 측면에 붉은 색 천으로 봉장(縫章)을 두는데 선의 너비와 두는 개수에 따라 계급의 차이를 둠. 장관은 너비 7분으로 3줄임.
- 식대는 적색의 넓은 끈[赤絲廣織]에 술을 두는데 하수(下垂)는 장관은 은사수직(銀絲垂織), 영관은 청사인(靑絲紉), 위관은 황사인(黃絲紉)을 쓰며 민영환 예복에 들어 있는 식대는 은사수직의 술이 달려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민영환 예복 일습>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 다만 예의는 기증 받은 뒤 오랜 동안 마네킹에 걸어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형태가 다소 굳어져 있어 전시를 쉬고 수장고에서 눕혀서 보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모에 꽂혀 있는 입전모(入前毛)는 본래 누어서 보관해야 꽂았을 때 깨끗하게 설 수 있으나 계속 진열되어 있어 깃털이 아래로 처진 상태임. 상설전을 지양하고 유물을 수장고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려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잘 보존되어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전시 및 역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대체로 1897년에 개정된 매듭형 군복은 귀한 편임. 육군박물관에는 매듭형 단추의 보병 부령 상복이 있음. 또한 서구식 군복이 있더라도 착장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민영환 예복 일습>의 경우 착장자가 분명하며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함.

7) 등록가치의견

- <민영환 예복 일습>은 그 자체로서는 등록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나,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민영환 서구식 군복으로는 등록 신청된 6건 7점 외에도 상복(常服) 상의, 소레견장 한 쌍, 식서 3점, 칼을 찰 때 필요한 도대(刀帶)가 있음. 따라서 민영환 서구식 군복 일습은 이를 함께 조사해야만 유물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일습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민영환 서구식 군복 예장과 상장>이 바람직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본 유물은 충청공 민영환(閔泳渙, 1861-1905)이 착용한 대한제국기 군복으로, 2005년 후손인 ○○○ 전 ○○○○○ 교수가 기증하여 현재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 개항 이후 서양식 군복은 1895년 4월 9일에 발표된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육군복장규칙은 군복의 종류, 착용 상황, 구성품에 대한 규정이고, 각 구성품의 형태, 색상, 재료 등 제작과 관련된 규정은 <육군장졸복장제식>으로 발표되었음. 1895년 이후 한일병합 전까지 <육군장졸복장제식>은 1897년, 1900년, 1907년에 크게 변화하였음. 1895년에는 철모형 모자에 한 줄 단추형의 군복이었고, 1897년에는 예복, 상복 모두 원통형 모자에 가슴에 가로 매듭줄을 장식한 늑골복(肋骨服)형의 군복이었으며, 1900년에는 예복은 두 줄 단추형. 상복은 한 줄 단추형으로 변화하였고, 1907년에는 예복의 변화는 없었으나 상복의 색이 카키색으로 바뀌었음
- 본 유물은 1897년에 개정된 늑골복형 예복의 형태로 계급은 대장 아래의 부장에 해당함
- 민영환은 1895년 11월 12일 중1품 육군부장으로 임명되어 군부대신을 역임하였고, 1900년에는 원수부 회계국 총장을, 1904년에는 시종무관장을 역임하였음. 본 유물은 민영환이 1897년부터 1900년 개정 전까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됨
- 신청된 예복 일습에서 함께 소장중인 도대와 정식서가 누락되었고, 상복도 누락되었으므로 재신청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신청된 유물은 정모와 입전모 2건 2점, 대례의 1점, 바지 1점, 대례견장 2점, 식대 1점으로 모두 6건 7점임.
- 1897년 5월 15일에 개정된 조칙 <육군복장규칙>에서 육군의 복장은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이 있었음. 각 복장을 구성하는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도(刀)와 식서(飾緒)는 패착통칙(佩着通則) 조항에 있음. 정식서(正飾緒)는 착용 복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1906년 개정된 <육군복장규칙>을 참고하여 정장과 예장에 패용한 것으로 추정함

<표 1> 1897년 <육군복장규칙>의 복장 구성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
(입전모)			
모(帽)	모	모	모
대례의(大禮衣)	의	대례의	의
고(袴)	고	고	고
대견장(大肩章)	소견장	소견장	고
식대(飾帶)	도구서		도구서
도구서(刀具緒)	도대	도구서	도대
도대(刀帶)	수투	도대	수투
백혁수투(白革手套)	하금	백혁수투	하금
백포하금(白布下襟)	오련단총(五連短銃)	하금	화
화(靴)	화	화	
도(刀)	도	도	도
(정식서(正飾緒))	약식서(略飾緒)	(정식서)	약식서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민영환의 군복은 정장을 기준으로 할 때 모자, 대례의, 바지, 대견장, 식대, 도대, 정식서가 있고, 도구서, 백혁수투(흰색 가죽 장갑), 백포하금(땀받이용 흰색 칼라), 화, 도가 없으며, 규정에 빠져 있는 입전모(立前毛)가 있음
-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 기준 유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정모(正帽) 1점과 입전모(立前毛) 1점

- 정모는 정장과 예장에 착용한 모자임. 정모는 정수리부분과 상반부는 흑색 용(絨), 하반부는 홍색 용으로 만들었음. 정수리 중심에는 홍색의 오얏꽃을 금사로 장식하여 부착하였고 오얏꽃 꽃잎 사이에는 5개의 구멍이 나 있음. 정수리 외변 주위에는 금선으로 만든 양고직(兩股織)을 둘렀는데 양고직은 가운데 고랑이 있도록 짠 브레이드임. 상반부에서 하반부까지 전후좌우에 장관은 세로로 양고직 3줄씩을 붙이도록 하였고, 본 유물에도 있음. 하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로로 양고직 한 줄이 있고 그 아래에 8줄의 양고직이 부착되어 있음. 이 가로선 역시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장이 9줄이고 그 아래 계급으로 가면서 1줄씩 줄기 때문에 부장은 8줄을 붙였음. 하반부 정면에는 타원형의 흑색 용 위에 오얏꽃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무궁화 잎사귀를 수놓은 표장(表章), 즉 모표(帽標)를 붙였음. 턱끈인

이뉴(頤紐)는 금사로 둥글게 짠 것으로 하고 좌우에 단추 각 1개씩을 달았음.
 단추에는 도금하여 주조한 무궁화문양을 새겨 넣었음

- 정모 유물에는 깃털 장식인 입전모(立前帽)가 남아 있음<표 2>

<표 2> 민영환의 정모와 입전모



② 대례의(大禮衣) 1점<표 3>

- 장교는 정장과 예장을 갖출 때 옷옷으로 대례의를 착용하였음. 대례의의 재질은 흑색 용이고 검은색 실로 둥글게 짠 매듭끈으로 흉부를 가로질러 장식한 형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군복 상의를 늑골복(肋骨服)이라고 하였음. 앞 중심선에서는 여미기 위한 매듭단추와 고리가 있고, 좌우 흉부에는 무궁화형태의 매듭장식이 있음. 칼라에 해당하는 의령(衣領)과 수구(袖口)에는 홍색 용을 붙이고 좌우 깃과 앞 중심선 및 도련선에는 검은색 실로 넓게 짠 연(緣)을 둘렀음. 장관의 의령장으로는 윗부분에 정도기자형(正倒己字形)을 금사로 자수하였고 아랫부분에는 일자형(一字形)으로 금사 두 줄을 자수하였음. 수장(袖章)은 인자(人字) 모양으로, 금사로 자수하였는데 부장 계급은 8줄이었음. 인자선의 꼭대기에는 금사로 무궁화를 자수하였음

<표 3> 민영환의 대례의



- 이상의 <육군장졸복장제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작 특징은 다음과 같음. 좌우 허리위치에 입술주머니가 앞면에서 뒷면까지 부착되어 있고, 입술주머니와 뒷면의 좌우 프린세스라인을 따라 흑사광직을 붙였음. 뒷면 좌우에는 위쪽이 뾰족한 화살표 모양의 장식을 붙였고 도나 검을 착용하기 위해 왼쪽은 트여 있었음

③ 바지[袴]<표 4>

- 바지의 재질도 흑색 용이고, 옆선에는 장식과 계급을 표현하는 홍색 용으로 봉장(縫章)을 부착하였음. 봉장은 장관일 때 3줄로, 너비 3분(分)인 선을 가운데에 두고 그 좌우에 너비가 7분 선을 달았음. 봉장은 병과를 나타내는 역할도 하여 예를 들면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으로 규정되었는데 홍색은 일반 육군이었음
- 민영환의 바지 뒷부분에는 바지의 제작처 혹은 주문처를 알 수 있는 옷감이 달려 있었는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었음. 또한 앞면의 여밈부분에는 영국 세비로 거리에 있는 양복점 주소(‘Henry POOLE & Compy. 37, 38, 39 SAVILE ROW, LONDON.’)가 적인 라벨의 No. 아래줄에 민영환의 이름이 적혀 있음. 러시아와 영국의 제작처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표 4> 민영환의 바지 유물



④ 대례견장(大禮肩章) 1건 2점<표 5>

- <육군복장규칙>은 대견장, <육군장졸복장제식>은 대례견장이라고 함
- 대례견장의 재질은 금사로 넓게 짠 직물이고 위쪽은 장방형, 아래쪽은 타원형이 서로 연결된 형태임. 위쪽에는 도금하여 주조한 오얏꽃 문양이 있는 단추가 1개 부착되어 있음. 장관은 타원형 쪽에 금선으로 망처럼 짠 술을 달았음. 장관의 계급장으로는 타원형 위에 금사로 무궁화 잎사귀 두 가지를 교차해서 맺고 가운데에는 홍색과 흑색의 태극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부장의 경우 은사로 별 2개씩을 수놓도록 함(육군박물관 소장 이도재 부장 예복 견장 사진 참고)
- 민영환 대례견장의 경우 계급장이 규정과 완전히 달라서 오얏꽃 세 개를 가운데에 두고 잎사귀를 뺄뺄하게 수놓은 형태임. 규정에 없지만 이와 동일한 견장이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윤용렬의 견장, 서울공예박물관으로 이관된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의 유물에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원수부에 속한 장교의 견장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 대례견장은 대례의 어깨에 있는 고리에 뒷면에 있는 집게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제작되어 있음

<표 5> 민영환의 대례견장 유물

		
<p>육군박물관 소장 이도재 부장 예복 대례견장</p>	<p>민영환 대례견장 좌우 앞면</p>	<p>견장 뒷면</p>

⑤ 식대(飾帶) 1점 <표 6>

- 식대의 재질은 적색의 실로 넓게 짠 직물이고, 장관은 은색 실로 만든 술을 달았음. 민영환의 식대도 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음. 규정에는 없지만 식대를 여미는데 사용되는 버클이 2개 필요한데 유물에는 현재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음

<표 6> 민영환의 식대 유물

		
<p>식대 전체 모습</p>	<p>식대의 술(銀絲垂織)</p>	<p>식대 버클</p>

⑥ 민영환의 유물 중 누락된 항목 <표 7>

-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발행한 『死而不死 민영환』 도록(2005년)에는 정장 혹은 예장에 착용한 도대와 정식서도 제시되어 있지만 본 신청에서 누락되었음
- 같은 도록에 군장 혹은 상장에 착용한 상의(常衣) 1점, 1897년 규정의 소례견장 1건 2점, 원수부 견장 추정 소례견장 1건 2점, 약식서 1점이 더 있음. 이중 상의는 1900년에 개정된 한 줄 단추 형태임
- 또한 육군 복장의 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여 받았을 경우 육군 복장과 함께 패착한 훈장 품목인 대수(大綬)도 2점 있음

(사진출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死而不死 민영환』 도록, 2005., 소례견장: 연구자)

- 이 외에 전통 무관 복식인 동다리 1점, 동다리와 전복이 합쳐진 형태 1점도 있음

<표 7> 누락된 항목

				
도대	상의(常衣)	정식서, 약식서	소례건장 2건 4점	대수 2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신청된 민영환 예복 유물은 1897년 5월 15일에 발표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1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형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입전모의 경우는 모자에 꽂아둔 채로 보관되어 깃털이 많이 벌어지고 탈락이 진행되었음. 견장도 보존처리 및 맞춤형 보관함이 필요함. 그 외 상의, 바지, 식대의 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보존 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매우 우수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본 유물은 을사조약 직후 자결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충정공 민영환이 착용한 것이므로 착용자와 군복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유물임
- 육군복장의 개정이 크게 이루어진 시기 중 1897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작된 군복 유물은 희소성이 크므로 근대 군복사에서 중요도도 매우 높음.
- 유물은 보존처리하고 가능하면 복제하여 전시 및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표 8>

- 현재 국내에 보고된 대한제국기 육군 부장의 예복은 본 유물을 제외하고 모두 3점임. 기 등록된 유물인 육군박물관 소장 이도재 부장 예복,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부장 예복과 미등록된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웅렬 부장 예복임. 이 중 영친왕의 예복이 누골복 형태이지만 어린이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1897년 규정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1897년 규정의 예복은 본 유물이 유일함
- 누골복 형태의 상복(常服) 유물로는 기 등록된 육군박물관 소장 보병 부령 상복이 있고, 미등록된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웅렬의 부장 상복이 있음.

- 본 신청에서 누락된 1900년 규정의 부장 상의(常衣)에는 기 등록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의 유물과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웅렬의 유물이 있음. 영친왕의 유물은 어린이용임

<표 8> 타 박물관 소장 관련 유물

		
<p>육군박물관 소장 이도재 부장 예복(기등록)</p>	<p>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부장 예복(기등록)</p>	<p>육군박물관 소장 보병 부령 상복(기등록)</p>
		
<p>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웅렬의 늑골복형 상복 상의(常衣)</p>	<p>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윤웅렬의 1900년 규정 상복 상의</p>	<p>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의 1900년 규정 상복 상의</p>

(사진 출처 : 연세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전시품 도록』, 1988.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2012.

<https://www.gogung.go.kr/searchView.do?pageIndex=7&cultureSeq=00017808XO&searchRelicDiv4=&searchGubun=ALL1&searchText=%EC%98%88%EB%B3%B5>

- 본 신청에서 누락된 도대는 장관의 것으로, 아직까지 타 박물관에서 보고된 유물이 없음
- 본 신청에서 누락된 소례견장 두 종 모두 기 등록된 바가 없고 희소성이 큼

7) 등록가치의견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민영환 예복 일습>은 계급이 높고 보존상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을사늑약 이후 순국한 우국지사가 착용한 군복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함. 다만 기증된 유물 중 예복 구성품에서도 도대와 정식서가 누락되어 있고, 상복 유물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더 갖추어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육군복장규칙>은 착용 상황에 따라 갖추는 품목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정장, 군장, 예장, 상장으로 복장의 명칭을 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본 유물의 경우 정모+대례의 +바지에 대례견장과 식대를 패착하면 정장이 되고, 소례견장을 패착하면 예장이 될 수 있음. 이 명칭은 1906년 개정에서는 대례장, 군장, 예장, 반예장, 상장으로 명칭 및 종류가 조정되었음
- <육군장졸복장제식>은 복식 품목별로 정모, 대례의, 상의(常衣)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 이 명칭은 1907년 개정에서 변화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1897년의 정모는 1907년에 예모로, 대례의는 예의로 바뀜. 민영환의 유물은 1897년부터 1905년 사이에 착용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는 없지만 이 시기 군복이 착용자가 분명하지 않아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예복(禮服), 상복(常服)으로 구별하여 명명해 왔음
- 본 유물의 경우 누락된 건까지 함께 신청된다면 <민영환 서구식 군복>을 제안함

<참고문헌>

『(구한국)관보』

고려대학교 박물관, 『死而不死 민영환』 도록, 200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의 군복식발달사1』, 1998.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구한국 관보 복식 관련 자료집』, 민속원, 2011.

박가영, 이경미, 「대한제국의 상징 복식, 군복」, 육군박물관, 『강군의 염원, 대한제국 軍을 다시 보다』, 2021.

연세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전시품 도록』, 1988.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2012.

이경미, 노무라 미찌요, 이지수, 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한국문화 83, 2018.

이지수, 노무라 미찌요, 이경미, 「대한제국기 대원수 상복(常服) 고증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99, 2022.

이경미, 이지수, 「대한제국기 육군 부장의 군복 유물 연구」, 2022년 (사)한국복식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문, 2022.

<https://www.gogung.go.kr/searchView.do?pageIndex=7&cultureSeq=00017808XO&searchRelicDiv4=&searchGubun=ALL1&searchText=%EC%98%88%EB%B3%B5>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대한제국 육군 부장(副將) 당시 입었던 예복 일습으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예도 없음)
 - 민영환 예복은 예모 1점, 입전모 1점, 대례의 하점 1점, 하의인 바지 1점, 좌·우 대례견장 2점, 식대 1점이 있음
 - 민영환 예복 일습은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된 육군복장의 완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음
 - 미 신청 유물(총 10점) : 도대 1점, 정식서 1점, 대수 2점, 상복 상의 1점, 원수부 소례견장 1건 2점, 육군 소례견장 1건 2점, 약식서 1점
 - 충정공 민영환은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자, 이에 항거하여 자결 순국하였음
 - 1896년 5월 러시아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축하사절단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모스크바에 갔으며, 1897년에는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 5개국 특명전권공사로 유럽에 체류하면서 영국 빅토리아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였음
- ※ 민영환은 정부로부터 1962년 건국훈장 중장(대한민국장)에 추서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예모(禮帽)
 - 민영환 예모는 정수리, 상반부, 하반부, 차양으로 구성되었고, 깃털로 만든 장식인 입전모(立前帽)가 있음
 - 예모의 정수리와 상반부는 흑색 용, 하반부는 홍색 용, 차양은 검은색 가죽으로 제작되었음
 - 예모는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되었음
- 대례의(大禮衣)
 - 민영환의 대례의는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되었음. 대례의의 소재는 흑용이며, 구자는 흑사원직, 매듭의 머리부분은 근화형, 의령과 수구는 홍색 용으로 연을 들렀음
 - 상의의 길이는 64cm, 품은 44.0cm, 소매길이는 56.0cm
- 바지(袴)
 - 바지는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되었음. 소재는 흑용, 봉장은 홍색 3조로 장관(將官)의 바지에 해당됨. 바지의 뒷면에는 허리둘레를 조절할 수 있는 벨트 역할 장치가 달려 있음

- 바지의 허리 뒷부분에 제작처나 주문처를 알 수 있는 옷감이 연결되어 있음. 민영환의 바지에는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음.

M. Мистеръ(엠. 미스터)

M. Морская 20(엠. 바다(의) 20)

C. Петербург (상트페테르부르크)

- 또한 민영환 바지의 뒷 중심선 솔기 안쪽에는 영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천이 첨부되어 있음. “Henry Poole & Company. 37, 38, 39, Savile Row, London”, “M. Young hwan”이라고 적혀 있음.

- ‘Henry Poole & Company’는 1806년에 설립되었고, 1846년 세빌로 37·38·39번지로 이전하여 190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복점이 되었음

- 민영환의 대례복 바지는 1897년 영국 빅토리아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들렀을 당시 그곳의 양복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됨. 왜냐하면, 바지에 러시아어로 새겨진 부분에서 확인됨. ‘엠. 미스터(M. Мистеръ)’는 ‘민영환’을 의미하고, ‘엠. 모스카야 20(M. Морская 20)’은 민영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숙박한 유럽호텔(Europe Hotel)의 주소가 ‘Malaya Morskaya 18번지’임. 민영환은 1897년 영국 빅토리아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에 갈 때 ‘유럽호텔’에서 숙박을 하였음. 민영환의 사행일기인 『사구속초(使歐續草)』에 의하면, “一行換乘馬車 至말나야말시카이大客棧寓焉”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민영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라야 모르스카야’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였는데, 호텔의 주소가 상트페테르부르크(C. Петербург)의 Malaya Morskaya 18번지이기 때문에, 호텔 옆에 양복점에서 예복을 맞추었을 것으로 추측됨

※ 민영환은 1897년 영국 빅토리아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숙박을 하였음. 민영환의 바지 뒷부분에 연결된 ‘러시아어’를 통해, 민영환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양복점에서 예복을 맞춘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바지의 뒷중심선 솔기 안쪽에 영어로 된 천을 통해, 영국 런던 ‘세빌로(Savile Row)’에 있는 ‘Henry Poole & Company’에서 바지를 수선한 것으로 추측됨.

○ 대례견장(大禮肩章)

- 대례견장은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되었음. 소재는 금사광직이고, 상두는 장방형이고, 하두는 타원형으로 된 합성 십자형으로 제작됨
- 민영환 대례견장은 좌우 2개로, 안쪽에는 짐계가 달려있어 상의 어깨에 꽃도록 되어 있음

○ 식대(飾帶)

- 식대는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되었음. 소재는 적사광직이고, 식대의 아래 달린 방울은 은사수직으로 되어 있음.
- 민영환의 식대는 식대와 연결되는 부분에 갈색실로 짠 화병모양의 장식이 있고, 금실로 짠 반구형태의 장식이 있음. 이외에 식대를 여미기 위한 버클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상태

- 민영환 예복 일습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잘 보존하여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별도의 보존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민영환 예복 일습은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민영환 예복 일습은 1897년(건양 2년) 5월 15일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복식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 민영환 예복 일습은 예도를 제외하고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육군복식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영환 예복 일습은 자결 순국한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중한 문화 자산임에 틀림이 없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독립기념관에 이도재 부장 예복(1건 8점)이 2013년도 등록문화재 제543호로 지정되어 있음
- 육군박물관에 ‘군의 예복’(1건 5점), ‘헌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홍철유)’(2건 8점), ‘기병 정위 예복 및 상복’(2건 8점), ‘보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황석)’(4건 14점), ‘보병 부위 예복’(1건 6점), ‘보병 부위 예복’(1건 6점), ‘보병 정위 예복’(1건 4점), ‘보병 부령 상복’(1건 1점), ‘참장 예복’(1건 4점), ‘전대원수 상복’(1건 1점)이 2020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민영환 예복 일습은 독립기념관이나 육군박물관과 비교하여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민영환 예복 일습은 을사늑약 당시 자결 순국한 ‘민영환’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착용하였던 육군복장이고, 또 이 예복은 대한제국 당시인 1897년에 개정된 육군복식규칙에 의해 제작된 완전한 형태의 육군복장이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신청한 유물과 함께 미신청 된 민영환 예복 관련 유물 10점에 대해 추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미 신청 유물(총 10점) : 도대 1점, 정식서 1점, 대수 2점, 상복 상의 1점, 원수부 소례견장 1건 2점, 육군 소례견장 1건 2점, 약식서 1점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없음

<참고문헌>

민영환, 『민중정공유고』, 국사편찬위원회, 197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1997.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 복식』, 2013.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근·현대 대표 유물』, 2017.

이경미·노무라 미찌요·이지수·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한국문화』 83, 2018.

이지수·이경미, 「개항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육군 복식의 상징 문양에 대한 연구」, 『服飾』 70-4, 2020.

신효승, 「한말 군제 정비와 육군의 복장규칙 변화」, 『숭실사학』 45, 2020.

조재곤 편역, 『해천추범-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책과함께, 2007.

조재곤,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결, 민영환』, 독립기념관, 2014.

1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진해역」 현상변경(보수정비)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진해역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장	<진해역 현상변경(보수정비) 변경허가> (1) 허가 받는 자 : 창원시장 (2) 변경허가 내용 ○ 대상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761-474 ○ 내 용 : 진해역 보수정비 ○ 상세내용 - 변경 전 허가사항 ·지붕재 교체 ·창호교체 ·외벽 재도장 ·플랫폼 측 외부 목재 기둥 보수 ·전면 외부 간판 교체 ·부측 기존 출입문 복원(2개소) ·광장 경사도 정리 및 포장 변경 - 변경 후 허가사항 ·광장 경사도 정리 및 포장 변경 (3) 허가 조건 ○ 최종 보완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하되, 광장 레벨 조정 범위 등은 일부 구간 노출 후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정 추진토록 함 (4) 허가기간 ○ 2021.08.27. ~ 2023.12.31.	조건부 허가	'22.11.29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